

인천 연계 도시 간 생활권 현안 발굴 및 강화방안 연구



[제출 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 연계 도시간 생활권 현안 발굴 및
강화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인천연구원

원장 박호군

참여 연구진

연구진				
성명	소속 및 지위			담당분야
이 종 현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책임자
최 민 아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전임연구원	참여연구진
양 수 명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실	전문위원	감 수

1. 사업개요

- (배경)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과 접목하여 인천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도시와의 경제·생활권역 연계 방향 및 서부수도권연합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필요
- (목적) 서부수도권 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인접도시와의 생활권역 연계방향 및 서부수도권연합*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계획 마련
 - * 시장님 관리사항 :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전략과제(미래개척과제: 인천 생활권 공유도시들과 서부수도권연합 구축)
- (활용) 인천 인접도시들과 경제·사회적으로 연합하여 인구 610만* 거대 경제 벨트 형성 및 규모경제 실현을 위한 서부수도권연합 발전 전략으로 활용
 - * 대상 : 인천광역시(299만), 부천시(81만), 김포시(48만), 시흥시(58만), 안산시(68만), 서울 강서구(57만)

2. 지역생활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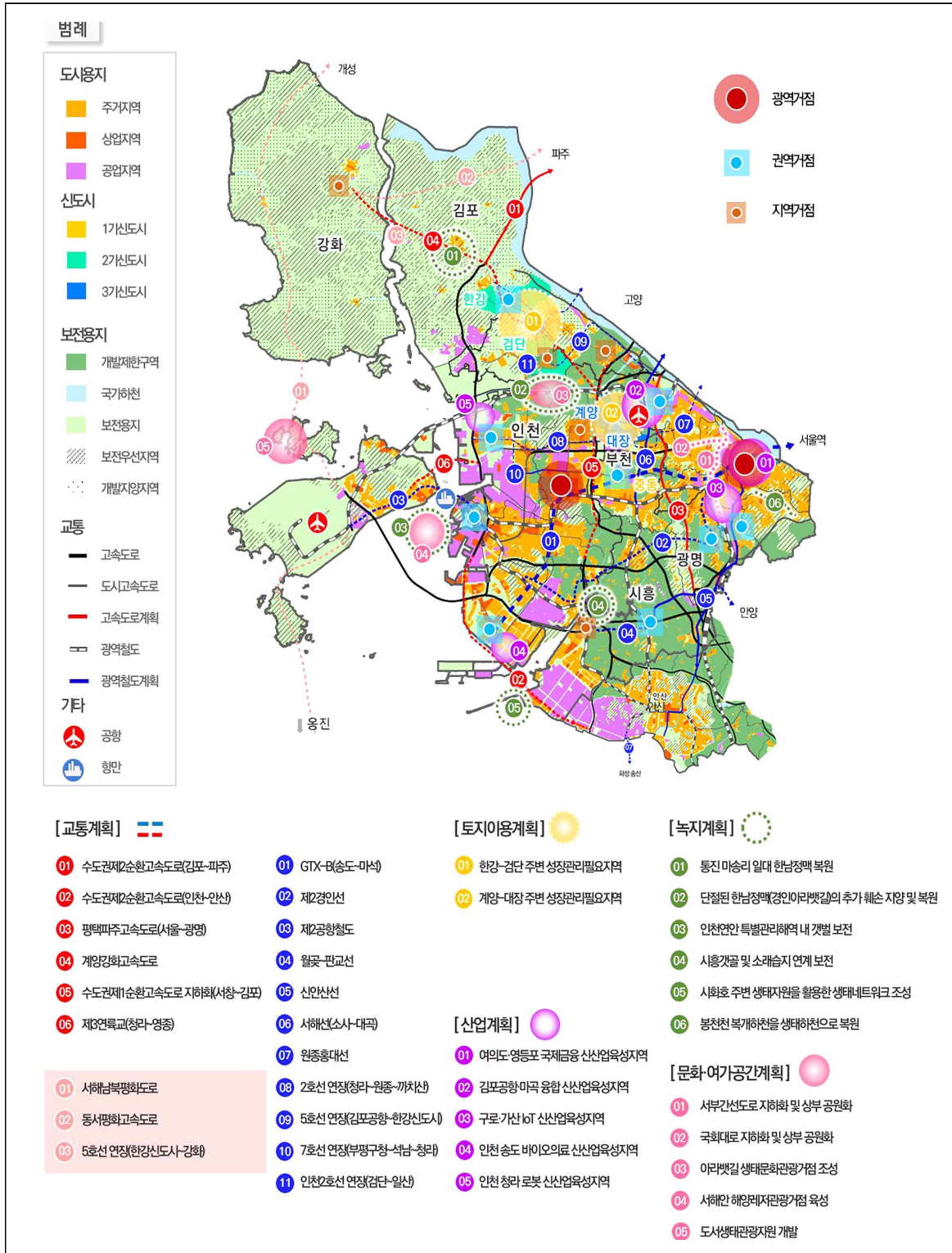
- (잠재력 분석) 신도시 위주의 개발로 지역간 인구·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반면,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특징) 동서축 교통망, 신·구시가지의 불균형, 대도시로의 통근인구 및 공항·항만 등의 국가기간시설 집중,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서해 연안 및 풍부한 친수자원 보유

3. 지역생활권 사업 발굴

- (기준) 2040수도권광역도시계획, 민선8기공약추진계획, 2023업무계획, 이슈 등

- 도시서비스의 임계규모 확보 : 인구구성 및 경제규모 현황
- 산업 간 상호보완성 : 산업구조 및 주력산업, 생활인구 고려 관광 및 산업 연계 현황
- 역사·정서적 공유 및 지역간 연계성 : 목적통행간 상호연계 및 의존성, 행정구역경계 공유, 광역교통망 현황
- (이슈) 생활권 확대로 광역적 도시문제 증가, 서부수도권의 미래방향 정립 필요
 - 도시기본계획간 연계 및 조정 : 교통시설, 공원녹지 등 통일성 있는 계획 방향
 - 수도권 지자체간 갈등 사례 : 환경기초시설 배치, 행정구역 경계조정, 광역도로 건설 시기 불일치, 대중교통체계, 환경공해 관련 갈등
- (검토) 시·군·구 부서 의견수렴('23.10.23~27.) 및 전문가* 자문회의('23.10.25.) 실시
 -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인으로 구성
- (사업 발굴) 총 26건 중 우선 선정과제 11건 도출
 - 우선 선정과제 기준 : 정책화 가능성, 주민 관심도 및 파급 기대효과, 시급성 등 고려

[요약 그림1] 인천 연계 생활권 계획구상(안)



연구요약

[요약 표 1]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우선 선정과제(11건)

No	사업명	사업내용 및 필요성	관할지자체
1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공간 활용 연계	경인철도의 지상공간 활용안에 대한 사전 공동계획 필요	인천/부천
2	UAM 항로 개발 및 광역연계와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아라뱃길에서 한강으로의 UAM 계획항로 및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자체 공동계획 필요	인천/강서/부천/김포/시흥
3	운연~신천간 광역도로 지정(구축) (시 경계지역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	인천 남동(매소홀로)~시흥시(포도원로)를 연결함으로써 교통 혼잡 해소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인천/시흥
4	강화, 김포 염하수로 공동관리 및 관광자원화	군사적 위치로 관리되지 않은 염하수로의 관광자원화 활용에 대한 공동사업 추진 필요	인천/강화/김포
5	7호선 급행열차 공동추진	출퇴근 시민의 불편과 서울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부천시와의 공동구상 필요	인천/부천
6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도시기능적 연계 우려로 도시 기반시설 및 대중교통 등의 공동사용에 대한 구상 필요	인천/계양/부천
7	경인권 관광문화여가루트 공동 구축 및 해양 관광자원 개발	관광자원 활용성 면에서 서울과의 상호영향체계 구축과 연안생태관광벨트, 섬 관광 등의 협력사업 기획 필요	IFEZ/인천/김포/부천/시흥
8	고도제한 등 공항경제권 규제개선 공동추진	김포공항 주변으로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건축높이 제한 개선 등의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사업 필요	인천/계양/김포/강서/부천
9	도시농어업 공동 플랫폼 구축	도시 연결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주말농장 등 도시농어업 관련 공동 플랫폼 구축 필요	서구-김포/계양-부천/강서/부평-부천/시흥/안산
10	공유자전거 등 차세대 교통인프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유자전거 등에 대한 통합결제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새로운 교통인프라를 포함하는 통합결제시스템(환승) 구축 필요 제안	인천/김포/부천/시흥/안산/강서
11	체육교류 이벤트(마라톤, 자전거 등) 및 공공체육시설 공동 플랫폼 구축	각 지자체별 공공체육시설의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과 함께 체육교류이벤트 공동 기획 필요	인천/부천/강서

연구요약

[요약 표 2]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검토 대상과제(15건)

No	사업명	사업내용 및 필요성	관할지자체
1	한강하구 탄소흡수원 공동관리 및 관광 자원화	한강하구는 남북공동이용수역으로 생태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서 사전에 공동 관리 필요	인천/경기/강화/김포
2	소래습지 국가공원 등 국가(광역)공원 신규 지정	소래습지+시흥갯골 국가공원, 인천대공원+소래산, 가현산 일원의 관광자원화에 의한 광역공원 추진 필요	인천/경기/시흥/김포
3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지자체별로 친수공간 조성에 따라 서부간선수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어 주민을 위한 통합 구상 필요	김포/부천/계양/부평
4	도시연접지역 기피시설 입지 공동관리	시 경계부 1km 이내에 주민 기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협의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관리 필요	인천/김포/강서/부천/시흥/안산
5	계양천, 나진포천, 검단천 친수공간 산책로 연결	지자체별로 친수공간조성사업이 시행되어 인천시 구간의 보행로 연결에 대한 공동사업 필요	인천/서구/김포
6	연접지역 정비사업 공동추진	시 경계지역 노후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필요	인천/계양/김포
7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 구조고도화 사업	2040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인천지역은 타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공동추진 필요	인천/부평/부천
8	D.N.A 혁신밸리 중심의 광역 산업단지 벨트 강화	인천형 DNA혁신밸리의 확장으로 서부수도권도시간 연계협력을 통한 산업고도화 추진 발판 마련 필요	인천/미추홀/연수/부평/부천/강서
9	서울대 연계 바이오 헬스케어기업 공동유치	송도 및 시흥배곧 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 관련 기업유치 통합·기획 필요	IFEZ/GGFEZ
10	굴포천 친수공간 연계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국가하천인 굴포천의 친수공간이 지자체별로 시행되어 효율성 면에서 통합관리와 함께 행정경계의 조정 필요	인천/부평/계양/김포/부천
11	부천, 부평 지하상가 공동관리 및 관광자원화	GTX-B 개통 등으로 지하상가의 침체가능성이 있어서 상권 경쟁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상가운영 기획 필요	인천/부평/부천
12	수도권 규제 과밀억제권역 축소 공동추진	수도권 규제에 대해 인천시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 축소 관련 공동세미나 등이 추진되므로 공동 참여 필요	인천/김포/시흥/안산/부천
13	한남정맥, 서해안 하이킹루트 조성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	정부사업으로 추진된 코리아둘레길의 관리 및 이벤트 개최 등을 공동으로 기획 필요	인천/강화/서구/김포/시흥/안산
14	안산시~박취섬~동굴섬~선재도~목섬 바닷길 연결 및 관광자원화	인천과 바닷길로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에 대해 인천구간 바닷길조성 및 관광자원화 기획 필요	용진/안산
15	경인권 통합문화제 등 관광이벤트 교차 시행	기초지자체별로 같은 기간에 집중되는 문화축제 시행에 대해 공동으로 관광이벤트 및 기간 조율에 대한 기획 필요	인천/김포/부천/시흥/안산

4. 지역생활권 연계협력방안

○ (현안 점검) 우선 선정과제 11건에 대한 현안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전략 도출

[요약 표 3] 우선 선정과제(1) :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공간 활용 연계」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①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구축	▶ 경인철도 상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하화사업 경제성 요구	▶ 타당성 검토 통과를 위한 지하화사업 편익(B/C) 확보 방안 필요 ▶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동력 필요	▶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조속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및 법안 통과,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의 전반적 추진을 위한 지역간 공동 대응 추진
② 지상공간 활용방안수립	▶ 각 지자체별 연구과제 별도 수행으로 인한 지상공간 계획간 연계성 요구	▶ 구간별 경인철도 지하화 및 지상공간 활용방안 기본 구상을 위한 공동계획 수립 필요	▶ 경인철도 지하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과 추진을 위한 인천 연계 지역간 광역 협의체계 구축 ▶ 주요 역사권 상부공간을 활용한 인근 생활권 활성화계획 공동 수립
③ 재원마련 및 관리기구 조성	▶ 예산확보방안 및 공사와 상부공간 조성시기 정합성 요구	▶ 사업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행정재산 활용방안 및 사업추진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주요 집행기구 마련 필요	▶ 경인철도 지하화로 발생하는 상부 부지 매각 등 재원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동 추진 ▶ 경인철도 관련 지자체 공동으로 공사(公社) 설립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운영 방식 공동 협의

[요약 표 4] 우선 선정과제(2) : 「UAM 항로개발 및 광역 연계와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① UAM 실증사업	▶ 국토부 주관 실증사업은 교흥(임시실증구역) 지역만 지정	▶ 수도권 상설 실증구역 지정 ▶ 수도권매립지 주변 (공역) 상설 실증구역화 및 제2매립장 상부 UAM 주기장 구축 필요	▶ 인천 청라 수도권매립지와 드론시험 인증단지를 연계한 생활권역 내 UAM 실증 및 산업육성 지구 조성 공동 추진
② UAM 노선계획 수립	▶ 제정된 UAM 법은 각 지자체가 시범운용구역 신청하면 국토부가 지정 승인하는 제도	▶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선 계획을 수립신청하면 일정 요건 충족시 국토부에서 노선 승인 필요	▶ 인천 도시특성에 맞는 섬지역, 인천 공항 노선 등 특화노선 구축 ▶ 주요 권역별 UAM 실증사업 노선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기능 항로 공동 발굴
③ 도심항공 택시 상용화	▶ UAM 상용화 초기 시민 수용성 확보와 운용비용의 현실화 필요	▶ UAM 안정성 및 효율성 홍보와 조례를 통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방안 마련	▶ 섬지역과 같은 교통취약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천형 보물섬 프로젝트 추진 ▶ 인천 연계 지역간 UAM 플랫폼 구축 확대 공동 추진
④ UAM 서비스 및 노선 확대	▶ 각 지자체별 독자노선 구축으로 비효율적 단거리 위주의 노선 구상 문제 발생	▶ 인접 도시 및 지역과 광역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대광역위와 같은 광역교통 협의체 구성 필요	▶ 인천시민의 서울과 수도권 교통체계 혁신 ▶ UAM 인프라 구축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주요 기능 및 위치 중복 최소화

연구요약

[요약 표 5] 우선 선정과제(3) : 「운연~신천간 광역도로 등 시 경계지역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① 지역간 연계광역도로 지정 필요 신설	▶ 시 경계지역의 개발이 일어나며 인접한 지자체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을 연결하는 기존도로에 심각한 교통정체 발생	▶ 지역간 이동량이 늘어난 교통정체지역 등을 대상으로 신규 광역도로 지정 및 신설 연계도시간 협의를 통한 공동 추진 필요	▶ 지역 간 연계가 필요한 광역도로 신설 대상 검토 및 발굴 ▶ 운연~신천 광역도로 지정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내 반영을 위한 인천-시흥 공동 추진
② 광역도로 개통시기 지연발생 최소화	▶ 인접도시간 경계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계획의 지자체별 내용 상이한 경우 발생 ▶ 착공시기, 예산집행시기 등이 달라서 생기는 도로전구간 개설 사업 지연	▶ 개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광역도로를 공동으로 조사하여 조속추진방안 마련을 통한 교통 불편 최소화	▶ 인천 및 연계 생활권 간 광역도로 개통지연 현황 및 조속 추진방안 공동 마련(인천 서구 거침도~김포시 약암리, 2023→2026) ▶ 향후 광역도로 개설시 지연상황에 대비한 지자체 공동대응방안 수립

[요약 표 6] 우선 선정과제(4) : 「강화·김포 염하수로 공동관리 및 접경지역 일대 역사관광 자원화」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① 지역간 역사문화 자원연계 및 산책길 조성·정비	▶ 각 지자체가 행정경계 및 군사지역, 염하수로 등에 의해 단절된 별도의 관광 및 여가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상호연계성 부족	▶ 지자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광 및 여가 자원의 연결 필요 ▶ 주요 관광자원간 연결로 신설 및 확대를 통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활용성 확보 방안 필요	▶ 평화누리길(김포) 및 강화나들길(인천) 보행탐방로 및 자전거길 정비, 확대 계획 공동 수립 ▶ (구)강화대교 및 초지대교 순환보행로 정비사업 공동 추진
② 주요관광 자원 및 관광정보 통합안내 체계 구축	▶ 지자체별 관광자원의 위치, 탐방로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자 측면에서 알아보기 쉽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탐방로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확대하고, 주요관광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필요	▶ 강화-김포 접경지역 주요 관광자원 추가 발굴사업 공동 추진 ▶ 강화-김포 관광종합플랫폼 구축 ▶ 염하수로 민간선박 항행 이벤트 공동 추진 ▶ 염하수로 내 선착장 정비 및 유람선 상시운행 공동 추진(황산, 초지진선착장, 대명포구 등)

[요약 표 7] 우선 선정과제(5) : 「7호선 급행열차 공동추진」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① 7호선 구간 관계기관 협의 추진 및 관련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7호선 구간 급행열차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및 정치권 등 연계협조 미흡 ▶ 7호선 연장 구간 중 인천, 부천 구간 보다 서울 구간이 다수 포함되어 서울시 의견 절대적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호선 급행화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관련 기관(인천, 경기, 서울 등) 협의 및 정치권 협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경기, 서울 간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기적 협의체계 구축 ▶ 인천시 7호선 청라 연장구간 복선화 우선 추진 ▶ 7호선 급행사업의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협조 및 공동 대응
② 7호선급행 도입을 위한 기술적 검토 및 타당성 추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호선 급행화를 위해서 대피선 설치에 필요하나 설치시 막대한 비용 발생 ▶ 7호선 급행노선 B/C값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내 후보노선으로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호선 급행화 대피선 신설을 위한 기술적 검토 필요 ▶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선정노선으로 포함되기 위해 타당성 추가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선 신설을 위한 인천, 부천 내 가능구간 자체검토 및 공동 계획 ▶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예상 사업비 재산정을 통한 타당성 추가 확보 계획 공동 추진

[요약 표 8] 우선 선정과제(6) :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통합관리」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① 생활SOC 적정 수요 고려한 공급, 배치를 통한 효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조성되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계획 간에 기능적 연계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반시설의 공동 설치, 경계지역 환경시설 등의 입지 관리,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대중교통의 공동 사용, 관리 등을 계획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구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대장신도시 공공문화시설 등 생활SOC 수요 및 공급, 배치 공동 계획 수립 ▶ 도시관리 효율성을 위한 굴포천 주변의 행정경계 정리 등 포함
② 주요 인프라 공유 및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지역 내 위치하는 환경시설, 버스노선연계 미흡, 철도교통망 부재 등 주요 도시인프라의 유무로 인한 주민 불편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반시설의 공동 설치, 경계지역 환경시설 등의 입지 관리,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대중교통의 공동 사용, 관리 등을 계획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구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대장신도시 공공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무차별 공동이용 플랫폼 마련 ▶ 계양대장신도시 대중교통 노선연계 및 공유자전거 등 환승시설 공동조성 ▶ 신도시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입지 및 난개발에 대한 공동관리 체계 구축

[요약 표 9] 우선 선정과제(7) : 「경인권 관광문화여가루트 공동구축 및 해양관광자원 개발」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① 수변자원 활용 관광루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라뱃길~한강 등 기존 유람선 관광루트 중단 장기화 ▶ 관광루트 중단 장기화로 인한 수변·해양관광자원 발굴 필요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수도권 내 수변·해양 관광루트 노선 재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수변공간을 활용한 카페, 쉼터, 생태탐방로, 해양환경 체험관, 갯벌체험, 해양스포츠 크루즈 체험 등 서해연안을 활용한 다양한 인프라 및 체험형 콘텐츠 공동 발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라뱃길, 한강, 인천연안항, 경기 방이버리항 등 섬 지역 관광을 위한 주요 여객선 루트 확대 공동 계획 추진 ▶ 강화도, 선재도, 영흥도, 대부도 등의 해양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② 관광 활성화 위한 주요 인프라 및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지역 위치 및 여객선 운항 축소, 보행로 단절 등으로 인한 섬 지역 및 해안 지역으로의 접근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수보행로, 해안길 및 전망대, 지역간 자전거길 연계,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 수변 및 해양 접근성·활용성 확보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 및 섬지역 관광지 접근성 관련 인프라 공동 조성 ▶ 자전거 이음길, 친수보행로, 둘레길, 바닷길, Scenic Drive(전망대) 및 해안여가공간 등
③ 지역내 투어패스 확대 통합운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투어패스 운영으로 인한 인접한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결여 ▶ 연결가능한 섬 지역임에도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단절된 지역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 이용 및 지역간 연계 교통망 활용이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투어패스의 공동 활용 필요 ▶ 행정구역간 단절을 해소 하고 섬 지역간 관광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형 세도우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서부권 섬지역 관광지의 투어 패스 여행지 편입 및 공동 기획 ▶ 현재 운영중인 인천투어패스와 경기서부권투어패스 통합 및 지역 화폐 연계 추진 ▶ 연안여객선, 유람선, 크루즈 등 다양한 섬지역 대중교통수단의 통합·연결 계획 추진

연구요약

[요약 표 10] 우선 선정과제(8) : 「고도제한 등 공항경제권 규제개선 공동추진」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① 고도제한 완화 추진	▶ 항공법 개정과 항공학적 전문기관이 지정되었으나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완화 선행	▶ 국제기준 고도제한 기준 변경을 위한 연계생활권 지자체 공동 입장 정리 및 지속적인 고도제한 완화 제안을 통한 조속한 규제 완화 필요	▶ 공항 고도제한 관련 지자체 및 자치구 간 관련업무 협력체계 유지 및 확대
② 규제 완화에 따른 주변지역 관리방안 마련	▶ 2028년 공항주변 고도제한 국제기준 완화가 예상되나 규제완화에 따른 도시난개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부재	▶ 2028년 ICAO개정에 맞춘 지역특성을 반영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도시관리 방안 수립 필요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완화(개정) 이후를 대비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동 마련

[요약 표 11] 우선 선정과제(9) : 「도시농업 관련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① 시민을 위한 도시농업 기능확보	▶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및 주말농장 확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음 ▶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성 증대 ▶ 도시농업의 가치 상승	▶ 인천 연계 생활권 도시간 주말농장 계획 및 운영방안 연계를 통해 도시농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 필요 ▶ 도시민의 여가, 취미 등을 위한 도시농업 기반 확대 ▶ 도심형 '도시텃밭'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심 내 유휴공간 발굴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지역간 공동 주말농장 분양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도시농업을 위한 생태자원 보존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구축·운영 ▶ 연계 생활권 내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도시농업농장 등을 조성
② 도시 근교농업의 단계적 활성화 체계 구축 및 확대 필요성 공유	▶ 도시근교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작물의 현황, 농업생산물의 판매 및 소비체계 등이 미흡	▶ 도심 내 농산물 생산지역의 확대 및 지역별 특산품 홍보, 연계소비 등을 위한 지역간 공동 유통플랫폼 구축 필요 ▶ 인천 연계 생활권의 친환경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방향 마련 필요 ▶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 관련 가공제품과 판매방식의 고도화	▶ 인천 연계도시간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제 및 안테나숍(제품 기획 및 생산에 반영하기 위한 테스트 공간), 유통플랫폼의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등 ▶ 도시내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기술교육 및 제품 사업화 교육 지원

[요약 표 12] 우선 선정과제(10) : 「공유자전거 등 차세대 교통인프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① 대중교통 및 PM 통합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교통정책 및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하여 인접지역간 연계 결여 ▶ 실시간 대중교통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이용결제가 가능한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지역간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다양한 친환경 교통인프라 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버스, 자전거, 카셰어링, 전동킥보드 등을 아우르는 통합 결제 및 이용시스템 공동 구축 ▶ 시민편의 개선을 위한 공유 자전거 및 PM 위치 확인, 예약 시스템 결합 시도 어플리케이션 구축
②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교통망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시스템임에도 무분별한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시민 불편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쾌적한 이용 및 관리방안 필요 ▶ 마이크로 모빌리티(개인용 이동수단)의 지역내 연계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변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 경계지역 및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통합 모빌리티 주차구획(스마트 그린스테이션) 공동 배치 및 설치 추진 ▶ 지역간 연계를 위한 차세대 교통인프라 차로 운영방식 공동 추진
③ 관련법 제정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자전거, 차량,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자전거, 자동차, 드론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지원 근거법령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의 일상적 구현을 위한 기존 법제 및 정책의 재검토와 지역적 특성환경을 반영한 제도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검토 및 지역간 이동성 증진을 위한 연계 생활권 간 모빌리티 운영 가이드라인 공동 구축

[요약 표 13] 우선 선정과제(11) : 「공공체육시설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및 체육교류 이벤트 개최」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① 공공 체육시설 양적·질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리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계획이 현재진행 중인 상황이나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 생활권 전반의 공공 체육시설 공급을 위한 관련 지자체 정보 공유 필요 ▶ 연계 생활권 단위의 공공 체육시설 수요·공급 관련 공동조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수요 및 공급매치 관련 연계 생활권 공동연구 추진
② 생활권 기준 공공체육 시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주거지 기준으로 쉽게 접근가능한 공공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어도 행정구역 차이로 이용불가능한 시설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서비스 소외지역이 없는 균형적인 공공체육 공간 형성을 위해 지자체간 공동 이용가능한 시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 생활권 내 주민을 동일기준으로 이용가능한 공공체육시설 시범 운영 도입 ▶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등 요금 및 예약순위 설정
③ 생활권 기준 공동 예약 및 이용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시설관리공단, 지자체 홈페이지 등 공공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이 시설별로 상이하여 편리한 활용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공공체육시설의 예약 시스템 도입을 위한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 예약관리, 수강신청 등 원스톱 서비스 체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연계 생활권 공공체육시설 공동예약 플랫폼 구축

5. 사업추진체계

- (추진 체계)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수의 지자체 합병보다는 ‘광역연합’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천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서부 수도권 의 광역화 정책이 바람직함
 - 사례 : 영국 광역연합체, 프랑스 메트로폴, 일본 광역연합제도 등
- (운영 방향) ‘인천 연계 도시간 광역연합체*’ 구성과 국가 및 시·도로부터 권한 이양, 그리고 지자체의 분담금, 수수료, 지방채 등의 재원조달 방안 마련
 - * 「지방자치법」 제199조 및 제202조에 따라 각 지자체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 가능
 - 1안 : 인천 연계 생활권 협의체 구축 추진
 - 2안 : 수도권(대도시권) 광역 거버넌스 기구 내 소속 협의체 형태 운영

목차

01 개요	1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2. 계획의 범위	4
3. 계획의 주요내용 및 활용계획	5
02 지역생활권 현황 및 여건분석	7
1. 지역생활권의 구성	9
2. 인천 연계 생활권 일반현황	12
3. 주요 관련계획 검토	27
4. 서부수도권 도시 관련 공통이슈 도출	31
03 지역생활권 사업 발굴	55
1. 인천 연계 생활권 주요과제 도출	57
2. 인천 연계 생활권 공동 현안 발굴	61
3. 인천 연계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유형화	71
4. 인천 연계 생활권 주요 연계·협력사업 우선순위	74
5. 인천 지역 생활권 주요 연계·협력 사업별 전략 및 계획	78
04 지역생활권 사업추진체계	121
1. 지역생활권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향	123
2. 지역생활권 협의체 운영 계획	127
3. 지역생활권 협의체 추진체계 제안	127

표 목차

[표 2-1]	지자체 간 연계성 판단 기준	11
[표 2-2]	인천 연계 생활권 인구현황 및 인구추계, 면적 현황	14
[표 2-3]	인천연계 생활권 행정구역별 기초현황	15
[표 2-4]	인천 연계 생활권 일자리 수 및 평균연봉	16
[표 2-5]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간 연계성 검토	21
[표 2-6]	생활권5 장래인구(2020~2040)	28
[표 2-7]	2040년 생활권5 시·군별 장래인구(2020~2040)	29
[표 2-8]	생활권 도시기본계획 조정 필요사항 (교통시설)	33
[표 2-9]	생활권 도시기본계획 조정 필요사항 (공원녹지)	34
[표 2-10]	생활권 도시기본계획 조정 필요사항 (성장관리권역 등)	34
[표 2-11]	인천광역시 민선8기 시정 비전 및 목표	36
[표 2-12]	인천광역시 민선8기 5대 핵심공약	39
[표 2-13]	인천시 공약사업(120개) 중 주변 도시와의 연계 필요 사업 분류 ·	40
[표 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요 추진사업 중 인천연계생활권 공통항목 ···	41
[표 2-15]	경기도 부천시 주요 추진사업 중 인천연계생활권 공통항목	42
[표 2-16]	경기도 김포시 주요 추진사업 중 인천연계생활권 공통항목	43
[표 2-17]	경기도 시흥시 주요 추진사업 중 인천연계생활권 공통항목	44
[표 2-18]	경기도 안산시 주요 추진사업 중 인천연계생활권 공통항목	45
[표 2-19]	인천연계 생활권 행정구역별 발전구상	47
[표 2-20]	수도권 지자체간 갈등사례 정리	53

표 목차

[표 3-1]	인천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목록	68
[표 3-2]	서부수도권 도시 간 협력사업 유형화	72
[표 3-3]	전문가 자문회의 시 주요 자문의견 사항 정리	74
[표 3-4]	인천 지역생활권 주요 연계협력사업 우선 선정과제 : 11건	77
[표 3-5]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공간 활용방향 연계를 위한 추진전략 · 81	
[표 3-6]	UAM 항로개발 및 광역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86
[표 3-7]	관광문화여가루트 및 해양관광자원 공동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90
[표 3-8]	차세대 교통인프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94
[표 3-9]	김포공항 주변지역 건축물의 높이규제 완화를 위한 추진전략	98
[표 3-10]	공공체육시설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100
[표 3-11]	7호선 급행열차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	105
[표 3-12]	운연~신천 간 광역도로 등 시 경계지역 도시계획도로 연결 추진전략 · 108	
[표 3-13]	강화김포 염하수로 공동관리 및 접경지역 일대 역사관광자원화 추진전략 · 112	
[표 3-14]	계양테크노밸리-대장신도시 생활SOC 및 대중교통이용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 115	
[표 3-15]	도시농업 관련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추진전략	119

그림 목차

[그림 1-1]	계획의 공간적 범위	4
[그림 2-1]	인천 연계 생활권 행정구역 구분 및 기초현황	12
[그림 2-2]	인천 연계 생활권 사회·경제적 특성 현황	16
[그림 2-3]	인천 연계 생활권 토지이용 및 교통망 현황	18
[그림 2-4]	인천 연계 생활권 통근모식도	19
[그림 2-5]	인천시 순이동인구 현황 (22.12 기준)	20
[그림 2-6]	인천 연계 생활권 사업체 및 산업단지 분포	22
[그림 2-7]	인천 연계 생활권 업종별 종사자 분포	23
[그림 2-8]	인천 연계 생활권 역사·문화·생태자원 현황	24
[그림 2-9]	인천 연계 도시간 공간적 현황 분석도	26
[그림 2-10]	생활권 구분도	27
[그림 2-11]	생활권1·생활권5 계획구상도	30
[그림 2-12]	인천연계 생활권 소속 시군의 발전축 종합도	49
[그림 2-13]	인천연계 생활권 소속 시군의 보전축(녹지·수계축) 종합도	50
[그림 3-1]	인천 연계 생활권 연계 계획구상(안)	60
[그림 3-2]	서부수도권 도시 간 협력사업 관련 위치도 (표 3-2와 연계)	73
[그림 3-3]	경인철도 도원역 부근 현황	79
[그림 3-4]	경인철도 지하화 필요구간	80
[그림 3-5]	철도 상부공간 활용 기능 예시(부천역)	82
[그림 3-6]	현재 추진 중인 UAM 실증사업 노선(수도권)	84
[그림 3-7]	인천 내 UAM운행 항로 설정 구상(안)	85
[그림 3-8]	인천 연계 생활권의 관광여가루트 (2040수도권광역도시계획)	91
[그림 3-9]	인천투어패스 운영화면	91

그림 목차

[그림 3-10]	경기투어패스 운영화면	91
[그림 3-11]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구조도	94
[그림 3-12]	차세대 교통인프라 관련 차로운영 방식 개선(안)	95
[그림 3-13]	공유자전거 및 PM위치 연계지도 앱 예시	95
[그림 3-14]	김포공항 주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현황	98
[그림 3-15]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위치 및 전방 2km 범위 (2023.4월 기준) ·	101
[그림 3-16]	공공체육시설 공동이용 플랫폼 예시(안)	101
[그림 3-17]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내 7호선 급행화 검토구간 ·	103
[그림 3-18]	도시철도 7호선 인천, 부천 급행화 추진 필요 구간	104
[그림 3-19]	행정경계지역 도로확장 개설 지연 사례 (거침도~약암리)	109
[그림 3-20]	염하수로 위치도	113
[그림 3-21]	염하수로 일대 현재 각 지자체별 둘레길 설정 현황	113
[그림 3-22]	염하수로 일대 역사 및 관광자원 연계 순환 노선 제안	113
[그림 3-23]	3기 신도시 인천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위치도	116
[그림 3-24]	인천시 및 인접지자체의 도시텃밭 위치도	118
[그림 3-25]	스마트팜 관련 예시	120
[그림 3-26]	지역 연계 공동 주말농장 운영 및 활용	120
[그림 4-1]	인천 연계 도시간 생활권 추진체계 제안 1 (예시)	127
[그림 4-2]	인천 연계 도시간 생활권 추진체계 제안 2 (예시)	128

01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3. 계획의 주요내용 및 활용계획

01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민선8기 미래개척과제¹⁾의 일환으로 인천 생활권 공유도시들과 서부수도권연합 구축에 따른 공동 발전전략 및 생활권 단위의 계획 수립 필요
-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과 접목하여 인천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도시와의 경제·생활권역 연계 방향 및 서부수도권연합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필요

2) 계획의 목적

- 서부수도권 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인접도시와의 생활권역 연계방향 및 서부수도권연합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계획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인천 연계 생활권 간의 공동·협력·상생을 중심으로 한 발전은 재정과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에 대응하며, 경제의 규모화, 중복 서비스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등 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도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인 부천, 김포, 시흥, 안산, 서울시 강서구 등과 지역연계 생활권을 구성하고, 연계 생활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 발굴 및 잠재력 분석을 통해 지자체 간 연계·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1) 인천광역시 민선8기 미래개척과제는 4대시정방침 중 하나의 항목인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전략과제와 관련이 있음

2. 계획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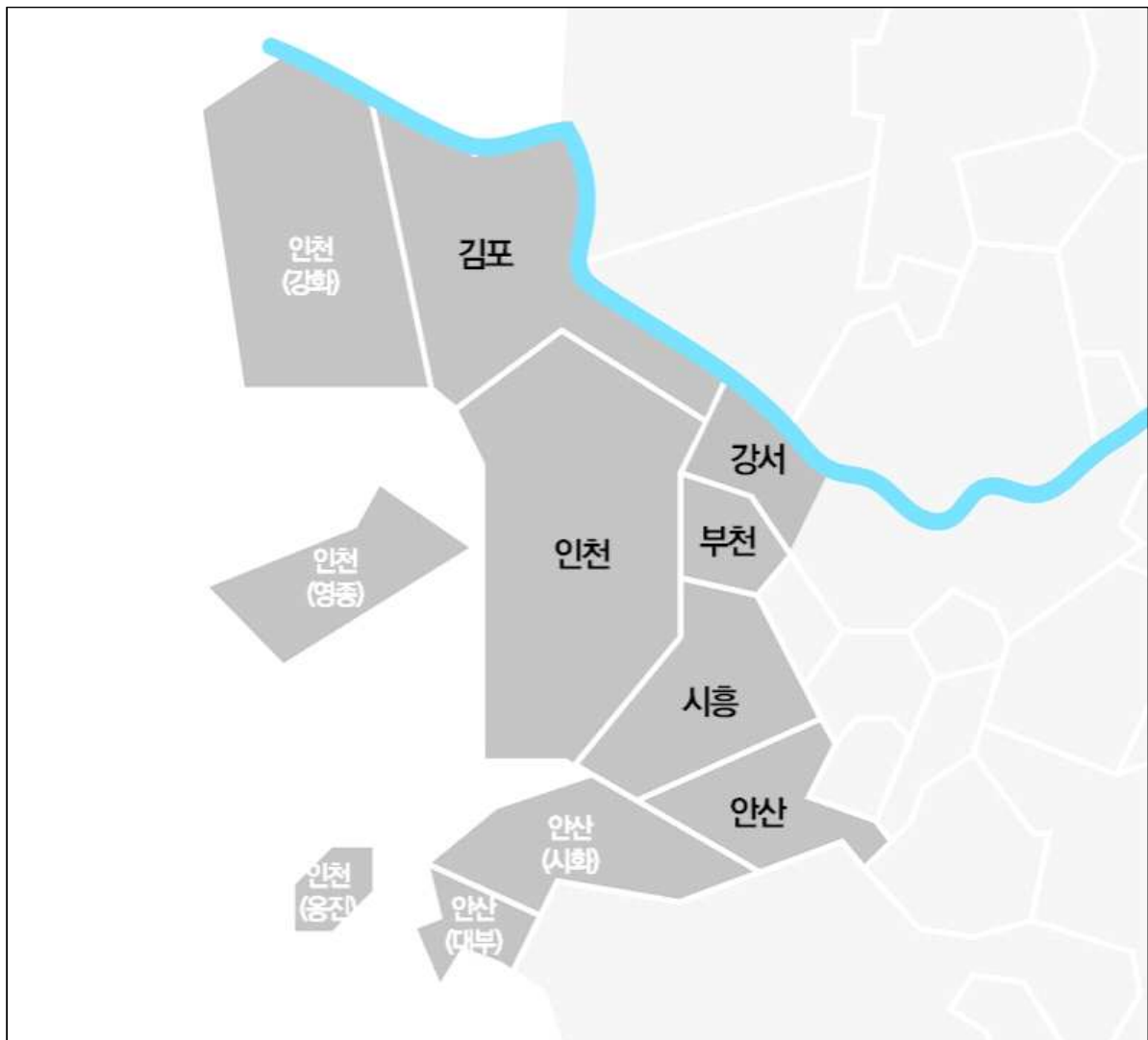
1) 공간적 범위

- 인천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인접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해당함

2) 시간적 범위

-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계획함

[그림 1-1] 계획의 공간적 범위



3. 계획의 주요내용 및 활용계획

1) 주요내용

- 지역생활권 현황 및 여건분석
 - 서부수도권도시의 보유 자원 및 잠재력 분석
 - 서부수도권도시 관련 이슈 분석
- 지역생활권 사업 발굴
 - 지역생활권 정책 및 추진방향 검토
 - 서부수도권도시간 공동의 현안 발굴
- 지역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제시
 - 지역생활권 연계협력방안
 - 사업추진에 따른 현안 사항 점검
 - 생활권별 의견 조율 및 협업체계 구축방안 제시

2) 기대효과

- 민선8기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천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도시들과 경제사회적으로 연합하여 인구 610만 거대 경제벨트를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서부수도권연합 발전전략의 논거로 활용
 - 인천시(299만), 부천시(81만), 김포시(48만), 시흥시(58만), 안산시(68만), 서울 강서구(57만)
-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핵심사업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서부수도권의 글로벌 성장거점도시로서 역할과 인접도시와의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한 시정 정책의 구체적 방향 도출

02 지역생활권 현황 및 여건 분석

1. 지역생활권의 구성
2. 인천 연계 생활권 일반현황
3. 주요 관련계획 검토
4. 서부수도권 도시 관련 공통이슈 도출

02 지역생활권 현황 및 여건분석

1. 지역생활권의 구성

1) 지역생활권 개념과 특징

(1) 기본개념²⁾

- 지역생활권이란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공간을 설정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부족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서비스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임
- 지역생활권은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함
-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하는 공간으로 중심도시, 농어촌 중심지(읍·면), 인근 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임

(2) 지역생활권의 유형

- 지역생활권의 유형은 인구, 지리적·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함
 - 중추도시생활권은 광역시 등 지역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대도시, 특화된 중소규모 도시가 연담된 도시지역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생활권임
- 인천 연계도시 생활권의 경우는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생활권의 대상 지역은 지역발전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중심도시 및 이와 연계된 지역들이 상호간의 기능적 연계와 협력의지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도시형 연계협력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음

2) 인천광역시(2015). 인천·부천·김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p.9

- 유형은 대도시 중심형과 네트워크 도시형으로 구분됨
- 대도시 중심형 : 광역시 등 중추기능을 제공하는 대도시와 연계된 인근 지역으로 구성되는 생활권임
- 네트워크 도시형 : 중소규모의 특화된 도시가 연담하여 중심을 이루고 인근 지역과 상호연계를 맺는 생활권임
- 구성기준은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임

(3) 지역생활권의 구성 원칙과 기준

○ 기본원칙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생활권이 되도록 지역에 융통성을 부여함
- 공표된 통계자료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기본으로 함
- 인구규모, 지역 간 연계성 등 정량적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기준을 활용함
- 인구 및 접근성뿐만 아니라 기능적·역사적 연계성 및 주민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권을 구성함
- 광역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생활권 구성도 가능함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생활권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2개 이내 생활권에 중복(특·광역시 및 도 경계에 있는 시·군, 중추도시 생활권에 포함된 시·군 등) 포함될 수 있음

○ 생활권 구성 고려요소

- 지역생활권 구성의 핵심요소로써, 출발점은 주민의 실생활 공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지자체 간의 협력 잠재력과 미래의 공간전략(국가 및 지역계획의 공간구상, 생활권 구상 등) 등도 고려하는 것임
- 주민의 생활공간, 지자체 간 행정협력 공간, 국가 및 지자체 계획의 공간구상 등을 고려하여 지역생활권의 범위에 관한 대안을 설정함

○ 지자체 간 연계성 기준

- 생활권은 지자체 간 접근성, 기능적·지리적 관계,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자체의 협력의지 등을 감안하여 연계성이 높은 지역으로 구성함

- 지자체 간 연계성을 나타내는 정량적·정성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생활권을 구성함
 - (예시) 정량지표: 지자체 간 통근통행지표(통근율, 역통근율, 통근량 비중),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권, 산업·경제 연계지표 등
 - (예시) 정성지표: 지자체 간 연계협력 의지, 연계협력 실적 등 사회적 통합성, 생태·환경 및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
 - 지자체가 정량적·정성적 연계성 지표 중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표를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생활권을 구성함
- 본 계획에서는 지자체 간 연계성 판단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였음

[표 2-1] 지자체 간 연계성 판단 기준

<p>1. 일차적·일상적 도시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한 임계규모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성 및 경제 규모 현황 <p>2. 산업구조 및 주력산업간 상호보완성 및 연계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 및 주력산업 현황 - 생활인구를 고려한 문화·관광 및 산업 연계 현황 <p>3. 역사적·정서적 배경의 공유 및 지역 간 연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근·통학 등 목적 통행 간 상호 연계성 및 의존성 - 행정구역 경계 공유 - 광역교통망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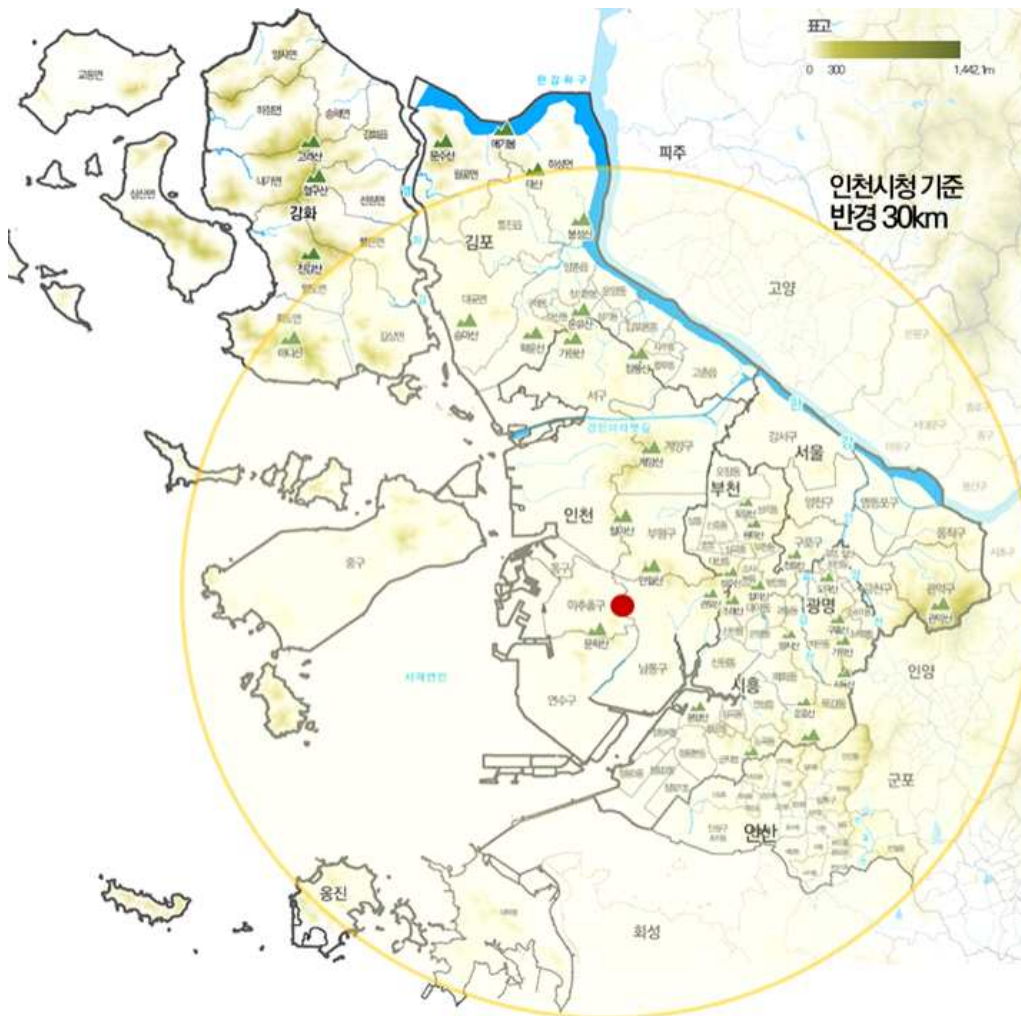
2. 인천 연계 생활권 일반현황

1) 행정구역 구분 및 기초현황

(1) 소속 행정구역

-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인천,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서울 강서구를 인천 연계 생활권으로 구분하였으며, 면적규모는 1,735.04km²임
-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김포시·시흥시·안산시,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수도권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경계와 인접한 지역임
- 인천연계 생활권에 속하는 시군 및 지역생활권은 수도권의 서부지역에 위치함
- 인천(강화·옹진 제외)을 기준으로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서울시 강서구 행정구역은 반경 약 30km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2-1] 인천 연계 생활권 행정구역 구분 및 기초현황



(2) 인구

- 본 계획 대상지역인 생활권 인구규모는 610만명임
 - 인천시(299만), 부천시(81만), 김포시(48만), 시흥시(58만), 안산시(68만), 서울 강서구(57만)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의 약 20% 이상 차지하는 수준임
-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생활권이며, 향후 2040년의 인구를 추정하면 약 605~667만명이 거주하는 생활권으로 예상되는 지역임
 - 2040년 생활권 인구는 2040년 통계청 인구추계 중위인구 기준으로 605만 명임
- 시군 개별적으로는 통계청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서울 강서구·안산시·부천시의 2040년 장래인구가 현재(2023년) 대비 감소하고, 인천시·김포시·시흥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천 연계도시 생활권 전체의 장래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하다 빠르면 2020년대 말, 늦으면 2030년대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 중위인구 기준으로 60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생활권 수준의 10년 뒤 다가올 인구감소에 대비한 공간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됨
-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40년 기준으로 서울 강서구는 54만~60만, 인천시는 303만~333만, 김포시는 57만~63만, 부천시는 77만~85만, 시흥시는 54만~60만, 안산시는 60만~66만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 계획에 대한 마련이 필요

[표 2-2] 인천 연계 생활권 인구현황 및 인구추계, 면적 현황

(단위:만 명, km²)

구분	인구현황	2040년 인구조표			면적	
		통계청 추계 (중위)	계획인구 (105%)	최대인구 (110%)		
서부수도권 연합생활권	계	610	605	636	667	1735.04
	인천	299	303	318	333	1067.04
	김포	48	57	60	63	276.6
	부천	81	77	81	85	53.5
	시흥	58	54	57	60	139.9
	안산	68	60	63	66	156.5
	서울강서	57	54	57	60	41.5

주1) 인구현황은 각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자료 기준(2023년 10월)

주2) 2040년 통계청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추정된 자료임

(3) 지형·지세

- 한강과 서해로 흐르는 하천들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형성하고 한남정맥이 남동에서 북서로 가로지르고 있으며, 북측으로 한강 하류와 북한, 서측으로 서해에 접하고 있어 크고 작은 도서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4) 지역 내 국가 주요시설

-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김포공항, 경인항(인천, 김포) 등이 위치하고 있어 2천만 수도권 인구나 해상과 육로, 국제 항로를 통한 동북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임
 - 공항과 항만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인천신항), 경인항, 김포항이 있음
- 인천광역시와 연접한 도시인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서울 강서지역은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이 집중하고 있음
 - 국가산업단지는 인천의 부평·주안·남동산단, 안산의 반월특수(시화, 안산신도시)가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29개가 지정되어있음
 - 국가산업단지는 개발된 지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김포시에서 주로 개발 중임

[표 2-3] 인천연계 생활권 행정구역별 기초현황

구분	기초현황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수도권 서부에 위치하여 서측으로 서해안과 접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김포시, 동측으로 서울시 강서구·부천시·시흥시와 인접 • (지형·지세) 서측으로 서해에 접하며, 북측으로 한강의 하류에 위치하고, 산지는 마석령산맥과 광주산맥에서 이어져 오고 있음 • (주요특징) 매립을 통한 토지공급으로 도시 규모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원도심과 신시가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인천항해양 도시설원 등 성장동력을 보유함
김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서부 끝에 위치하며, 동측으로 파주시·고양시, 남측으로 서울시 강서구·인천시 서구·계양구, 서측으로 인천시 강화군과 인접 • (지형·지세) 북측으로 한강 하류에 입지하여 대체로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문수산과 장릉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낮은 구릉지 또는 평야를 형성함 • (주요특징) 통일대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가능 토지자원이 풍부하여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동시에 접경지역으로 제약요소가 가중되고 광역교통체계가 미흡함
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서부에 위치하며, 북동측으로 서울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서측으로 굴포천을 경계로 인천시, 남측으로 시흥시·광명시와 인접 • (지형·지세) 시가지 남측의 성주산·할미산 및 동측의 원미산 등 산지에 둘러싸여 있어 북서부는 평탄하고 남동부는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 • (주요특징)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기반으로 문화산업이 발달하고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인구구조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울·인천 등 주변 대도시 세력권으로 흡수되어 베드타운화의 우려가 있음
시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서부에 위치하여 서해안과 접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인천시 남동구, 북측으로 부천시, 동측으로 광명시·안양시 만안구, 남측으로 안산시와 인접 • (지형·지세) 북동측으로 소래산·양지산·운흥산이, 남측으로 마산·군자봉이 위치하며, 동측의 임야지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평지와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 • (주요특징) 시화MIV 등 서부산업권의 증추도시로 광역교통망 다수가 통과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토지이용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용 토지자원의 절대적 부족현상이 심화됨
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수도권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단과 남단은 수원시, 화성시와 접해 있고 서단과 북단은 각각 인천광역시, 시흥시와 접해 있음 • (지형·지세) 안산시 전지역의 평균 표고는 100m이내로서 일부 산들의 급경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북측의 수리산이 가장 높음 • (주요특징)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로 탄생한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전원공업도시를 지향하여 공원·녹지율이 높은 쾌적한 도시임
서울 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서남부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북측으로 서울시 마포구 및 김포시·고양시 덕양구, 서측으로 인천시 계양구, 동측으로 서울시 양천구, 남측으로 부천시와 인접 • (지형·지세) 대체로 평평한 지형으로 북측으로 한강, 남측으로 관악산·삼성산·호암산과 접하고 있으며, 서남측으로부터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이 유입되어 가로지르고 있음 • (주요특징)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식물원, 마곡지구 등이 위치하며 서울시 내에서 산업적·문화적 입지 상향하는 추이임

주 : 2023년 9월 기준 가장 최신의 도시·군도시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함

(5) 인천연계 생활권의 사회·경제적 특성

- 인천연계 생활권에는 수도권 전체 대비 약 20% 규모의 인구(610만 명) 및 가구(253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
 - 평균 가구 구성원 수는 약 2.45명임
 - 인천연계 생활권의 총 주택수는 2023년 기준 약 224만 호이며, 인구 천 인당 주택수는 361.8호에 달함
- 인천연계 생활권에는 약 66.9만 개의 사업체가 위치하며, 약 262만 명의 종사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그림 2-2] 인천 연계 생활권 사회·경제적 특성 현황



[표 2-4] 인천 연계 생활권 일자리 수 및 평균연봉

구분	일자리 수(인) (국민연금 기업자료 추산)	평균연봉 (만원)	비고
인천 (서구)	96,497	4,160	5
인천 (부평구)	54,021	4,490	2
인천 (강화군)	6,845	3,750	9
인천 (옹진군)	1,611	3,800	8
부천	82,740	3,850	7
김포	73,691	3,930	6
시흥	93,410	4,210	4
안산	133,608	4,428	3
서울 (강서구)	193,977	4,890	1

출처: 국민연금 기업자료 추산 일자리 수, 호갱노노

2) 인천 연계 생활권의 주요 특징

(1) 동서축으로 발달한 주요 교통망

- 인천연계 생활권의 주요 철도와 고속도로는 남북축 연결보다 동서축 연결이 많으며 서울과의 연결성에 우선순위에 둠
 -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을 높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공항철도, 경기 남부와 인천을 연결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1·7호선 등 동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발달해 있음
- 남북을 가로지르는 형태는 수도권제1·2순환고속도로, 인천도시철도 등이 남북축을 연계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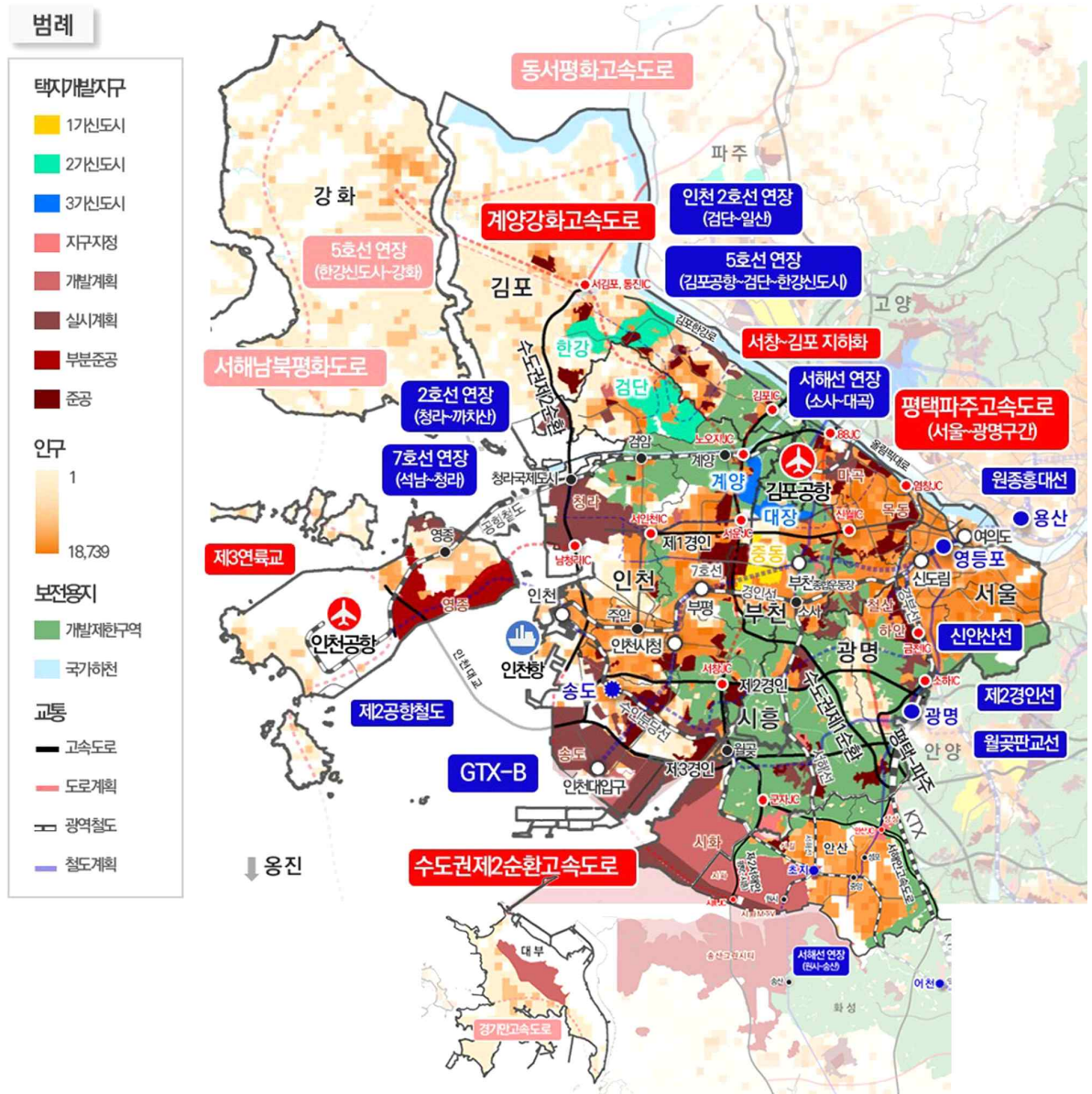
(2) 신·구시가지의 불균형 심화

- 새로 조성된 도시에 비해 인천·부천의 원도심 등 기존의 도심지역은 기반시설의 노후도가 심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인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신도시 지역은 학급의 과밀화, 불편한 대중교통 등 이주하는 인구에 비하여 광역철도 등의 기반시설이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산업단지도 기존 산업단지는 단지 노후화가 심하고 공업기능이 쇠퇴하여 새로운 산업기능 부여가 필요한 반면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와 대장신도시는 신규주거단지 및 첨단산업이 입지하여 개발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3) 서해 연안 및 도서지역·한강·아라뱃길 등 풍부한 친수자원 보유

- 인천연계 생활권은 수도권 내 유일하게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강 및 한강과 연결된 아라뱃길 등 친수자원도 집중되어 있음
 - 특히 한강·아라뱃길의 물류·관광 개발 잠재력이 높으며 서해 연안에는 소규모항만들이 위치하여 동서 간·남북 간 친수자원 개발이 모두 가능함
 - 서해 도서지역에는 갯벌과 조류 번식지 등 생태자원이 풍부하여 크게 주목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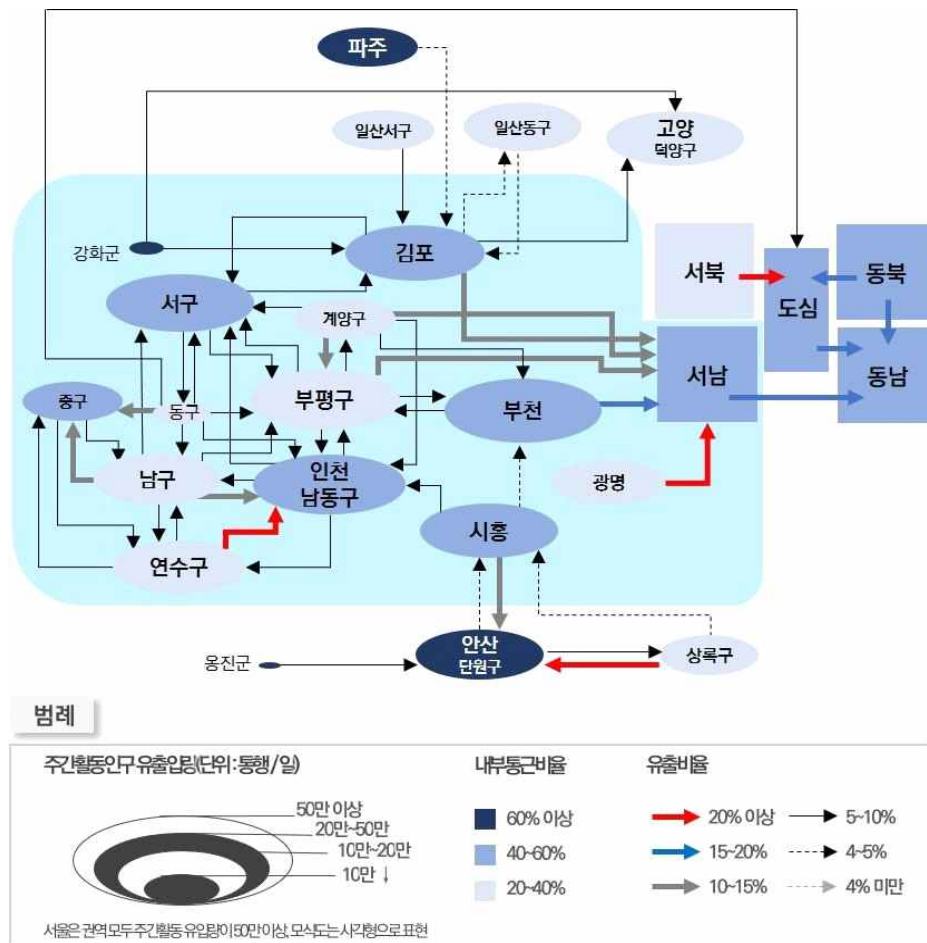
[그림 2-3] 인천 연계 생활권 토지이용 및 교통망 현황



(4) 대도시로의 통근인구 집중

- 인천 연계 생활권은 주요 일자리 거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남권과 인천 남동권 및 중부권으로의 통근인구가 집중되어 있음
- 부평·계양·부천·김포에서 서울 서남권으로의 통근 통행 비중이 높으며 인천 서남권 및 중부권은 인천 남동권으로, 인천 서남권 및 서북권은 인천 중부권으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내부통근비율에서 인천 남동권 및 서북권·김포·부천·시흥은 40~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산은 용진군과 연계성이 확인됨
- 인천 연계 도시들은 대체로 서울 서남권으로의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³⁾

[그림 2-4] 인천 연계 생활권 통근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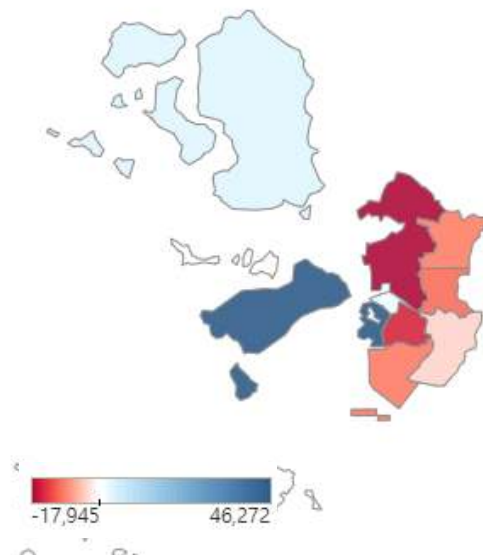


3) 인천 생활권 구분은 다음과 같음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 서남권(연수구), 남동권(남동구), 동북권(부평구·계양구), 서북권(서구), 강화권(강화군), 용진권(용진군)

(5)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 간 연계 현황 : 생활인구

- 2022년 12월 기준, KT 생활인구를 분석하여 인천시와 인접 지자체 간 유입-유출인구 등을 바탕으로 지역 간 연계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함
- 인천시 외부 유입인구, 유출인구를 검토하여 실제로 인접 지자체 간 연계성을 파악하고, 연결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계성이 큰 도시에 대한 현황을 검토함
 - 인천시는 서구(-17,945), 미추홀구(-15,086)에서 유출인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중구(+46,272)로 유입인구가 크게 나타남
 - 부평구(-10,432), 계양구(-9,356), 연수구(-9,613), 남동구(-3,467), 강화군(+3,562), 옹진군(+428) 등 인천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타 시도로의 유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 자치구별 생활인구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은 자치구에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서울 강서구와 가장 유입,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 옹진군의 경우는 안산시와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 간의 생활권 공유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 외에 인천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았지만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경기 화성시 등이 나타나므로 향후 인천 연계 생활권의 확대가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임을 시사함

[그림 2-5] 인천시 순이동인구 현황 (22.12 기준)



[표 2-5]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간 연계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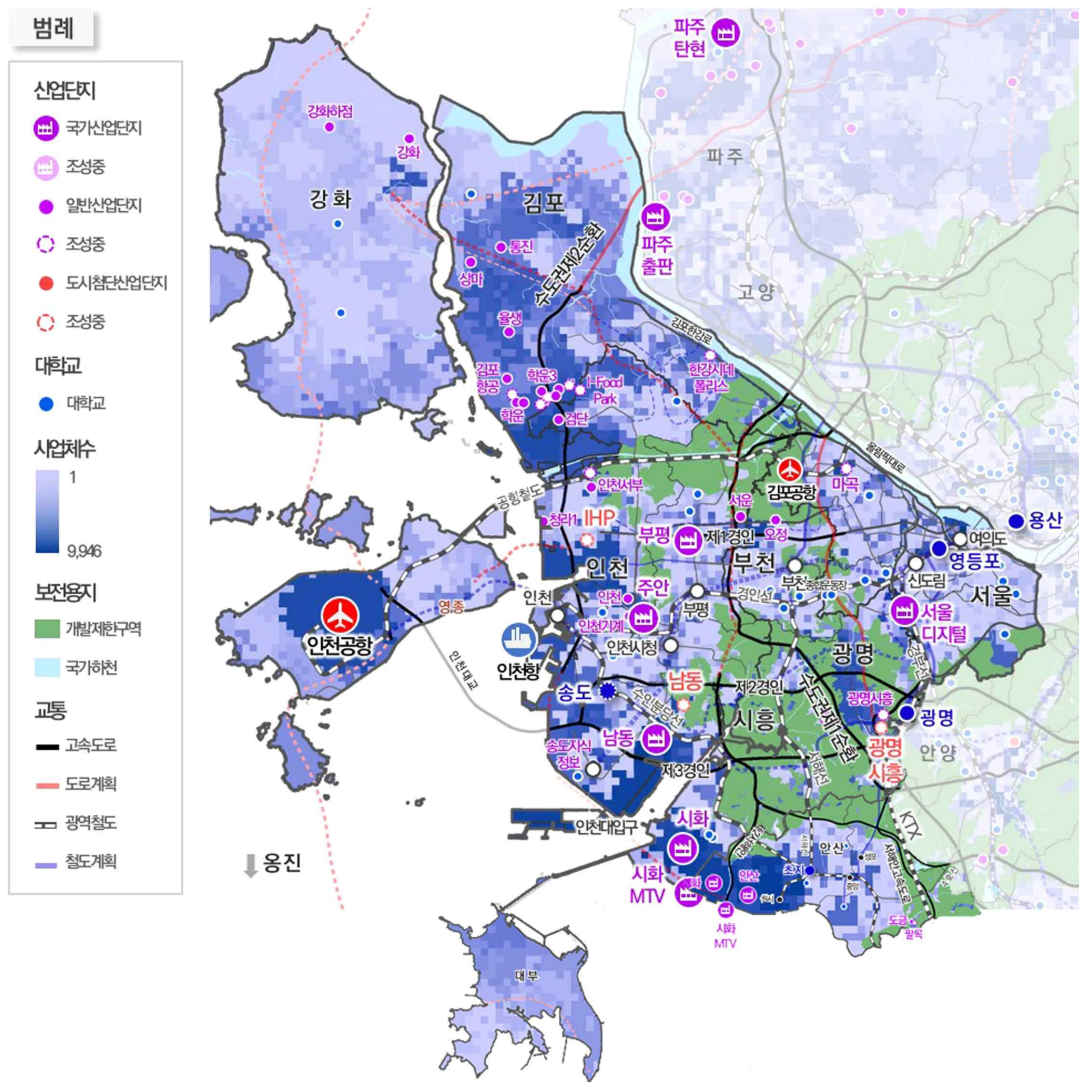
지역		해당 시도 제외(인천시 내부 유출,유입 제외)		비고 (전국기준 유입/유출)
		유입인구	유출인구	
중구	1순위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	미추홀구
	2순위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	서구
	3순위	서울 강남구	경기 시흥시	연수구/동구
동구	1순위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	미추홀구
	2순위	경기 시흥시	경기 김포시	중구
	3순위	경기 김포시	경기 시흥시	서구
미추홀구	1순위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	남동구
	2순위	경기 시흥시	경기 시흥시	연수구/중구
	3순위	경기 화성시	서울 영등포구	서구/연수구
서구	1순위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2순위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	부평구
	3순위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	미추홀구/중구
부평구	1순위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	부천시
	2순위	경기 시흥시	서울 영등포구	남동구
	3순위	경기 김포시	서울 구로구	계양구/서구
계양구	1순위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	부평구
	2순위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서구
	3순위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	부천시
연수구	1순위	경기 시흥시	경기 시흥시	남동구
	2순위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	미추홀구
	3순위	경기 화성시	서울 강남구	서구/중구
남동구	1순위	경기 시흥시	경기 시흥시	미추홀구
	2순위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	연수구
	3순위	경기 화성시	서울 영등포구	부평구
강화군	1순위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2순위	경기 부천시	서울 강서구	서구
	3순위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	부천시/중구
옹진군	1순위	경기 시흥시	경기 시흥시	시흥시/미추홀구
	2순위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남동구/중구
	3순위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미추홀구/남동구

자료: NABIS, <https://www.nabis.go.kr/atlantidetailView.do?menucd=151&menuFlag=Y>, 생활인구 빅데이터 자료 참고

(6) 국가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 집중

- 국가산업단지는 서울 디지털·부평·주안·남동·시화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다수 지정되어 있음
- 또한 공항과 항만으로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인천항(인천신항)·경인항·김포항이 위치하고 있어 산업육성에 최적의 입지를 제공하고 있음
 - 산업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 생활권에서 사업체수(66.9만)와 종사자수(262만)가 가장 많은 생활권에 해당함
- 그러나 국가산업단지는 개발된 지 40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되며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일반산업단지는 김포시에 주로 개발 중임

[그림 2-6] 인천 연계 생활권 사업체 및 산업단지 분포



3) 인천 연계 도시간 현황분석 종합

(1) 국가기간시설 연계 강화로 공항경제권 효율 극대화

-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인천항·인천신항 등 국가기간시설들의 입지로 인해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동서 경인축 개발이 집중되어왔으며, 이와 같은 기초를 더욱 강화하여 공항경제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필요

(2) 인천과 부천, 김포, 시흥을 연결하는 유기적 네트워크 구상

- 동서 발전축에 비해 지역 거점간 연계방안이 미흡하므로 남북·순환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경인축에 집중된 기능을 남북방향으로 분산이 필요
- 부천·시흥·검단·계양에 지역거점 기능을 부여하여 배후지 및 산업연계의 상호보완적인 공간구조를 지향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영종도와 강화도, 개성과 해주를 연계하여 통일을 대비하는 축을 고려한 지역 간 연계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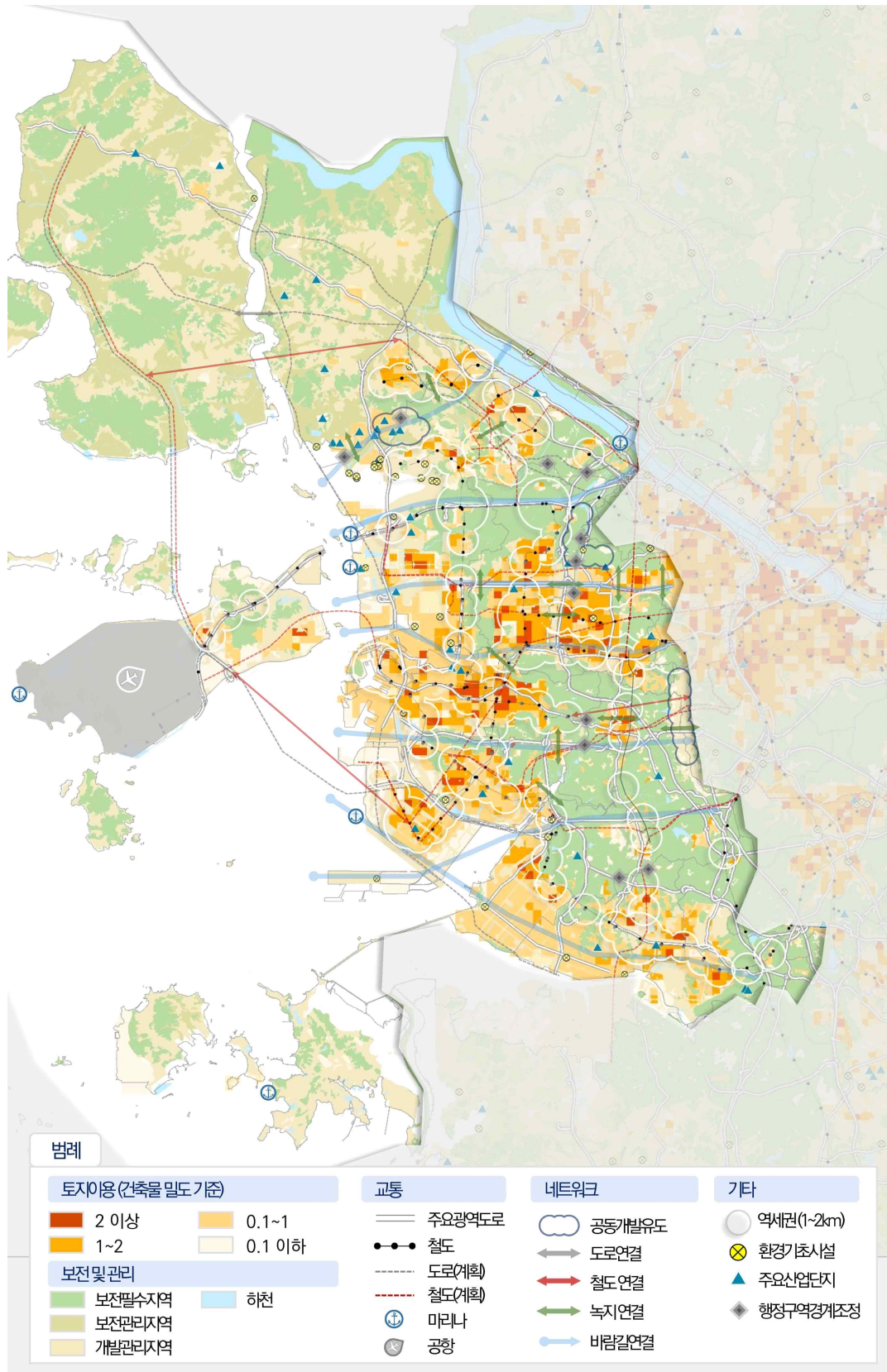
(3) 철도교통 위주의 공간구조 강화

- 생활권 주요 중심지를 GTX-B,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등으로 연계하여 역세권 위주의 육성을 지향하며, 특히 GTX역이 조성될 예정인 부천, 부평, 인천시청, 송도 일대가 주요 발전지역으로의 성장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필요
- 또한 공항철도 및 제2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생활권 및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 간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통해 광역 교통망의 발전 구축을 위한 지역 간 공동 계획 등 필요

(4) 끊어진 한남정맥의 복원으로 생활권 내 녹지축 보전

- 인천연계 생활권은 대부분의 지형이 평야와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어 시가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한남정맥을 구성하는 소량의 산지·녹지까지 훼손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훼손되고 단절된 한남정맥을 연결·복원하여 녹지축을 재생이 필요

[그림 2-9] 인천 연계 도시간 공간적 현황 분석도



3. 주요 관련계획 검토

1)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중)

● **통근 현황과 심리적 밀접도를 고려하여 9개 생활권으로 구분**

- 광역도시계획이 지역 간 차별성 및 수도권 주민의 실제 활동 범위를 반영한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2단계를 따라 수도권을 9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 계획을 수립함
- 우선, 서울-인천-경기도 경계부 주변의 수도권 주민의 주요 경제활동 지역을 수도권 중심권역으로, 수도권 중심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을 도농통합지역(도시와 농촌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으로 구별함
- 다음으로, 구별한 수도권 중심권역과 도농통합지역을 수도권 주민의 통근 현황과 심리적 밀접도를 고려하여 각각 5개 생활권과 4개 생활권으로 구분함

[그림 2-10] 생활권 구분도



2)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생활권 계획

● 주요 특징

- (기초현황)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인천과 서울 서남권, 김포, 부천, 광명, 시흥을 포함하여 생활권5로 분류하고 있음
- (공간구조 현황) 생활권5에 속한 시·군간 연계는 특히 동서 발전축(경인축) 중심으로 발달해 있음. 생활권 내 남북축에 해당하는 김포와 서울·인천 간 연계가 상대적으로 약함
- (주요 특징) 서울·인천으로의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태자원 훼손 정도가 타 생활권에 비하여 심각한 편임. 풍부한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장래인구 : 2040년 기준 794.3만~873.8만 명

- 생활권5의 장래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하다 빠르면 2020년대 말, 늦으면 2030년대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 794.3만~873.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10년 뒤 다가올 인구감소에 대비한 공간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됨

[표 2-6] 생활권5 장래인구(2020~2040)

(단위: 만 명)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생활권5	100%	805.8	809.8	811.1	806.6	794.3*
	105%	846.1	850.3	851.6	846.9	834.1*
	110%	886.4	890.8	892.2	887.3	873.8*

*통계청의 2017년~2037년 구별 장래인구추계를 연장하여 2040년 서울 서남권의 장래인구를 추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2040년 생활권5 장래인구는 서울 서남권·인천·부천·광명·시흥·김포의 통계청 장래인구 합산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장래인구에 따라,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서울 서남권은 266.3만~292.9만, 인천시는 294.7만~324.2만, 광명시는 22.8만~25.1만, 김포시는 62.3만~68.5만, 부천시는 72.0만~79.2만, 시흥시는 66.0만~72.6만 명의 예상 인구를 참조하고 정부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표 2-7] 2040년 생활권5 시·군별 장래인구(2020~2040)

(단위: 만 명)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서울 서남권	중위 인구 대비	100%	299.5	287.1	278.9	272.7	266.3
		105%	314.5	301.5	292.8	286.3	279.6
		110%	329.5	315.8	306.8	300.0	292.9
인천시	중위 인구 대비	100%	295.1	295.9	296.5	296.7	294.7
		105%	309.9	310.7	311.3	311.5	309.4
		110%	324.6	325.5	326.2	326.4	324.2
광명시	중위 인구 대비	100%	30.8	26.7	25.0	23.8	22.8
		105%	32.3	28.0	26.3	25.0	23.9
		110%	33.9	29.4	27.5	26.2	25.1
김포시	중위 인구 대비	100%	45.7	51.8	57.1	60.6	62.3
		105%	48.0	54.4	60.0	63.6	65.4
		110%	50.3	57.0	62.8	66.7	68.5
부천시	중위 인구 대비	100%	83.8	78.3	75.8	73.9	72.0
		105%	88.0	82.2	79.6	77.6	75.6
		110%	92.2	86.1	83.4	81.3	79.2
시흥시	중위 인구 대비	100%	52.1	57.3	61.8	64.7	66.0
		105%	54.7	60.2	64.9	67.9	69.3
		110%	57.3	63.0	68.0	71.2	72.6

*2040년 서울 서남권 장래인구는 통계청의 2017년~2037년 구별 장래인구추계를 연장하여 추산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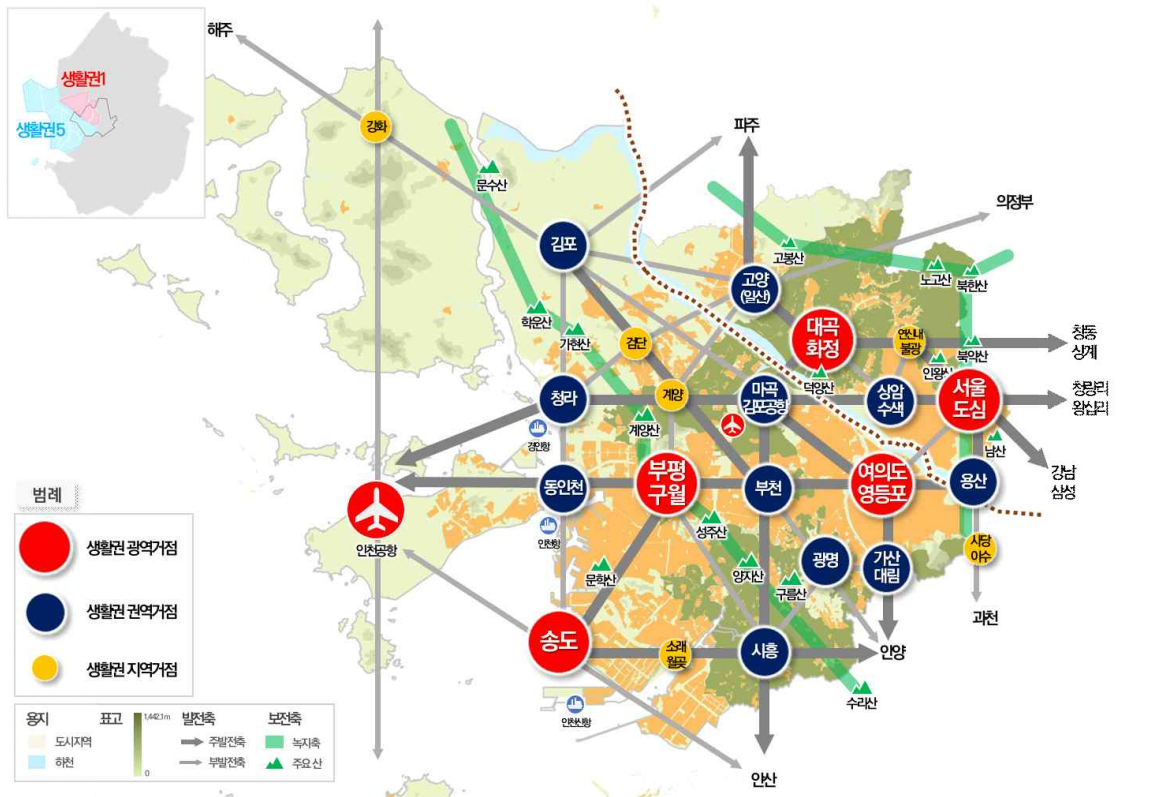
●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

- 여의도·영등포, 부평·구월, 송도를 광역거점으로, 가산·대림, 마곡·김포공항, 부천, 시흥, 광명, 김포, 청라, 동인천을 권역거점으로, 사당·이수, 검단, 계양, 강화, 소래·월곶을 지역거점으로 설정함
- GTX-B(송도~마석),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김포~부천), 공항철도(서울역~김포공항~인천공항), 제2공항철도(송의~인천공항화물청사), 수인분당선(송도~월곶), 월곶판교선(월곶~시흥~광명~안양~판교), 서해선(대곡~소사), 서울 지하철1호선(인천~영등포~용산/가산~광명/안양), 지하철 9호선(김포공항~왕숙), 경인고속도로를 주발전축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안양~시흥~계양~일산),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파주~김포~청라~송도~안산), 계양강화고속도로, 서해남북도

로(영종~강화~해주·개성), 김포골드(양촌~김포공항), 인천2호선을 부발전축으로 설정함

- 주요 녹지축인 한남정맥(문수산~계양산~수리산)과 주요 수계축인 한강본류·경인 아라뱃길·안양천을 보전축으로 설정함
- 개발로 인해 훼손·단절된 문수산~계양산~수리산 광역녹지축을 연결 및 복원함
- 인천공항, 공항, 경인항, 인천항 등의 국가기간시설과 생활권5의 주요 중심지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항경제권의 효율을 극대화함. 특히, 인천공항~청라~마곡·김포공항~상암·수색~한양도성 발전축을 글로벌 비즈니스 벨트의 중추로 육성함
- 서해안을 따라 송도~시흥~안산에서 김포~강화~해주로 이어지는 연계를 구축하여 수도권과 중국 간 연결을 강화함

[그림 2-11] 생활권1·생활권5 계획구상도



4. 서부수도권 도시 관련 공통이슈 도출

- 서울·인천으로의 높은 접근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태자원 훼손 정도가 타 생활권에 비하여 심각한 편임. 풍부한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소속 시·군간 연계가 특히 동서 발전축(경인축) 중심으로 발달해 있음. 김포와 서울·인천 간 연계가 상대적으로 간과됨
-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신·구시가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임
 - 새로 조성된 도시에 비해 기존의 도심지역은 기반시설의 노후도가 심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인구공동화 현상이 발생
 - 신도시 지역은 학급의 과밀화, 불편한 대중교통 등 이주하는 인구에 비하여 광역철도 등의 기반시설이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기존 산업단지는 단지 노후화가 심하고 공업기능이 쇠퇴하여 새로운 산업기능 부여가 필요
 - 계양테크노밸리(인천)와 대장신도시(부천)가 3기신도시로 지정되어 신규주거단지 및 첨단산업이 입지할 예정이며, 개발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 서울로 향하는 통근인구가 많음
 - 김포, 부천(각각 20% 이상)에서 서울로 향하는 통근인구와 김포, 부천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통근인구(10~15%)의 비중이 높음
 - 인천과 안산은 내부통근 비율이 60% 이상이며 김포, 부천, 시흥은 40% 이상으로 나타남
- 주요 교통망은 대체로 서울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발생하여 동서축으로 발달되어 있음
 - 주요 철도와 고속도로는 남북축 연결보다 동서축 연결이 많으며 서울과의 연결성이 높음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도시철도 등이 남북축을 연계하고 있으나 생활권 내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음

1) 인천 연계 생활권 현안 발굴의 필요성

●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도시문제의 증가

- 교통망의 발달로 시가지가 확장되고 통근권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주민의 경제활동 공간 범위와 생활권의 광역화가 심화되고 있음
- 교통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행정구역 경계부 기피시설 입지문제 등 개별 지자체 수준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광역적 생활권의 광역적 도시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서부수도권 도시들은 대체로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부터 외곽에 위치하여 신규 주거지의 발생이 많은 지역이므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광역 생활권 내 주거 물량의 과다배치로 인한 미분양, 교통시설 부족 문제 등과 같은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도시 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서부수도권의 미래방향 정립 필요

- 수도권 내의 산업·주거·사회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수도권은 향후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해야함

2) 생활권 내 도시기본계획 간 연계 및 조정필요 사항⁴⁾

- 서부수도권에 해당하는 인천, 부천, 김포, 시흥, 안산, 서울강서의 각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연계성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함
- 생활권 내 통일성 있는 계획 방향을 지향
 - 생활권 내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 간 정합성 확보가 미비하거나 공동으로 수립할 경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항들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생활권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는 계획 방향을 지향
- 교통시설

4)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간 도로·철도 연결이 미흡하거나, 상위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을 위주로 조정 필요지역 도출

[표 2-8] 생활권 도시기본계획 조정 필요사항 (교통시설)

순번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지자체 (기 계획 여부)	비고
1	도로	동서평화고속도로 계획 반영	인천: 미반영 김포: 미반영	
2		경기만고속도로 반영	인천: 미반영	
3		오류-김포간 도로 위계 조정	인천: 반영 김포: 반영	
4		시흥-화성 도로 계획 반영	시흥: 미반영 안산: 반영 화성: 미반영	
5		시흥-안양 도로 계획 반영	시흥: 미반영 안양: 반영	
6		시흥-광명 도로 계획 반영	시흥: 미반영 광명: 반영	
7		김포-파주 도로 연결	인천: 반영 김포: 반영	
8		김포-고양 도로 연결	인천: 반영 김포: 반영	
9	철도	강화-김포 철도 계획 반영	인천: 반영 김포: 반영	
10		인천-김포 철도 계획 반영	인천: 반영 김포: 미반영	
11		제2경인선 철도 계획 반영	인천: 미반영 시흥: 미반영	
12		서울 7호선 연장 계획 반영	인천: 반영 부천: 미반영	제5차 국토계획 (시도별 계획)
13		서울 2호선 연장 계획 반영	인천: 미반영 부천: 미반영	
14		서울 5호선 연장 계획 반영	인천: 미반영 김포: 미반영	
15		인천대순환선 철도 계획 반영	인천: 반영 부천: 미반영	

○ 공원녹지

- 광역공원 조성을 통한 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연접 도시기본계획 간 광역녹지축을 연결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을 위한 조정 필요사항 검토

[표 2-9] 생활권 도시기본계획 조정 필요사항 (공원녹지)

순번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지자체 (기 계획 여부)	비고
1	공원	수도권매립지 광역공원 조성	인천: 반영 김포: 미반영	
2		가현산 주변 광역공원 조성	인천: 미반영 김포: 미반영	
3		인천대공원-소래산 광역공원 조성	인천: 반영 부천: 반영 시흥 - 미반영	
4		소래-시흥갯골 광역공원 조성	인천: 반영 시흥: 반영	
5		굴포천 친수공간 조성	인천: 반영 부천: 미반영	
6	녹지축	경인고속도로 상부공원 인천-부천 광역녹지축 연결	인천: 미반영 부천: 미반영	
7		계양산 인근 인천-부천 광역녹지축 연결	인천: 미반영 부천: 반영	
8		소래산 인근 인천-부천-시흥 광역녹지축 연결	인천: 미반영 부천: 반영 시흥: 미반영	
9		군자봉 인근 시흥-안산 광역녹지축 연결	시흥: 미반영 안산: 반영	
10		샛말산-수명산 인근 부천-서울 광역녹지축 연결	부천: 반영 서울: 미반영	

○ 기타

- 행정경계에 인접한 난개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함으로써,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도로·하천 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용도지역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 검토

[표 2-10] 생활권 도시기본계획 조정 필요사항 (성장관리권역 등)

순번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지자체 (기 계획 여부)	비고
1	난개발지역 성장관리	2기 신도시 주변 성장관리권역	인천: 미반영 김포: 미반영	
2		3기 신도시 주변 성장관리권역	인천: 미반영 부천: 미반영	
3	행정구역 조정	굴포천 주변 행정경계 조정	인천: 미반영 부천: 미반영	

3) 연계 생활권별 주요 시정방향 검토

- 인천, 부천, 김포, 시흥, 안산, 서울강서 등 서부수도권 연계 생활권의 주요 시정방향을 검토하여 공통적으로 발전 및 해결해야하는 핵심정책을 도출함
- 도출한 연계 생활권 내 주요 정책에 대한 각 지자체간 공동 대응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서부수도권 공동 정책 현안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통한 생활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인천광역시 주요 시정방향 검토

● 인천광역시 SWOT분석

- 인천시의 주요 강점(Strength)은 인천시는 국제공항, 인천항,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및 신도시 입지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해5도, 강화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인천시의 주요 약점(Weakness)은 신도시 위주의 개발로 인한 원도심과 지역간 인구·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전국 평균대비 낮은 의료기관 수, 강화 및 옹진 등 섬지역의 인구 소멸위험과 섬지역 접근성 불편으로 인한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임
- 인천시의 기회요인(Opportunity)은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 등의 고도화 및 재생을 통한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임
- 인천시의 위협(Threat)요인은 인천 제조업의 노후화와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음
 - 노후 산업단지 밀집으로 인한 화석연료 중심의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 심화 등이 있음
- 인천광역시 민선8기 시정 비전 및 목표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설정하여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천의 발전이 대한민국을 선도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인천광역시 민선8기는 ‘3대 가치 10대 정책 120개 공약, 400개 실천과제’로 구성됨

- 3대 시정 가치로는 ‘균형·창조·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계층,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변화와 창조를 통한 세계 초일류도시의 실현, 진정성과 배려를 통한 소통을 말함
- 4대 시정방침으로는 균형도시, 세계도시, 소통도시, 혁신도시이며, 이와 연계한 10대 정책을 설정함

[표 2-11] 인천광역시 민선8기 시정 비전 및 목표

비전	 <p>공향과 향만, 경제자유구역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천의 발전이 대한민국을 선도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간다는 의미</p>
시정목표	<p>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p> <p>인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살려 세계질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초일류도시 건설</p>
3대 시정가치	<p>균형 · 창조 · 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지역, 계층, 세대간 불균형 해소 ○변화와 창조를 통해 세계 초일류도시 실현 ○진정성과 배려를 통한 시민 중심의 새로운 소통 시대
4대 시정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가 잘사는 균형도시 ○꿈이 실현되는 세계도시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미래가치 창조의 혁신도시
10대 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미래창조) 2. 모든 길이 인천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교통) 3. 원도심 혁신을 통해 균형있게 발전하는 도시(균형발전) 4. 100조 시대,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경제) 5. 안전한 먹거리, 농어민과 상생하는 도시(농어촌) 6.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즐거운 도시(문화예술) 7. 맑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환경 도시(환경녹지상수도) 8. 따뜻한 동행, 맞춤형 보살핌으로 행복한 도시(복지) 9. 시민 모두가 건강한 교육·안전 도시(교육·안전) 10.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소통·공감 도시(소통·공감)

○ 앞서 설정한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요 시정 현안을 고려한 5대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10대 정책을 계획하고 있음

- 5대 핵심공약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현황 및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①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 현황

- 인천내항은 신항건설에 따른 물동량 감소, 부두 유희화 등 항만기능 약화
-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로 인한 생활권·경제권 남북·동서로 단절되어 도시 통합과 균형발전 저해

○ 추진방법

- 인천내항 재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원도심 균형발전
- 내항일대를 역사·문화·해양관광 중심의 하버시티로 건설
-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인천대로 등 지하화로 도시단절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② 뉴홍콩시티, 60만 일자리, 10만 창업

○ 현황

- 홍콩 중국예속화 이후 다국적기업 및 금융회사 등 탈홍콩 현실화
- 인천경제자유구역, 공항·항만과 바다·섬·육지의 유기적 연계성 부족
- 청년의 정규직, 비정규직 불균형, 취업난 등 일자리 부족
- 추진방법
- 뉴홍콩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인천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건설
- 뉴홍콩시티 건설을 통한 외자유치, 국내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폴리스, 청년 해외진출기지 구축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확충

③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 현황

- 2017년 부산 경제를 뛰어넘는 제2의 경제도시 달성하였으나, 현재는 서울, 부산에 이어 3위로 하락

- 코로나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여건 악화

○ 추진방법

- 글로벌 기업, 국내 첨단산업 위주 대기업 유치
-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 산업, 신성장 산업 육성
-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등 현대화 사업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지원 프로그램 도입

④ **맑은 물 생명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 현황

- 하천의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친수공간 활용에 한계
- 문화와 예술분야의 인프라는 서울, 경기도에 비해 취약

○ 추진방법

- 5대 하천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수변공간을 친수, 자전거길 등으로 조성
- 해안선을 따라 둘레길, 자전거길, 낚시·레저 등으로 조성
- 넓고 탄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분야 예산 3%로 증액
- 생활체육시설 및 스포츠комплек스 조성

⑤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

○ 현황

- 사회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
- 코로나 사태, 일시적 사정 등 복지 사각지대 상존
- 상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추진방법

-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 미리찾고 도움을 주는 인천형복지 「시민안심제도」 도입
- 임신준비부터 도와주는 “인천맘 센터” 신설

- 이동약자 이동수단 확대, 콜택시 중형특장차로 확충, 저상버스 도입 등
- 어르신 교통우대카드 개선으로 시내버스까지 무상 이용 등

[표 2-12] 인천광역시 민선8기 5대 핵심공약

1.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① 인천의 심장, 제물포(인천내항) 르네상스	
②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③ 주민친화형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택금융으로 재정착율 제고	
2. 뉴홍콩시티, 60만 일자리, 10만 창업	
① 뉴홍콩시티 건설	
② 일자리 60만개, 청년CEO 10만 창업	
3.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① 글로벌 기업, 국내 첨단산업 위주 대기업 유치	
② 미래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	
③ “인천형” 민생경제 회복지원 프로그램 지원	
④ 이음카드 운영개선, 자영업·소상공인 등 획기적 지원	
⑤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공제조합 설립	
⑥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인천은행 설립	
4. 맑은 물 생명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① 바다의 도시, 바다를 시민에게	
② 5대 하천, 생명의 강으로 복원	
③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④ 생활속 쉽게 이용이 가능한 스포츠 시설	
5.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	
①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②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③ 배려하고 함께하는 상생 사회	
④ 아름답고 우아한 실버세대	

- 인천시는 120개의 공약사업과 222개의 시민 제안사업을 현재 추진 및 추진 준비 중이며, 120개의 공약사업 중 주변 도시와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함

[표 2-13] 인천시 공약사업(120개) 중 주변 도시와의 연계 필요 사업 분류

구분	공약사업명	비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미래창조)	그랜드 비전, 세계 명품도시 뉴홍콩시티 건설	전체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부천, 시흥, 서울
	항공정비(MRO) 및 미래모빌리티(UAM) 산업 육성	김포, 서울
	신성장산업 육성	산업단지 지역
모든 길이 인천으로 연결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 (교통)	수도권 GTX 철도망 구축 - GTX-D 노선 인천과 수도권 남부 동~서 연결 노선 월관선을 인천역까지 연장 및 인강선(월관선) 급행 노선역 정차	부천, 김포, 서울 시흥, 안산
	서울 5호선 검단, 강화 연장	김포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및 급행화	서울
	서울 2호선 계양, 청라 연장	부천, 서울
	제2경인선 조기추진	시흥
	인천 2호선 고양시 연장	김포
	서창-장수IC-계양-김포간 고속도로	김포, 부천
	강화~계양 고속도로 조기착공	김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연결 조기 착공	김포, 시흥, 안산
	제2영흥대교 건설 및 서도연도교 건설	안산
원도심 혁신을 통해 균형있게 발전하는 도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및 해사법원 유치	전체
	경인전철 지하화	부천, 서울
	경인고속도로 및 인천대로 지하화	부천, 서울
100조 시대,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 (경제)	경제규모(GRDP) 100조 시대 개척	전체
	첨단산업 분야 국내외 글로벌 기업유치	산업단지 지역
	노후산단 정비 및 문화 여가 복합공간 재생	산업단지 지역
	지역화폐 운영 개선 및 혜택 범위 확대, 플랫폼 다양화	전체
	일자리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전체
	금융생태계 조성 (특례보증 등)	전체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즐거운 도시 (문화예술)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건립	전체
	K-pop 아레나 건립	전체
	접경지역 복합체험문화공간 조성	김포
	섬마을 박물관 건립	안산
	보물섬서해 바다와 한강을 연결하는 해상관광 실크로드 개척	서울, 김포, 시흥, 안산
	접경지역 내국인 면세지역 지정을 통한 관광활성화	김포
맑은 생명이 살아숨쉬는 녹색환경 도시 (환경녹지, 상수도)	아라뱃길 주변 문화·관광·레포츠 복합공간 조성	서울, 김포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전체
	승기천, 굴포천 등 주요 하천 복원 추진	부천, 시흥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서울, 부천
	해안선 친수공간 워터프런트 사업 (둘레길, 자전거길, 낚시·레저 등)	김포, 시흥, 안산
	서해 해양쓰레기 처리	김포, 안산
따뜻한 동행, 맞춤형 보살핌으로 행복한 도시 (복지)	소래습지공원 국가정원 조성 추진	시흥
	치매안심병원, 공립 치매전담 요양원 등 확대 설치, 실버타운 조성,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전체
시민 모두가 건강한 교육·안전도시	공공의료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지정)	전체

출처: 인천광역시 공약실천 세부계획 자료 참고

(2) 인천 연계 도시의 주요 시정방향 및 공약사업 등 검토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강서구의 구정비전은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이며, 주요 핵심가치로 변화, 동행, 행복을 설정하고 있음
- 서울시 강서구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총 5대 분야 52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음
- 5개 분야로는 1)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 2) 아이키우기 좋은 강서, 3)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4)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 5)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환경도시로 설정됨
- 각 분야별 세부 사업 항목을 검토한 결과, 인천과 연계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약 11개 사업에 대한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사업명은 다음과 같음

[표 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요 추진사업 중 인천연계생활권 공통항목

중점분야 및 과제	세부사업명	필요성	비고
1.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	김포공항 드론택시 노선 및 이착륙장 유치	미래교통·산업에 대한 광역적 대응방안 필요	
	드론활성화를 위한 대중친화형 드론체험장 조성	미래교통·산업에 대한 광역적 대응방안 필요	
	스마트 모빌리티 확대	지역 간 친환경 교통연계 필요	
	고도제한 완화 마무리	고도제한 관련 지자체 공동 과제	
	마곡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 지원	연계지역 간 산업활성화	
	서부광역철도(2호선 연장) 조기 착공	광역 교통 연계	
2. 아이키우기 좋은 강서	아동·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확충	문화·체육시설 공동플랫폼 조성필요	
3.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화·체육시설 공동플랫폼 조성필요	
4.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	강서문화센터 건립 및 서남권 문화벨트 조성	문화·체육시설 공동플랫폼 조성필요	
5.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환경도시	김포공항 일대 남부순환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경인고속도로와 연결	
	방화동 건폐장 이전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행정경계 인접 지역에 위치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부천시의 시정비전은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이며, 핵심가치는 소통, 동행, 도약으로 설정하고 있음
- 경기도 부천시의 민선8기 시장 공약 등을 통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다양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5대 중점 추진과제는 1) 365일 소통참여 열린도시, 2)활기찬 지역경제 활력도시, 3)촉촉한 생애맞춤 돌봄도시, 4)넘치는 문화여가 향유도시, 5)원활한 사통팔달 교통도시로 설정됨
- 각 추진과제별 세부사업 항목을 검토한 결과, 인천 및 주변지역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을 정리하면 10개 사업에 대한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15] 경기도 부천시 주요 추진사업 중 인천연계생활권 공통항목

중점분야 및 과제	세부사업명	사업항목	비고
활기찬 지역경제 활력도시	서부권 첨단산업 신중심지 도약	-대장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56만㎡)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및 특화산업 고도화 (친환경 첨단우수기업 유치, 협업 강화, 그린스마트, 헬스케어, 정밀의료, 뷰티산업 등 융합모델 발굴, 특화산업과 R&D협력시스템 구축 등)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	-첨단지식산업, R&D종합센터, 복합문화스포츠시설, 친환경주거단지 조성	
	대장신도시 건설	-서부수도권 첨단산업벨트 (대장~마곡~계양)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원도심의 기능회복 및 도시균형발전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공동주택 재정비 사업	
	창조적 혁신공간 조성으로 도시활력 회복	-노후 공업지역 재생 및 현대화	
넘치는 문화여가 향유도시	특화된 문화시설을 활용한 예술도시 명소화	-부천아트벙커 B39 복합문화예술관광지 운영 -문화재생시설 활용한 시민친화적 핫플레이스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만화(웹툰)클러스터 구축 및 만화도시 브랜드 확산, 스토리산업 육성	
	지역특화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축제·관광도시 도약	-축제 연계 부천관광 활성화 -상권과 연계한 문화둘레길 활성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 -누구나 누리는 체육시설 조성	
	도심 속 세대공간 녹색·힐링 인프라 조성	-하천길 조성(굴포천), 산책로 주변 야생화 단지 조성, 누구나숲길 야간 테마경관 조성 등	

● 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시정 미래상은 “시민이 평화로운 삶, 함께 발전하는 기회도시”이며, 시정슬로건은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로 설정하고 있으며, 핵심가치는 조화, 삶, 평화로 설정하고 있음
- 김포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은 시 선도사업 및 부서 중점사업을 포함하여 56건의 사업이 진행, 시 선도사업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실행중이며, 철도교통확충, 명품한강조성, 70도시 문화기반 확충으로 설정되어있음
- 부서중점사업은 7개 분야로 나누어져있으며, 1)교통 인프라, 2)의료노인장애인, 3)보육육아청소년, 4)생활문화, 5)공원관광, 6)경제 일자리, 7)행정안전으로 각 분야별 세부사업을 추진 중임
- 각 공약사업 항목을 검토한 결과, 인천 및 주변지역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을 정리하면 10개 사업에 대한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16] 경기도 김포시 주요 추진사업 중 인천연계생활권 공통항목

중점분야 및 과제		세부사업명	필요성	비고
시 선도 사업	철도교통 확충	김포한강선(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지역 연계	
		GTX-D노선 실현	인천 계양, 검단지역 연계	
		인천2호선 연장 (검단~불로~감정역(신설), 걸포북변역(환승)~시네폴리스역(신설)~일산킨텍스(GTX-A환승)~주엽~일산 조속추진)	인천2호선 연장 계획 추진과 연계	
	명품한강 조성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메카로 대전환 (테마파크 조성, 수상스포츠 확충, 서비스 문화산업 일자리 확충)	아라뱃길과 연계	
북부권 노면전차(트램) 도입(김포통진~강화)		북부권, 강화 연계		
부서 중점 사업	교통인프라 해결	계양~김포~강화 고속도로 및 하생IC 신속 건설 개통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연계	
	공원 관광	(하천,친수공간) 권역별 공원길 조성, 도심녹지축 완성, 특화경관조명 설치로 명소화	행정구역 인접 하천변 조성 연계	
		가현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행정구역 인접 녹지축 일대 사업 연계	
		김포수로 복개, 계양천 산책로 확장	행정구역 인접 하천변 조성 연계	
경제 일자리	산업단지 환경오염 정화, 재정비, 고도화	학운산단 등 인천과 연결지역 내 위치		

●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의 시정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정 슬로건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며, 시정 핵심운영 원칙은 “시민행복, 균형발전, 공감소통, 적극행정” 4가지로 설정함
- 주요 시정 과제는 5대 목표와 10대 추진전략, 140대(100대 공약과제+40대 중점과제) 시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중임
- 5대 목표는 1) 시민이 잘사는 시흥, 2) 시민이 편안한 시흥, 3) 시민이 행복한 시흥, 4) 시민이 즐거운 시흥, 5) 시민이 쾌적한 시흥으로 구분하여 목표에 해당하는 140개 공약 및 중점 과제를 실행 중임
- 각 공약 및 중점과제를 검토한 결과, 인천 및 주변지역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총 16개 사업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17] 경기도 시흥시 주요 추진사업 중 인천연계생활권 공통항목

중점분야 및 과제		세부사업명	필요성	비고
시민이 잘사는 시흥	경제 도시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추진	송도 바이오산업과 연계 필요	
		서울대병원 연계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	송도 바이오산업과 연계 필요	
시민이 편안한 시흥	교통 도시	철도중심 광역 교통망 구축	광역철도(월판선제2경인선) 인천과 연계	
		배곧대교 건설	인천 송도, 논현지역 간 연계	
시민이 즐거운 시흥	문화 도시	소래산 스토리텔링 역사공원화	행정구역 인접 녹지 관련 사업	
		물길 따라 버스킹거리 조성(수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해양친수공간(수변) 조성방향 및 산책로 등 연계필요	
	관광 도시	갯골생태공원~연꽃테마파크~호조벌~물왕호수 생태관광지 조성	소래생태습지와 연계 필요	
시민이 쾌적한 시흥	생태 도시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해양레저 프로그램 활성화 등)	송도해양레저관광 프로그램, 기능 간 연계 필요	
		도시농업공간을 활용한 시민쉼터 제공	행정경계주변 GB와 연계	
	상생 도시	물길따라 휴식이 있는 아름다운 친수공간 조성	해양친수공간(수변) 조성 연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유통망 확대	규모의 경제 고려한 지역 간 연계	
중점과제		스마트농업 지원으로 미래농업 선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	
		드론교육훈련센터 개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래교통수단 고려한 광역적 연계	
		옛 염전부지 활용 바이오메디컬시티 기반 마련	송도 바이오산업과 연계 필요	
		북부권 철도사업 추진(제2경인선 등)	광역철도 계획 공동 추진 필요	
		광역교통개선사업 조기 추진	광역교통 개선 사업 공동 추진 필요	

●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의 민선8기 시정계획의 시정비전은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며, 시정 운영 가치로 “자유, 혁신, 행복, 창의” 4가지 항목을 설정하고 있음
- 시정 목표는 총 5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 시민중심도시, 2)첨단혁신도시, 3)복지문화도시, 4)미래교육도시, 5)교통환경도시로 설정되어 이에 따라 10대 분야별 세부 공약사업 103건과 세부과제 118건을 실행 중임
- 각 공약 및 중점과제를 검토한 결과, 인천 및 주변지역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4개 분야의 총 8개 사업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18] 경기도 안산시 주요 추진사업 중 인천연계생활권 공통항목

목표 및 분야		세부사업명	필요성	비고
시민중심도시	소통 협력 시민중심 행정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규모의 경제 고려한 지역 간 연계	
		농장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추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	
첨단혁신도시	도시개발 및 미래형 첨단산단 조성	미래산업(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확대	미래교통·산업에 대한 광역적 대응방안 필요	
		안산사이언스밸리 첨단산업거점 육성	미래교통·산업에 대한 광역적 대응방안 필요	
복지문화도시	지역문화자원 활용 힐링도시 조성	지역생활문화 네트워크 기반 구축	문화·체육시설 공동플랫폼 조성필요	
		시화호 뱃길 친환경 관광사업 운영	행장구역 인접 수변 관련 사업계획의 지역 간 연계	
교통환경도시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도시 선도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접지역 간 친환경 계획 연계 필요	
		대중교통 노선 효율적 조정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연계	

4) 각 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 구상 현황 검토

(1) 발전구상 현황

- 인천연계 생활권에 소속된 시군 및 지역생활권 모두 광역교통망 확충 및 주요 교통축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나 서울 서남권과 부천은 간선 교통기능이나 녹색교통에 더 집중하며 철도 연장 및 신설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음
- 신성장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마다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거나 여건에 부합하는 특화산업 육성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
- 문화 부문에서도 비슷한 발전구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해양·녹지 등 자연환경, 관광자원과 같은 지역자산, 지역특화 문화산업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고 있음
- 인천과 시흥은 특히 서해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항만을 통한 산업 육성 및 해양 관광자원 개발을 주요 전략으로 수립하고 있음

[표 2-19] 인천연계 생활권 행정구역별 발전구상

구분	주요 미래상 및 전략
인천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친환경 미래 교통기반 구축 • (산업) 공항·항만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기반 디지털 혁신도시 조성 • (녹지) 자원순환 환경도시 조성 및 행복 체감 녹색도시 조성 • (문화) 해양도시 위상 강화 및 역사·문화벨트 조성
서울 서남권	서울의 신성장을 선도하고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서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간선교통기능 강화 및 대중교통·보행연계체계 구축 • (산업) 신성장산업 육성 및 산업재생을 통한 일자리기반 구축 • (녹지) 공원녹지 그린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 인프라 확보 • (문화) 서남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자산의 발굴·보전·활용
김포	전원생태도시 / 관광휴양도시 / 첨단산업도시 / 통일화합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는 통일거점 화합도시 기틀 마련 • (산업) 국제무역을 선도하는 첨단지식 산업도시 육성 • (녹지) 도시와 자연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전원생태도시 구현 • (문화)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을 통한 관광휴양도시 실현
부천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녹색교통 실천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구현 • (산업) 신성장산업과 공동체 경제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도시 • (문화) 문화산업 홍보체계 구축 등 문화산업 인프라 조성
안산	자유로운, 풍요도시 / 안심도시 / 화합도시 / 평등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수인선의 3개 신규 전철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연결 강화 • (산업) U-City 민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 (녹지) 생활권별 공원·녹지의 위계설정 및 광역녹지축 및 수변축과 연계한 Green Network 구축 • (문화) 주민들의 이용권을 고려한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 민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공동체형 복지 실현
시흥	환경친화 생명도시 / 첨단산업 생명도시 / 평생학습 생명도시 / 교통요충 생명도시 / 해양관광 생명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교통시설 및 가로망계획 수립 / 단계별 교통망계획 수립 • (산업) 경제 산업구조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 (녹지) 자연환경의 보전·개발로 녹지 공간축을 확보하여 친환경적 전원도시 위상 정립 • (문화) 해양위락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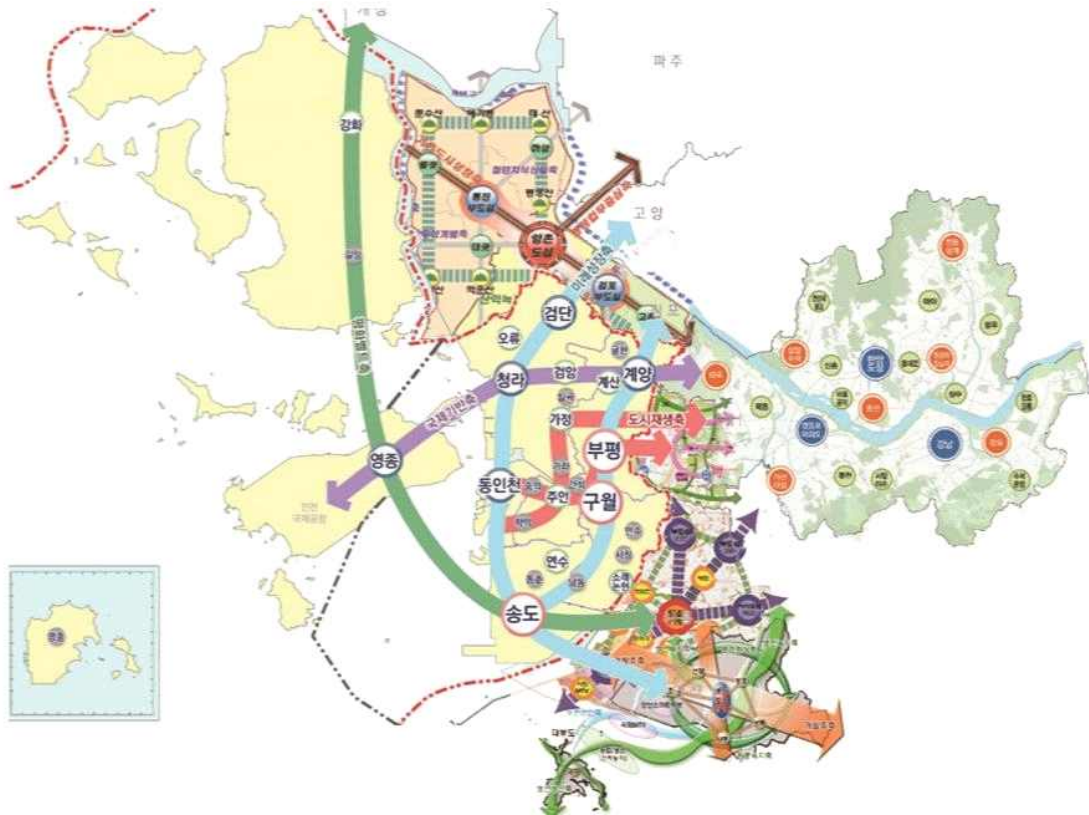
주 : 2021년 2월 기준 가장 최신의 도시·군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함

(2) 공간구조구상 현황

● 발전축

- 인천연계 생활권에 소속된 시군 및 지역생활권의 발전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천을 중심으로 개발주축이 연계되어 있어 연계성 부분에서는 양호하나 세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인천의 경우, 동서로 도시재생축과 국제기반축을, 남북으로 미래성장축과 평화벨트 축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도심과 청라 경제자유구역·검암 신도시를 서울과 연결함으로써 개발주축으로 삼고 있으며, 남북으로는 서해 성장축과 통일 후 북한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구상을 내포하고 있음
 - 그러나 부천·시흥·안산 등 인접 시군과의 연계는 각 발전축이 형성되어 있으나 김포와의 연계가 미흡함
 - 서울 서남권(강서지역)의 경우, 여의도·영등포를 중심으로 한양도성과 인천·부천을 연결하는 경인축을 주개발축으로 설정하였으며, 마곡~인천, 가산·대림~광명을 연결하는 성장축을 통해 인접 시군과의 연계를 형성하였으나, 김포시와의 연결을 명시되고 있지 않음
 - 김포의 경우, 발전축과 공간구조 구상안의 정합성이 높은 편으로, 양촌 도심을 중심으로 서울 및 인천 검단과의 연결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내포하고 있지 못함
 - 부천의 경우, 대부분의 발전축이 서울·인천의 대도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시흥의 경우, 인천·부천·광명·안양 등 주변 모든 도시로의 개발축을 설정하고 있지만 발전축의 위계 설정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방안 구상이 미흡함

[그림 2-12] 인천연계 생활권 소속 시군의 발전축 종합도



● 녹지축

- 녹지축은 발전축에 비하여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취약함
- 산악을 따라 구축된 녹지축은 한남정맥을 고려하지 않아 인접 시군과 불일치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수계축은 설정 자체가 부재한 경우도 있음
 - 서울 서남권은 인접 시군과 연결된 녹지축이 없고 수계축도 한강 수계축만 설정하였으며, 인천도 주녹지축이 시 경계를 통과하는 경우는 가현산~김포 방향이 유일함.
 - 김포 또한 내부 원형 녹지축에서 서울 강서로 연결되는 녹지축이 유일하고, 시흥도 녹지축의 외부 연결을 고려하지 않음

● 수계축

- 수계축도 인천이 부천과의 공유하는 굴포천을 명시한 반면 부천의 수계축은 보전축 계획에 포함되지 않음

5) 수도권 지자체간 갈등사례

(1) 지자체간 갈등의 발생

- 적극적인 분권정책으로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는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repositioning)할 필요가 있음
- 도시정책과 관련된 권한이 점차 분권화되고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도시행정의 범역과 시민생활의 범역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정책의 분야별로 주체와 공간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함

(2) 지자체간의 경쟁심화와 중복기능에 따른 갈등

- 현재까지 중앙주도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계획능력이 미비한 가운데 도시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각 지자체간 중복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갈등이 예상됨. 이는 민간에 대한 과도한 혜택과 더불어 난개발 및 환경파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은 아직도 관할구역 위주로 개별적 사업을 추진해온 관행에 젖어 협력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협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협력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나 태도 때문에 행정의 광역적, 탄력적, 능동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혐오시설 및 공공시설설치, 지역경제, 도시개발사업, 행·재정서비스제공, 지역행사 및 이벤트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될 수 있으나 중앙정부차원에서 현재 이를 조장, 촉진하는 기반조성과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미흡
-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관련 개발사업들은 사업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 인천광역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등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도시계획관련 사업들은 다양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과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실현
-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치 않고 주변지역과 기능적 연계성과 상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없는 천편일률적인 사업계획들은 도시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해치며 경제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함
- 이러한 부분은 지역적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접경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분쟁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와 시흥시에서 추진 중인 해양생태공원사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사한 2개의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인접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 유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 및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
 - 양 지자체간 사전 정책협의를 통해 해양생태공원의 공동추진 및 예산절감 등 수준 높은 해양생태공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접자치단체들은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
- 지방자치단체간 도시계획관련 사업은 성격상 주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지역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쟁은 물론 갈등의 지속은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계획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변개발사업의 종합적 검토와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하며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통한 개발효과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함

(3)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

- 광역시설 중에서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각 지자체간 갈등이 예상됨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재를 통해 설치하는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핵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설치에서도 각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에는 지역이기주의가 더욱더 심화되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시민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 도로, 철도, 전기, 녹지 등 광역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및 비용분담 갈등
- 지방권한의 강화는 관리 및 책임의 강화가 예상되며, 이는 광역시설의 관리 및 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로 인하여 인접지자체간 광역도로나 상하수도, 녹지에 대한 관리권에 대한 지자체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설치에 있어서도 지자체별로 시기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자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 특히, 설치에 따른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 지자체간 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배치 등 행정경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갈등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20] 수도권 지자체간 갈등사례 정리

	구분	비고
환경기초시설의 배치 관련 갈등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강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 갈등	남동구 고잔지역 공유수면 경계 관련	
	강화, 옹진 등 과거 편입지역 관련	
광역도로 건설시기 불일치 등 갈등	과천-우면산간 도로	
	용마산 터널	
	암사대교 건설	
	광명시 기아대교 및 진입도로 개설	
	강변북로	(서울~구리)
	가양대교	(서울~고양)
	의정부 경전철 환승역사	(서울~의정부)
대중교통체계 관련 갈등	버스노선조정 및 요금분담 갈등	
	수도권 지하철 및 전철 요금인상체계 갈등	
환경공해 관련 갈등	인천해상 수질개선비용 공동분담	
	공업지역일대 악취발생 문제 관련 갈등	

03 지역생활권 사업 발굴

1. 인천 연계 생활권 주요과제 도출
2. 인천 연계 생활권 공동 현안 발굴
3. 인천 연계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유형화
4. 인천 연계 생활권 주요 연계·협력사업 우선순위
5. 인천 지역 생활권 주요 연계·협력 사업별 전략 및 계획

03 지역생활권 사업 발굴

1. 인천 연계 생활권 주요과제 도출

(1) 역세권 및 광역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

-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공항·항만 등 국가기간시설과 수도권 각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GTX-B(송도~마석) 노선을 신설하고 공항철도의 고속화 사업 추진 중임
- 지역 간·지역 내 연결이 도로 중심으로 형성됨으로써 발생하는 통근 정체 해소를 위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장기~부천종합운동장)·제2경인선(청학~노은사)·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을 신설하고, 인천2호선(검단~일산, 인천대공원~안양)·서울2호선(홍대입구~청라)·서울5호선(김포공항~검단~한강신도시~강화)·서울7호선(부평구청~청라)·김포한강선(양곡~방화)을 연장하여 철도 교통망을 확충함
- 이를 통해 주요 환승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시밀도 관리 및 통행 시간 단축되고 있음
- 경기 북부·남부로 이어지는 남북축 교통망 확충을 위해, 단절되어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인천~안산 구간을 조기 완공하여 수도권 제2순환체계를 완성하고, 동서평화고속도로·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을 추진함

(2) 난개발 우려 지역에 대한 지역 간 공동 관리체계 수립

- 2기 신도시(검단신도시·한강신도시) 및 3기 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 대장신도시) 해당 지역에 인접한 도시화용지의 개발행위를 지양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광역거점 SOC 공동 설치 및 접근성 향상방안 모색 필요
- 광역지자체 경계지역과 같이 난개발 우려 지역에 광역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난개발 방지 필요

(3) 친환경 녹지 네트워크 및 광역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 가현산, 계양산, 소래산, 군자봉 인근의 단절된 한남정맥을 복원하여 광역녹지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바람길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립 필요
- 수도권 매립지, 인천대공원·소래산 일원, 소래습지생태공원·시흥갯골 일원, 상동호수공원 일원 등 지역 경계지역에 광역공원을 조성하여 생활권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 굴포천, 안양천 등 도시하천의 공동개발 및 관리와 복개하천 생태복원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인천연안 갯벌, 시화호 생태자원을 보전·활용함

(4) 생활권 지역경제 혁신 및 공항경제권 활성화

-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및 경제자유구역과 지역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공항경제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수도권 글로벌 비즈니스벨트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벨트를 연계함
- 인천 연계생활권 내 산업단지, 김포공항·마곡지구를 융합 신산업육성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동의 발전방향 구축 및 추진을 하며, 향후 구로·가산디지털단지의 IoT, 여의도·영등포를 국제금융 신산업육성지역 등과의 생활권 확대 연계 방안을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함
- 공항철도·인천공항고속도로·경인아라뱃길 등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청라국제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신도시를 중심으로 경인축 공업지대와 연계하는 광역산업벨트를 연계하도록 함
- 송도국제도시·남동산단·시화지구를 연계한 첨단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자동차·기계·부품소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산업단지를 추진
- 경인축에 분포한 노후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하나의 산업권으로 통합하여 재생을 추진하는 방향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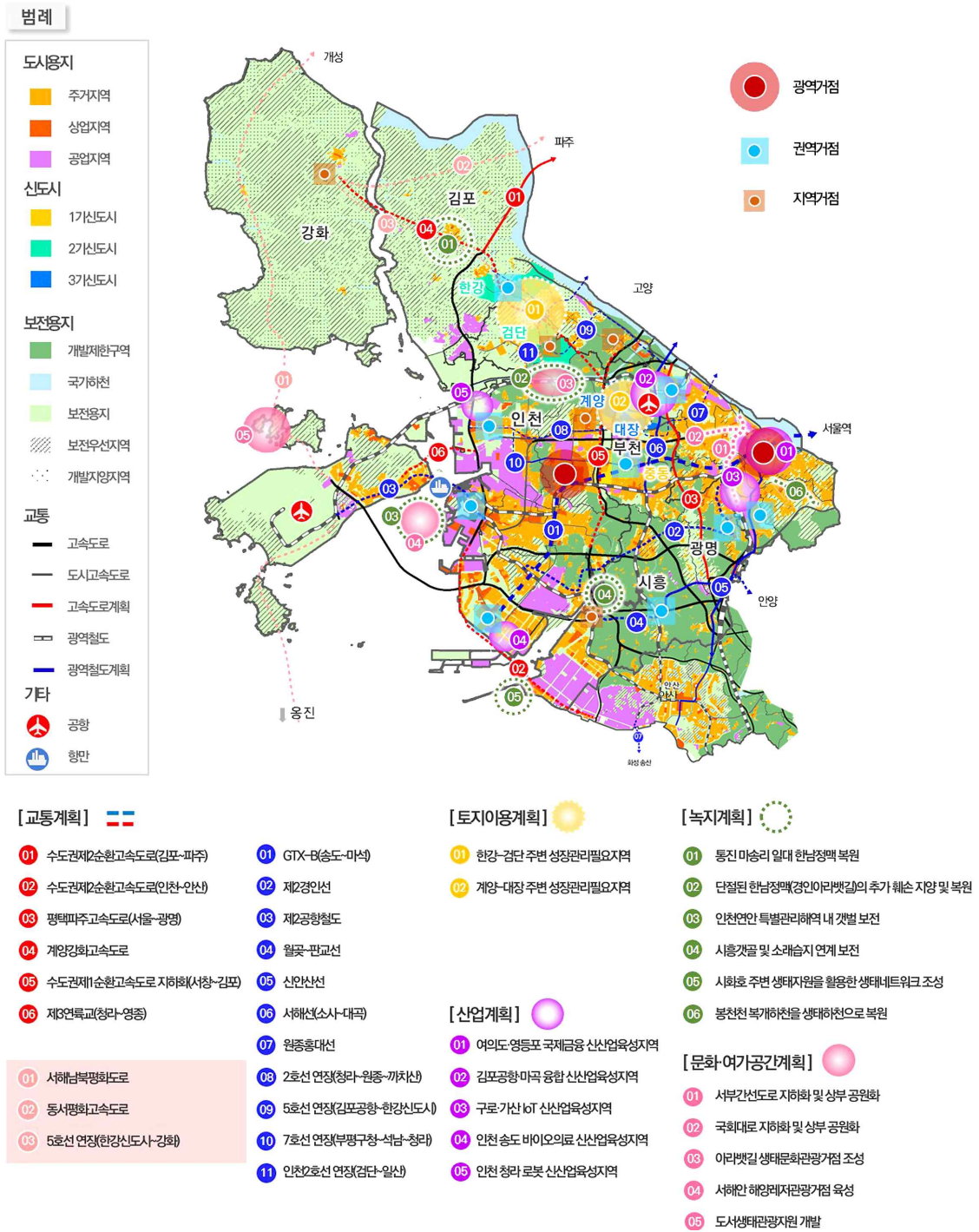
(5) 한강·아라뱃길·서해안의 친수자원을 활용한 친수레저벨트 조성

- 한강·아라뱃길·수도권 매립지·세어도를 연결하는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과 동시에 물류·관광 네트워크화를 추진함
- 서해 연안지역에는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소규모항만을 이용하여 수도권 서부해안레저네트워크 구축하고, 도서지역을 활용한 도서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함

(6) 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로 지역주민에 여가·휴식 공간 제공

-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와 국회대로 일부를 지하화하여 지역단절 및 도로주변 슬럼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함
- 지하화한 구간의 상부를 공원화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공동계획 마련 도모해야 함

[그림 3-1] 인천 연계 생활권 연계 계획구상(안)



2. 인천 연계 생활권 공동 현안 발굴

- 서부 수도권 도시 간 공동현안 발굴은 앞서 검토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 지자체별 민선8기 공약 추진계획,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생활권 공통이슈 등을 기준으로 함
 - 도시서비스의 임계규모, 산업 간 상호보완성, 역사·정서적 공유 및 지역 간 연계성 등 고려
 - 서부수도권 도시 간 공동현안 및 연계 필요 사업 발굴을 위해 상위계획인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각 시도별 ‘도시기본계획’을 참고
 - ‘민선8기 공약 추진계획(인천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강서구)’,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인천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강서구)’ 및 최근 신문기사 이슈 등을 중심으로 공동현안을 도출함

1) 인천광역시-서울시-경기도 간 협력사업

●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공간 활용연계

- 필요성 : 경인고속도로는 인천-부천-서울을 경유하는 광역철도이지만 지상공간 활용방안은 지자체별로 각각 계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공동계획이 필요함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부천시

● 한강하구 탄소흡수원 공동관리 및 관광자원화

- 필요성 : 한강하구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남북공동이용수역으로 탄소중립정책 및 습지보호구역 등 생태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높음. 향후 여건개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관할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화군, 김포시

● 소래습지 국가공원 등 국가(광역)공원 신규 지정 (소래습지+시흥갯골 국가공원(공약), 인천대공원+소래산, 가현산)

- 필요성 : 소래습지는 국가공원 지정공약이 추진 중에 있으나, 국가습지보호구역인 시흥갯골생태공원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국가공원으로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인천대공원 및 소래산, 가현산 일원은 해발 200m이상의 대규모녹지로서 한남정맥 보호를 위하여 공원으로 난개발을 관리하고 관광자원화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시흥시는 소래산 스토리텔링 역사공원화 공약 추진 중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김포시

● **굴포천 친수공간 연계사업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 필요성 : 굴포천은 부평구, 부천시, 김포시, 강서구를 경유하는 국가하천으로 둘레길 등 친수공간 조성이 각각 시행되고 있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구역경계를 현재의 하천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김포시, 부천시

● **UAM 항로 개발 및 광역연계와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 필요성 : 현재 계획중인 UAM은 아래뺏길 및 한강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구상되고 있어서 UAM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로 확장 및 수도권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탄소배출 저감 등의 UAM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자체 공동계획 필요함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부천시, 강서구, 김포시, 시흥시

● **경인권 관광문화여가루트 공동구축 및 해양 관광자원 개발**

- 필요성 : 섬과 바다의 인천생활권에는 서울과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많지만 서울중심의 플랫폼으로 활용성이 낮음. 인천생활권 관광자원을 통합연계하고 관광개발시 상호영향검토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협력사업으로는 연안생태자원 공동조사, 해양보호구역 및 람사르습지 등을 활용한 연안생태관광벨트 육성, 한국형 세트우치 프로젝트 등 섬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의 기획이 필요함
- 관할지자체 : IFEZ,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 **공유자전거 등 차세대 교통인프라 통합관리시스템(환승) 구축**

- 필요성 : 지하철, 버스, 공유자전거 등 PM(개인이동수단) 등이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완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음. 새로운 교통인프라를 포함하는 인천시 중심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강서구

●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 필요성 : 계양구, 부평구, 김포시 일원에 위치한 서부간선수로는 지자체별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불편하므로 주민을 위한 통합구상이 필요
- 관할지자체 : 김포시, 부천시, 계양구, 부평구

2) 인천광역시-기초지자체(김포시, 강서구,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간 협력사업

● **운연~신천간 광역도로 지정(구축)**

- 필요성 :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 경기 시흥시 포도원로를 연결하는 동서축 광역도로 확보로 인접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며, 수인로(국도 42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도로 혼잡 해소, 지역주민 생활 및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시흥시

● **도시연접지역 기피시설 입지 공동관리**

- 필요성 : 넘비 등으로 인하여 시 경계부에 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입지하게 되므로 경계부 1km이내에 주민 기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협의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김포시, 강서구,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 **한남정맥, 서해안 하이킹루트 조성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

- 필요성 : 정부사업으로 추진된 코리아 둘레길의 관리 및 이벤트 개최 등을 공동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구,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 계양천, 나진포천, 검단천 친수공간 산책로 연결

- 필요성 : 김포와 서구, 계양구를 연결하는 지방하천의 친수공간조성사업이 지자체 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천시 구간에서는 보행로 등의 연결이 안되어 공동사업이 필요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서구, 김포시

● 강화 김포 염하수로 공동관리 및 관광자원화

- 필요성 : 강화군과 김포시를 연결하는 염하수로는 초지진 등의 역사관광자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행정구역경계에 위치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관광자원화가 미흡한 실정임. 강화군과 김포시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강화군, 김포시

● 부천, 부평 지하상가 공동관리 및 관광자원화

- 필요성 : 1호선 부평역 및 부천역에 지하상가가 형성되어 있으나 GTX-B개통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침체가능성이 있음. 부평과 부천의 상권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상가운영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천시

● 연접지역 정비사업 공동추진 (계양구 이회동-김포시 태3리, 계양구 별말-김포시 전호2리)

- 필요성 : 시 경계지역에 노후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계양구, 김포시

● 안산시- 박쥐섬- 동글섬- 선재도- 목섬 바닷길 연결 및 관광자원화

- 필요성 : 안산시- 박쥐섬- 동글섬- 선재도- 목섬으로 연결되는 바닷길은 1995년

옹진군의 인천시 편입이후에 행정구역이 달라져서 인천의 섬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과는 바닷길로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임. 인천구간 바닷길조성 및 관광자원화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옹진군, 안산시

● 수도권규제 과밀억제권역 축소 공동추진

- 필요성 : 인천의 원도심은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으로 각종 수도권규제를 받고 있으나, 과밀억제권역 축소에 대한 공동세미나 등이 인천시를 제외하고 추진되고 있으므로 공동 참여가 필요함.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 고도제한 등 공항경제권 규제개선 공동추진 (공약: 강서구, 김포시, 부천시)

- 필요성 :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건축높이 제한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공약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추진이 필요함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계양구, 김포시, 강서구, 부천시

● D·N·A 혁신밸리 중심의 광역 산업단지 벨트 강화

- 필요성: 인천형 DNA혁신밸리는 송도~제물포~계양으로 현재 설정되어있으나 이를 송도~제물포~계양~부천~서울로 연계하여 향후 서부수도권이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간 연결 및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산업고도화 추진 발판 마련 필요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

●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 구조고도화 사업 (인천시~부천시)

- 필요성 : 2040광역도시계획에서는 인천시~부천시~강서구로 이어지는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 구조고도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천시 및 부평구에서는 타 도시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부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천시

● **체육교류 이벤트(마라톤, 자전거 등) 및 공공체육시설 공동이용 플랫폼**

- 필요성 : 아라뱃길과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지상부 선형공원을 활용하여 마라톤이나 자전거 대회 등의, 체육교류이벤트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각 지자체별 공공체육시설의 공동이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부천시, 강서구

● **7호선 급행열차 공동추진**

- 필요성 : 현재 도시철도 7호선은 급행열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음. 인천시민 및 부천시민 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및 대중교통을 이용률 증가, 연계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7호선 급행열차 추진'에 대한 부천시와의 공동구상이 필요함.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부천시

3)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 서구~김포, 부평구~부천, 계양구~강서,부천, 남동 /연수구~시흥, 옹진군~안산

● 경인권 통합문화제 등 관광이벤트 교차 시행

- 필요성 : 기초지자체별로 문화제 등 관광이벤트가 시행되고 있으나 같은 기간에 집중되는 등 체로섬게임의 경쟁체제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공동으로 관광이벤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 서울대 연계 바이오 헬스케어기업 공동유치

- 필요성 :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시흥 배곧경제자유구역 등에 바이오관련 기업유치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통합하여 기획하고 기반시설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IFEZ, GGFEZ

●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통합관리

- 필요성 : 3기신도시로서 계양테크노밸리와 대장신도시가 연접하여 조성되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서 기능적으로 연계가 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음. 도시기반시설의 공동화, 경계부의 환경개선,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의 공동사용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관할지자체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천시

● 도시농어업 공동 플랫폼 구축

- 필요성 : 도시 연접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주말농장 등 도시농어업 관련 공동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관할지자체 : 서구-김포시, 계양구-부천시, 강서구, 부평구-부천시, 시흥시, 옹진군-안산시

[표 3-1] 인천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목록

구분	No	사업명	사업내용 및 필요성	관할지자체
인천 I 서울 I 경기 협력 사업 (8)	1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공간 활용연계	광역철도인 경인철도의 지상공간 활용안은 지자체별로 계획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공동계획 필요	인천/부천
	2	한강하구 탄소흡수원 공동관리 및 관광자원화	한강하구는 남북공동이용수역으로 생태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서 사전에 공동관리 필요	인천/경기/강화/김포
	3	소래습지 국가공원 등 국가(광역)공원 신규 지정	소래습지+시흥갯골 국가공원, 인천대공원+소래산, 기현산 일원의 관광자원화에 의한 광역공원 추진 필요	인천/경기/시흥/김포
	4	굴포천 친수공간 연계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국가하천인 굴포천의 친수공간이 지자체별로 시행되어 효율성 면에서 통합관리와 함께 행정경계의 조정 필요	인천/부평/계양/김포/부천
	5	UAM 항로 개발 및 광역연계와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부서의견수렴]	아라뱃길에서 한강으로의 UAM 계획항로는 UAM 활성화 차원의 항로 확장과 함께 수도권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탄소배출 저감 등의 UAM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자체 공동계획 필요	인천/강서/부천/김포/시흥
	6	경인권 관광문화여가루트 공동구축 및 해양관광자원 개발	관광자원 활용성 면에서 서울과의 상호영향검토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높고, 협력사업으로 연안생태관광벨트 육성, 섬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의 기획 필요	IFEZ/인천/강화/옹진/김포/부천/시흥
	7	공유자전거 등 차세대 교통인프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공유자전거, 공유자동차 등에 대해 완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불편하므로 새로운 교통인프라를 포함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제안	인천/경기/김포/부천/시흥/안산/강서
	8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지자체별로 친수공간 조성에 따라 서부간선수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어 주민을 위한 통합구상 필요	김포/부천/계양/부평
인천 I 기초 지자 체간 협력 사업 (13)	9	운연~신천간 광역도로 지정(구축) 등 (시 경계지역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	인천 경계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착공시기가 다르거나 미계획됨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함 초래 주요 지역으로는 인천 남동(매소홀로)~경기 시흥시(포도원로)를 연결하는 동서축 광역도로 확보로 지역간 단절 해소, 수인로(국도42호선) 등 교통량 분산을 통한 혼잡 해소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인천/시흥 (김포시, 강서구, 부천시, 안산시)
	10	도시연접지역 기피시설 입지 공동관리	넘비 등으로 인해 시 경계부에 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입지하게 되므로 경계부 1km이내에 주민 기피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협의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관리 필요	인천/김포/강서/부천/시흥/안산
	11	한남정맥, 서해안 하이킹루트 조성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	정부사업으로 추진된 코리아둘레길의 관리 및 이벤트 개최 등을 공동으로 기획 필요	인천/강화/서구/김포/시흥/안산

[표 3-1] 인천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목록 (계속)

구분	No	사업명	사업내용 및 필요성	관할지자체
인천 I 기초 지자 체간 협력 사업 (13)	12	계양천, 나진포천, 검단천 친수공간 산책로 연결	김포와 서구, 계양구를 연결하는 지방하천의 친수공간조성사업이 지자체별 시행으로, 인천시 구간에서 보행로 등의 연결이 안되어 공동사업 필요	인천/서구/김포
	13	강화-김포 염하수로 공동관리 및 관광자원화	염하수로는 초지진 등 역사관광자원이 위치하나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행정경계에 위치함에 따라 관광자원화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동사업 추진 필요	인천/강화/김포
	14	부천, 부평 지하상가 공동관리 및 관광자원화	GTX-B 개통 등 여건변화로 부평역/부천역 지하상가의 침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권 경쟁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상가운영 기획 필요	인천/부평/부천
	15	연접지역 정비사업 공동추진	서구 이화동~김포 태3리, 서구 별말~김포 천호2리 등 시 경계지역 노후시가지 형성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동사업 추진 필요	인천/계양/김포
	16	안산시-박쥐섬-동글섬- 선재도-목섬 바닷길 연결 및 관광자원화	안산시~목섬으로 연결된 바닷길은 행정구역상 인천 섬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과는 바닷길로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로, 인천구간 바닷길조성 및 관광자원화 기획 필요	옹진/안산
	17	수도권규제 과밀억제권역 축소 공동추진	인천 원도심은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으나, 인천시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 축소 관련 공동세미나 등이 추진되므로 공동 참여 필요	인천/김포/시흥/안 산/부천
	18	고도제한 등 공항경제권 규제개선 공동추진	김포공항 주변지역에서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건축높이 제한 개선을 위해 지자체 공약이 추진됨에 따라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추진 필요	인천/계양/김포/강 서/부천
	19	DNA혁신벨리 중심의 광역 산업단지 벨트 강화	인천형 DNA혁신벨리는 송도-제물포-계양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부천-서울까지 연계하여 향후 서부수도권이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간 연결 및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산업고도화 추진 발판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연수구/ 미추홀구/부평구/ 부천시/서울시 강서구
	20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 구조고도화 사업	2040광역도시계획에 인천~부천~강서로 연계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인천시 및 부평구에서는 타 도시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부천시와 공동추진 필요	인천/부평/부천
	21	체육교류 이벤트 및 공공체육시설 공동이용 플랫폼 기획·구축	아라뱃길과 경인고속도로경인철도 지하화 사업에 의해 조성될 지상부 선형공원을 활용하여 체육교류이벤트(마라톤, 자전거대회 등)를 공동 기획하고, 각 지자체별 공공체육시설의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필요	인천/부천/강서
22	7호선 급행열차 공동추진	출퇴근 인구 등으로 시민의 불편함과 서울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호선 급행열차 추진에 대한 부천시와의 공동구상 필요	인천/부천	

[표 3-1] 인천 지역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목록 (계속)

구분	No	사업명	사업내용 및 필요성	관할지자체
기초 지자체 체간	23	경인권 통합문화제 등 관광이벤트 교차 시행	기초지자체별로 문화제 등 관광이벤트가 시행되고 있으나 같은 기간에 집중되는 등 제로섬게임의 경쟁체제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함에 따라 공동으로 관광이벤트를 기획할 필요	인천/김포/부천/시 흥/안산
	24	서울대 연계 바이오 헬스케어기업 공동유치	송도 및 시흥배곧 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 관련 기업유치가 개별추진되나,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통합·기획 및 기반시설 연계할 필요	IFEZ/GGFEZ
협력 사업 (4)	25	계양신도시-대장신도시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통합관리	행정구역이 다른 3기 계양-대장신도시 조성에 있어 기능적 연계 우려로 도시기반시설의 공동화, 경계부의 환경개선,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의 공동사용 등을 구상할 필요	인천/계양/부천
	26	도시농업관련 공동 플랫폼 구축	도시 연접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 및 도시근교농업 관련 공동 플랫폼 구축 필요	서구-김포/계양-부 천/강서/부평-부천 /시흥/옹진-안산

3. 인천 연계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유형화

- 서부수도권 도시 간 협력사업은 광역도시기반시설의 공동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 주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행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연계생활권 간 협력을 위한 이벤트 및 주민 여가 활동 공유를 위한 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광역 도시 기반시설의 공동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사업을 통해 인천~경기~서울 간 인천과 서울, 경기 등 광역지자체의 공동 협력·협약이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분류함
- 주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행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생활환경 및 행복 인프라 확충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관련 사업 위주로 분류함
- 연계생활권 간 협력을 위한 이벤트 및 주민 여가 활동 공유를 위한 사업은 인천 및 인접 지자체 간 연계 및 공동 개최가 가능한 도시 내 이벤트 및 축제 등 프로그램과 문화·관광 등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 연계도시 간 광역적 활동 공유를 통해 지역 간 상생 및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분류함

[표 3-2] 서부수도권 도시 간 협력사업 유형화

구분	사업명	관련지자체	도면번호
광역도시 기반시설 공동 구축 및 관리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공간 활용 연계	인천시, 부천시, 서울시	1
	한강하구 탄소흡수원 공동관리 및 관광 자원화	인천시, 경기도, 강화군, 김포시	2
	소래습지 국가공원 등 국가(광역)공원 신규 지정	인천시, 경기도, 시흥시, 김포시	3
	UAM 항로 개발 및 광역연계와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인천시, 부천시, 강서구, 김포시, 시흥시	4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김포시, 부천시, 계양구, 부평구	5
	운연~신천간 광역도로 지정(구축) 등 (시 경계지역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	인천시, 시흥시 (김포시, 강서구, 부천시, 안산시)	6
	도시연접지역 기피시설 입지 공동관리	인천시, 김포시, 강서구,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7
	계양천, 나진포천, 검단천 친수공간 산책로 연결	인천시, 서구, 김포시	8
	강화, 김포 염하수로 공동관리 및 관광자원화	인천시, 강화군, 김포시	9
	연접지역 정비사업 공동추진	인천시, 계양구, 김포시	10
	국제물류 첨단산업벨트 구조고도화 사업	인천시, 부평구, 부천시	11
	DNA 혁신밸리 중심의 광역 산업단지 벨트 강화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부천시, 서울시 강서구	12
	7호선 급행열차 공동추진	인천시, 부천시	13
	서울대 연계 바이오 헬스케어기업 공동유치	IFEZ, GGFEZ	14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통합관리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	15
주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행정 협력	굴포천 친수공간 연계 및 행정구역 경계조정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김포시, 부천시	16
	경인권 관광문화여가루트 공동 구축 및 해양 관광자원 개발	IFEZ,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17
	부천, 부평 지하철가 공동관리 및 관광자원화	인천시, 부평구, 부천시	18
	수도권 규제 과밀억제권역 축소 공동추진	인천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19
	고도제한 등 공항경제권 규제 개선 공동추진	인천시, 계양구, 김포시, 강서구, 부천시	20
	도시농업관련 공동 플랫폼 구축	서구-김포시, 계양구-부천시, 강서구, 부평구-부천시, 시흥시, 옹진군-안산시	21
	공유자전거 등 차세대 교통인프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강서구	22
지자체 협력을 위한 이벤트 등 개최	한남정맥, 서해안 하이킹루트 조성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	인천시, 강화군, 서구,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23
	안산시~박쥐섬~동굴섬~선재도~목섬 바닷길 연결 및 관광자원화	옹진군, 안산시	24
	체육교류 이벤트(마라톤, 자전거 등) 및 공공체육시설 공동이용 플랫폼	인천시, 부천시, 강서구	25
	경인권 통합문화제 등 관광이벤트 교차 시행	인천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26

- 인천 지역생활권의 연계협력사업 목록 중 공간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사업대상지 위치는 다음과 같음

[그림 3-2] 서부수도권 도시 간 협력사업 관련 위치도 (표 3-2와 연계)



4. 인천 연계 생활권 주요 연계·협력사업 우선순위

- 인천 연계 생활권의 주요 연계·협력사업으로 제안된 27건의 사업에 대하여 정책화 가능성 여부, 주민 관심도 및 파급효과(기대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구분함
- 연계 협력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등의 검토는 시·군·구 관련부서의견수렴(2023.10.23.~27.)에서 제안된 사항을 고려
 - UAM 연계를 통한 광역교통 체계 구축, 운연-신천간 광역도로 지정 등
- 전문가 자문회의 (2023.10.25.) 시행을 통한 인천 연계 도시 간 주요 협력 필요사업 제안사항 고려
 - 전문가 자문회의의 주요 안건은 “서부수도권 도시간 공동 현안 발굴 및 연계협력사업 제안”임
 - 전문가 자문회의의 구성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인,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인으로 구성

[표 3-3] 전문가 자문회의 시 주요 자문의견 사항 정리

구분	주요 자문의견	비고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단계적으로는 현재 공간적 범위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 필요 2. 연결하지 않아도 기능적으로 연결된 공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3. 노후산업단지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 간 산업생태계 연결 필요 4. 도시 내 스마트팜 등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 연계 필요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1	1. 연계지역 간 논의 필요사항은 대체로 선형의 물길, 도로, 철길 등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유역별 지자체의 공동계획 필요 2. 연계 지역 간 사업 추진 체계 제안 필요(추진체계) 3.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 등 상부조성 계획을 위한 공사 등을 조성하여 지상부 조성 및 수익창출 추진체계 필요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2	1. 아라뱃길에 대한 활용성 증가를 위한 관광 및 레저 부문의 지역 연계 사업 추진 필요 2. 대중교통 부분의 연합대응 필요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도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 체계 운영을 위한 지역 간 연계 및 공동대응 필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을 위한 인천 부평구(삼산, 부개, 부평, 갈산)-부천(상동, 중동) 간 통합 정비계획 추진 필요 (인접지역 간 통합정비계획 추진 필요성) 2. 아라천 주변 친수공간 조성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계획 마련 필요)	

1) 정책화 가능성 및 전문가 의견 반영

- 인천과 연계도시 간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 타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민선 8기 공약 추진계획, 분야별 업무계획 등을 바탕으로 정책의 구체화가 가능한 사업
- 지자체별 시정 방향에 따른 중점사업 해당 여부

2) 주민 관심도 및 파급 효과 (기대효과)

- 해당 사업을 통해 영향을 받는 배후 인구 고려 (해당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 내 인구 등을 고려)
-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각 지자체의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 및 장점 고려

3) 시급성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 (현재 준비 및 진행 중인 사업)

- 현재 각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 시기 등 고려
- 각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개별적 계획 진행 여부 및 현황 고려

● 인천 지역생활권 주요 연계협력사업 목록 선정

- 정책화 가능성, 주민 관심도 및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인천 지역생활권 간 주요 연계협력사업 목록은 총 12건임
- 정책화 가능성은 해당 사업들이 현재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장·단기적으로 광역적 연계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5점, 인천시와 각 지자체의 주요 정책 방향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4점, 인천시와 각 지자체의 정책방향이 비슷한 키워드로 제시된 경우 3점, 인천시의 정책으로만 제시된 경우 2점, 인천시 외 지자체의 정책으로만 언급된 경우 1점으로 점수화하여 우선순위 목록을 구분함
- 주민 관심도 및 파급효과의 경우, 언론이나 매체 등을 통해 이슈가 되어 주민 관심도가 높으며, 각 지자체의 주요 정책방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의 경우 5점, 언론이나 매체 등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영향권이 커서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 4점, 언론이나 매체 등을 통해 이슈 및 관심도가 증가했으나 주요 정책방향과 연계가 부족한 경우 3점, 주민관심도는 적으나 지역 내 파급효과(영향권)가 큰 사업의 경우 2점, 이외의 경우는 1점으로 점수화하여 우선순위에 반영
- 시급성의 경우, 해당 사업이 현재 지역 내 주요 정책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진행 및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있는 경우 5점(예산집행 등), 각 지자체별로 관련 사업의 진행이 최근 시작된 경우 4점(예산편성 등), 각 지역별로 관련계획 또는 사업이 준비 중이며, 지속적·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 3점,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위계획 및 각 지역별 정책방향 등에 의해 향후 관련 사업 및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2점, 이외의 경우는 1점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에 반영
- 위와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점수화하여 제시한 주요 연계협력사업인 12건의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3-4] 인천 지역생활권 주요 연계협력사업 우선 선정과제 : 11건

구분	No	사업명	관할 지자체	정책성 (1~5점)	주민 관심도 (1~5점)	시급성 (1~5점)	총점
인천-서울 -경기 협력사업	1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공간 활용 연계	인천/부천	5	5	4	14
	2	UAM 항로 개발 및 광역연계와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인천/서울/경기/강 서/ 부천/김포/시흥	5	3	4	12
	3	경인권 관광문화 여가루트 공동구축 및 해양관광자원 개발	IFEZ/인천/강화/ 옹진/ 김포/부천/시흥	4	3	3	10
	4	공유자전거 등 차세대 교통인프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천/경기/김포/부 천/ 시흥/안산/강서	4	3	3	10
인천-기초 지자체간 협력사업	5	고도제한 등 공항 경제권 규제개선 공동추진	인천/계양/김포/강 서/부천	5	5	5	15
	6	체육교류 이벤트 및 공공체육시설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인천/부천/강서	5	5	5	15
	7	7호선 급행열차 공동 추진	인천/부천	5	5	5	15
	8	운연-신천간 광역도로 지정 및 구축 (시 경계지역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	인천/시흥	5	4	4	13
	9	강화김포 염하수로 공동관리 및 관광자원화	인천/강화/김포	4	3	4	11
기초 지자체간 협력사업	10	계양신도시-대장신도시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통합관리	인천/계양/부천	5	5	5	15
	11	도시농어업 공동 플랫폼 구축	서구-김포/계양-부 천,강서/부평-부천, 시흥/옹진-안산	4	4	4	12

5. 인천 지역 생활권 주요 연계·협력 사업별 전략 및 계획

- 인천 지역생활권에 필요한 지역 간 주요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 및 협의를 위하여 사업별 전략과 사업계획을 제안함

1) 인천-서울-경기 광역지자체 협력사업

(1)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공간 활용 연계

● 연계협력사업 필요성

- 경인철도는 인천-부천-서울을 경유하는 광역철도로서 지하화 관련 이슈가 장기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도시지역에서 역세권의 중요도와 인구밀집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진동·먼지 피해에 노출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로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간에 소통 부족
 - 경인철도 주변지역은 대부분 원도심 지역으로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이 다수 분포하며, 미세먼지 및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도시재생 및 환경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경인철도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역공약 등 확산되고 있음
-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과 노후화된 철도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역세권 및 도심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철도는 국가기간 교통망으로 지자체 단독으로는 관련사업 추진이 어려움
 - 경인철도 지하화는 각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다양한 관계기관 간 협의와 소통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인천 연계생활권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추진 방안 필요
- 과거의 경인철도 지하화 계획으로는 2016년 경인철도를 포함하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통해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으나, 인천역~도원역 구간을 제외한 도원역~구로역을 지하화 추진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있음
- ‘경인철도 지하화 기본구상’ 수립 이후, 경인철도 지하화 및 지상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는 정부 및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연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개별지자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최병국(2021), 경인선 지하화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인천연구원
- 이종현(2019), 인천 도시발전 미래구상: 경인축 활성화 전략, 인천연구원
- 조응래(2019), 경인선 부천구간 철도 상부공간 활용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국토교통부,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 추진 중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 및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경인선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 경인철도 지하화 구간에 포함된 부천시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제도개선 관련 용역 결과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 세부계획 수립 등을 계획 중에 있지만⁵⁾ (부천시 공약사항), 인천시와 별다른 협의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지상공간 활용방안 역시 지자체별로 협의없이 각각 계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의 공동계획이 필요한 상황임

[그림 3-3] 경인철도 도원역 부근 현황



출처: 이주영 기자,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716>, 인천일보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지하화를 통한 지역 단절 해소 및 원도심 공간 재창조

5) 부천시 공약사항 중

- 향후 경인철도 지하화 및 주변지역 조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 또는 신규 제도 구축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방향 마련

○ 추진방향

- 예비타당성 조사(2026~27),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2028~2035)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인철도 전구간의 조성방향, 기능, 활용방안 등에 대한 광역 협의체계 구축
- 사업량 : L=26.9km, 21개 역사 (부천구간 6.6km(5개 역사), 인천구간 13.9km (11개 역사), 서울구간 6.4km(5개 역사))

[그림 3-4] 경인철도 지하화 필요구간



● 사업 현황 및 추진전략

○ 그 간의 추진현황

- 2022 상반기 관련용역 착수 (인천시)
- 2023~2025.7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용역 시행
- 2023 하반기 특별법 제정 추진⁶⁾ (현물출자 및 채권발행, 예타면제 등 관련법안 발의)

○ 추진계획

- 2024 특별법 제정 (국토부)
- 2024~2025 상반기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인천시 → 국토부)
- 2025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국토부)
- 2025~ 경인철도 지하화 진행

6) 현재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준비중, 정부가 광역철도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제성이 전제되어야 절차진행 가능한 상황이나, 철도 지하화의 경우 구조적으로 경제성 확보의 주요 지표가 되는 '편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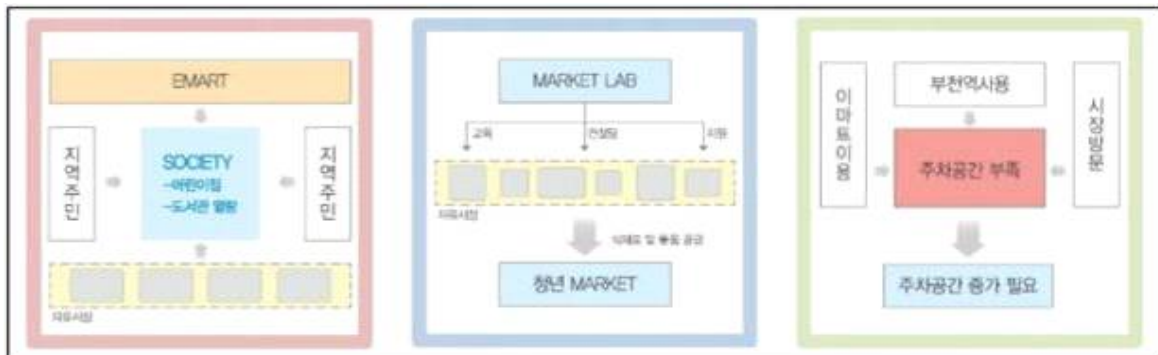
○ 추진전략

- 경인철도 지하화 및 지상공간 활용방안의 수립은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신규 구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제임
- 각 지자체별로 지하화 구간의 주요역별 지상공간 활용방안 구상,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사업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
- 향후 경인철도 지하화 및 지상공간의 활용방안 공동구상 및 수립, 사업에 필요한 자원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공동 추진, 주요 역세권별 상부공간을 활용하여 인근 생활권 활성화 계획 공동 수립 등이 요구됨

[표 3-5]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공간 활용방향 연계를 위한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1)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철도의 상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하화 사업 경제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검토 통과를 위한 지하화 사업 편익(BC) 확보방안 필요 •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인철도 지하화 추진동력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조속 실현을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및 법안 통과,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의 전반적 추진을 위한 지역 간 공동 대응 추진
(2) 지상공간 활용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별 연구과제 별도 수행으로 인한 지상공간 계획 간 연계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별 경인철도 지하화 및 지상공간 활용방안 기본구상을 위한 공동계획 수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철도 지하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마련 및 추진을 위한 인천 연계지역 간 광역 협의체계 구축 - 선형공원의 폭, 생활SOC 배치, 대중교통연계,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방안 등 • 주요 역세권 상부공간을 활용한 인근 생활권 활성화 계획 공동 수립
(3) 재원마련 및 관리기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확보 방안 및 공사와 상부공간 조성 시기의 정합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행정재산 활용방안 및 사업추진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주요 집행기구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철도 지하화로 발생하는 상부부지 매각 등 자원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공동 추진 • 경인철도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사(公社) 설립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운영방식 공동 협의

[그림 3-5] 철도 상부공간 활용 기능 예시(부천시)



출처: 조응래(2019), 경인선 부천구간 철도 상부공간 활용방안, 경기연구원

● 기대효과

- 경인철도 지하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교통체계 개선으로 인천~부천시 지역 연계성 향상, 노후 도심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주거 환경의 개선 기대
 - 지상 공간 재창출로 원도심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심 내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확충으로 인한 시민 삶의 질 향상
- 경인철도 지하화 구간 지자체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어, 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UAM⁷⁾ 항로 개발 및 광역연계와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 연계협력사업 필요성

-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이 제시('20.6.4.)됨에 따라 대도시권 인구집중과 지상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UAM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각 지자체별로 UAM노선의 다양화 및 항로 확장을 통한 UAM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이 필요한 실정임
 - 국토교통부에서는 UAM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하는 등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UAM을 활용한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은 상위계획인 '2040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관련계획인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2040인천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지역별로 UAM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구, 김포시 등에서 UAM 시범노선 운영 및 이착륙장이 포함된 복합환승시설 설치 등을 준비 중임
- 현재 계획 중인 UAM 항로는 아라뱃길 및 한강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구상되고 있어서 UAM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로 확장·연결 및 수도권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탄소배출 저감 목표와 방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UAM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자체 공동계획이 필요함
 - UAM은 항공교통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행정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항로를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이지만 현재 계획 중인 UAM 관련 내용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실증사업을 제외하고, 각 지자체별로 계획되고 있는 실정임
- UAM 노선의 다양화, 효율적인 이착륙장 위치 설정 및 계획을 위한 항로 확장을 위한 관할지자체의 공동계획을 통해 UAM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 필요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실용적인 UAM 시스템 구축 및 많은 항로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UAM 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UAM 시스

7) UAM은 "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의 약자로 드론, 헬기, 전기 수직이착륙차량 등 소형 항공기를 도심 내 운송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템의 구축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미래형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게이트웨이와 주요 중심지 간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노선을 구축하고, UAM과 주요 GTX역 간 원활한 환승을 위해 UAM-GTX 연계 미래형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함

○ 추진 방향

- 인천시, 김포시, 시흥시, 서울 강서구, 부천시, 안산시 등 인접 지자체 간 주요 UAM 항로의 우선 구축을 위한 “인천 연계 생활권 UAM 실증노선 공동 발굴 및 계획” 마련 추진
- 아라뱃길, 하천구간(굴포천, 승기천), 해안선, 주요 섬지역, 녹지축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고려한 인천 연계 생활권 확장 UAM 항로개설 방안 마련

[그림 3-6] 현재 추진 중인 UAM 실증사업 노선(수도권)



● 사업 현황 및 추진전략

○ 그간의 추진현황

- 2020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 2022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 2022 인천시 UAM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 2023 인천시 UAM 시범운용지역 구축계획 수립 추진 (항공우주산학융합원)
- 2023 비도심지역(1단계) UAM 실증사업 추진 (전남 고흥 진행 중), (국토교통부)
- 2023 도심지역(2단계) UAM 실증사업 노선 발표(인천 아라뱃길~계양신도시, 고양 킨텍스~김포공항, 서울(김포공항~여의도, 잠실~수서)

○ 향후 추진계획

- 2024 도심 주요 권역별 UAM 노선계획 수립 예정 (국토교통부)
- 2024 도심지역(2단계) UAM 실증사업 계획(국토교통부)
- 2025 인천시 도심항공택시 조기 상용화 목표, 서비스 다각화 예정
- 2030 UAM 서비스 범위 및 노선 확대 예정 (국토교통부)

[그림 3-7] 인천 내 UAM운항 항로 설정 구상(안)



자료: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추진전략

- UAM 실증사업 및 노선계획 수립은 도심항공교통 실증선도 도시 도약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제임

- 향후 UAM 실증사업, UAM 노선계획 수립, 도심항공택시 상용화, UAM 서비스 및 노선 확대 사업이 추진됨
- 이에 따라 인천 청라 수도권매립지와 드론시험인증단지를 연계한 생활권역 내 UAM 실증 및 산업육성 지구 조성, 주요 권역별 UAM 특화노선 및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공동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표 3-6] UAM 항로개발 및 광역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1) UAM 실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주관 실증사업은 고흥(임시실증구역) 지역만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상설 실증구역 지정 • 수도권매립지 주변 (공역) 상설 실증구역화 및 2매립장 상부 UAM 주기장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청라 수도권매립지와 드론시험인증단지를 연계한 생활권역 내 UAM 실증 및 산업육성 지구 조성 공동 추진
(2) UAM 노선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된 UAM법은 각 지자체가 시범운용구역 신청하면 국토부가 지정 승인하는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선계획을 수립신청하면 일정한 충족 시 국토부에서 노선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도시특성에 맞는 섬 지역 노선, 인천공항 노선 등 특화노선 구축 • 주요 권역별 UAM 실증사업 노선의 확대를 위한 실증사업 가능 항로 공동 발굴
(3) 도심항공택시 상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M 상용화 초기 시민 수용성 확보와 운용비용의 현실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M 안정성 및 효율성 홍보와 조례를 통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지역과 같은 교통취약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천형 보물섬 프로젝트 추진 • 인천 연계 지역 간 UAM 플랫폼 구축 확대 공동 추진
(4) UAM 서비스 및 노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별 독자노선 구축으로 비효율적인 단거리 위주의 노선 구상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도시 및 지역과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대광역 위와 같은 광역교통협의체 구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민의 서울과 수도권 교통체계 혁신 • UAM 인프라 구축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주요 기능 및 위치 중복 최소화

● 기대효과

-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대한 인천 연계도시 간 수용성 향상
 - 지역 간 연계로 인해 UAM 관련 상황의 모니터링이 용이하며, UAM 활용성 증대, 지역 간 정보교류로 인한 UAM 운행 안전성 확보 가능
 - UAM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체 및 통신체계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지역 간 연계·통합 체계 구성을 통한 효율성·안전성 확보 가능
- 도심항공교통 실증·선도 도시 도약 및 산업생태계 조성
 - UAM 글로벌 선도도시간 협력으로 정책개발 및 글로벌 UAM 초일류도시 도약

- 육상교통 혼잡 및 포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미래형 운송체계인 UAM을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확장된 UAM 항로개발을 통한 수도권 내 신교통체계 구축 및 실현 도입 시기 단축

(3) 연계생활권 관광문화여가루트 공동구축 및 해양관광자원 공동개발

● 연계협력사업 필요성

- 인천 연계생활권의 해양 및 친수특성을 활용하여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통합·연계, 관광개발 시 상호영향이 있는지 검토하는 협력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섬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인천 연계 생활권은 현재 서울과 차별화된 관광자원은 많지만 서울중심의 관광플랫폼으로 인하여 연계생활권으로의 관광객 유입이 적음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투어패스 통합권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도 ‘경기투어패스’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권역별 투어패스의 구입 및 활용이 가능함
 - 경기도 권역별 투어패스 중 “서부권 투어패스”에는 인천과 연계지역인 안산시 대부도, 제부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를 광역적으로 확장하여 인천의 168개 섬지역 교통수단까지 연계⁸⁾한 ‘서부 수도권 광역투어패스’를 공동발행하여 관광루트 확장, 콘텐츠 확대와 투어패스의 경제성 확보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
- 인천시의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및 서해 섬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 공동 현안 과제로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선정되었기에 이를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으로 인천 연계 생활권 간 콘텐츠 개발 및 친수공간을 통한 관광루트 조성⁸⁾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방안 구축이 필요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해안선 및 주요 수변공간, 녹지 및 둘레길 등을 활용하여 시민 친화적인 관광문화 여가루트, 관광루트 활성화를 위한 투어패스 시스템 공동 구축을 목표로 함
- 추진방향
 - 서해연안을 활용한 다양한 인프라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수변 이용자 중심의 여가·관광 공간을 조성함
 - 인천 연계 생활권 내 관광자원인 섬과 바다자원을 개발하여 서울과는 차별화된 관광

8) 전북투어패스는 전라북도 내 4개항로 12개 전 도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반값운임제를 시행하고 있음

- 지 발전, 관광객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추진
- 인천 연계생활권 관광지+교통패스(연안여객 등) 1~5일권 지원(투어패스 형태) 등을 통한 관광활성화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공동 발굴하고 광역 지역화폐 발행

● 사업 현황 및 추진전략

○ 그 간의 추진현황

- 2014 경인아라뱃길~한강 구간 유람선 운항 중단
- 2021 인천투어패스 출시
- 2022 인천투어패스 통합권 출시
- 2022 경인아라뱃길~한강 연계 뱃길 부정기 운항
- 2023 경기투어패스 (경기관광통합이용권) 출시
- 2023 섬 관광 활성화 사업⁹⁾ 추진 중(인천)

○ 추진계획

- 2023~2024 정기운항 사전 준비
- 2024~2025 정기운항 노선 확대 준비
- 2025~2026 서해바다~한강 정기운항 추진

○ 추진전략

- 연계 생활권 간 관광문화여가루트의 공동 조성과 투어패스 시스템 구축은 서부수도권의 관광 자원인 해안선 및 주요 수변공간, 녹지 및 둘레길 등을 활용하여 시민 친화적 관광·문화·여가 인프라의 공동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제임
- 향후 인천시 및 연계 생활권의 섬지역 간 연결, 해안지역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연계, 해안 및 섬지역 주요 관광지 공동 조성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 인천 연계 생활권 간 해양관광자원 및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투어패스 공동 운영 시스템 구축, 여객선 운항 노선 확대 및 자전거, 보행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통인프라 공동 계획 및 조성 등이 요구됨

9)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테마관광상품 주섬주섬 음악회 등 다양한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실행 중

[표 3-7] 관광문화여가루트 및 해양관광자원 공동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1) 수변자원 활용한 관광루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라뱃길~한강 등 기존 유람선 등 관광 루트 중단 장기화 관광 루트 중단 장기화로 인한 수변·해양관광자원 발굴 필요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부수도권 내 수변·해양 관광루트 노선 재개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수변공간을 활용한 카페, 쉼터, 생태탐방로, 해양환경체험관, 갯벌체험, 해양스포츠·크루즈 체험 등 서해연안을 활용한 다양한 인프라 및 체험형 콘텐츠 공동 발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라뱃길, 한강, 인천연안항, 경기 방어머리항 등 섬지역 관광을 위한 주요 여객선 루트 확대 공동 계획 추진 강화도, 선재도, 영흥도, 안산 대부도 등의 해양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2) 관광활성화를 위한 주요 인프라 및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지역의 위치 및 여객선 운항 축소, 보행로 단절 등으로 인한 섬 지역 및 해안 지역으로의 접근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수보행로 조성, 해안길 및 전망대 조성, 지역 간 자전거길 등 연계 지역 간 주민교통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등 수변 및 해양 접근성·활용성 확보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안 및 섬 지역의 관광 접근성 관련 인프라 공동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이음길, 친수보행로, 둘레길, 바닷길, Scenic Drive(전망대) 및 해안여가공간 등
(3) 지역 내 투어패스 확대 통합 운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별 투어패스 운영으로 인한 인접한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결여 연결가능한 섬 지역임에도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단절된 지역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지 이용 및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활용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투어패스의 공동 활용 필요 행정구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섬 지역 간 관광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형 세토우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서부권 섬 지역 관광지의 투어패스 여행지 편입 및 공동 기획 현재 운영중인 인천투어패스와 경기서부권투어패스 통합 및 지역화해 연계 추진 연안여객선, 유람선, 크루즈 등 다양한 섬지역 대중교통수단의 통합연결 계획 추진

기대효과

- 인천, 경기도의 공동투자로 신규관광지를 조성하여 투자금 관련 시너지효과를 발생시켜 서부수도권의 해양친수도시 이미지를 창출
- 인천시 및 연접지역의 관광거점 확대를 통해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출입객의 인천 연계 생활권 관광인구 흡수에 기여

[그림 3-8] 인천 연계 생활권의 관광여가루트 (2040수도권광역도시계획)



[그림 3-9] 인천투어패스 운영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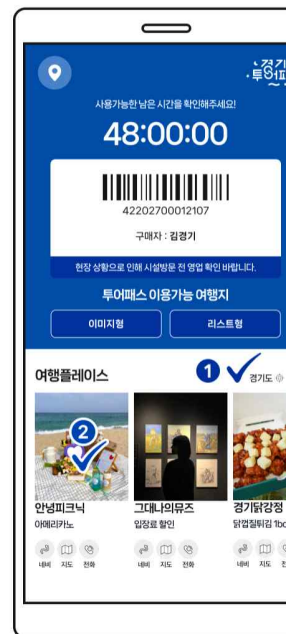
[그림 3-10] 경기투어패스 운영화면

- 1 위치기반
현재 위치 중심으로 가까운 여행지와 거리를 알 수 있어요.
- 2 편리한 정보안내
검색할 필요 없이 각 여행지 마다 알고 싶은 필요한 정보 및 꿀팁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여행지 이용안내]



[네비 및 지도연동]



(4) 공유자전거 등 차세대 교통인프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연계협력사업 필요성

-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탄소중립 교통정책으로 자전거 중심으로의 교통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며, 스마트 모빌리티인 공유자전거 및 공유PM 등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음
- 공유자전거 등 퍼스털 모빌리티 등 차세대 교통인프라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P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독립적인 공유PM운영 사별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사용상의 불편함이 발생
 - 특히, 행정경계가 맞닿아있어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은 각 지역별로 이용하는 공유PM 운영사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목적지가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행정지역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이 불편함
- 이미 해외에서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각 교통 데이터와 결제 시스템을 통합하여 시민중심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구축하고 있음 (독일 베를린 Jelbi, 미국 피츠버그 MOVE PGH 등)
 - 해외 사례의 경우, 트램과 지하철, 택시는 물론이고 스쿠터, 자전거, 카셰어링 등을 아우르는 앱 하나로 실시간 이동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가 구축되어있음
- 인천시의 부평구와 부천, 남동구와 시흥, 서구 검단과 김포, 강서구 등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지역인 만큼 지역 간 이동과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교통인프라 이용 및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 간의 활발한 이동이 편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신교통시스템을 확장하여 이동교통 부분의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인천 연계 생활권 생활인구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과 밀접한 연계를 통한 신교통망 구축으로 친환경 교통체계 확보 및 지역 간 연계·접근성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서울-인천-경기 간 광역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ICT를 활용한 인천 연계 생활권 공동의 차세대 교통인프라를 구축

● 사업 현황 및 추진전략

○ 그 간의 추진현황

- 2023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정기권) 관련 광역지자체 참여발표 (인천, 김포)
- 2023 자전거 인프라 구축(확대) 및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각 지자체별 진행 - 인천, 부천)

○ 추진계획

- 202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출시

○ 추진전략

- 차세대 교통인프라 확충 및 통합이용·관리 시스템 구축은 대중교통과 퍼스널모빌리티(PM) 간 연계를 통한 신교통시스템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제임
- 향후 대중교통 및 공유PM 환승 시스템 구축, 행정구역 간 경계지역 일대 및 주요 역세권을 활용한 모빌리티 환승인프라 조성,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대중교통 및 공유PM 환승결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주요 역세권 및 행정경계 지역 중심의 모빌리티 이용 스테이션 등 관련 시설 공동 배치,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생활권 내 대중교통 및 공유PM 위치 및 도착시간 등 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대한 공동 계획 및 추진이 요구됨

[표 3-8] 차세대 교통인프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1) 대중교통 및 PM 통합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교통정책 및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 및 시스템 구축이 각 지자체별로 개별 운영하여 인접 지역 간 연계 결여 실시간으로 대중교통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결제 가능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지역 간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다양한 친환경 교통인프라 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버스, 자전거, 카셰어링, 전동킥보드 등을 아우르는 통합결제 및 이용시스템 공동 구축 시민 편의 개선을 위한 공유 자전거 및 PM 위치 확인 및 예약 시스템 결합 지도 어플리케이션 구축
(2)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교통망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시스템임에도 무분별한 스마트모빌리티 주차 및 관리스홀로 인한 시민 불편함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쾌적한 이용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마이크로모빌리티(개인용 이동수단)의 지역 내 연계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통 체계 변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구역 경계 지역 및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통합 모빌리티 주차구획(스마트 그린스테이션) 공동 배치 및 설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인고속도로 지상구간, 아라뱃길, 소래-월곶, 부평-부천 경계부 내 공유자전거 및 공유자동차 등 관련시설 공동배치 방안 마련 지역 간 연계를 위한 차세대 교통인프라 차로 운영 방식 공동 추진
(3) 관련법 제정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 자전거, 차량,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자전거 및 공유자동차, 드론 등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지원 관련 근거법령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들의 일상적 구현을 위한 기존 법제 및 정책의 재검토와 지역적 특성환경을 반영한 제도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검토 및 지역 간 이동성 증진을 위한 연계생활권 간 모빌리티 운영 가이드라인 공동 구축

[그림 3-11]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구조도



출처: 임보미(2022), 스마트도시에서의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그림 3-12] 차세대 교통인프라 관련 차로운영 방식 개선(안)



[그림 3-13] 공유자전거 및 PM위치 연계지도 앱 예시



출처: 부천시 홈페이지, 자전거 및 PM 도로지도 일부

● 기대효과

- 기존의 대중교통과 유연하게 결합되는 편리한 차세대 교통인프라 구축 가능
- 탄소배출가스 저감 및 도심교통혼잡 등 도시·교통 환경 문제 개선
- 대중교통과 공유PM 간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비, 시간 경감
- 대중교통과 민간모빌리티 서비스의 통합 예약·결제 시스템으로 역이나 정류장 인근의 공유모빌리티를 세워두는 모빌리티 허브로 자연스러운 환승 유도 가능

2) 인천-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1) 김포공항 주변지역 건축물의 높이규제 완화 공동추진

● 연계협력사업 필요성

- 인천 연계 지역인 부천시,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는 김포공항 고도제한(최고 높이 해발 57.89m- 아파트 약 13~15층 높이)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용도 등의 규제를 받고 있음
 -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 중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부천 대장신도시가 있으며, 서울 강서 마곡지구 등도 포함됨
-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공항공계 민간항공기구(ICAO)는 2028년까지 관련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일정을 밝히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완화기준 마련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공항주변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국내 항공법 개정 등은 완료되었으나 국제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음
 - 2028년 국제기준 개정 시행 시기에 맞추어 고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지는 대상지에 대한 관리 방안 및 기준을 지자체별 특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마련하는 방안 필요
- 현재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건축높이 제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공약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추진이 필요함
 - 향후 국토부에서 검토할 완화기준 항목에 고도제한 관련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동의견 수렴 및 공론화 필요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구역 내 속하는 지자체의 건축물 높이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규제완화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연계지자체 공동연구 및 토론회 등의 공동사업 추진을 목표로 함

○ 추진방향

- 향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기 안전 운항 국제기준’ 개정 사항에 대응한 지자체별 공항 주변지역 건축물 적정높이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토론회 등 추진

● 사업 현황 및 추진전략

○ 그 간의 추진현황

- 1993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서울지방항공청)
- 2010 고도제한완화를 위한 3자 협약 (부천시, 강서구, 양천구)
- 2015~16 항공법 개정 공포 및 시행 (국제기준 범위 내 항공항적 검토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가능)
- 2017 항공법 폐지 및 공항시설법 시행
- 2018 항공항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한국교통연구원)
- 2022 국제기준 개정안 작성 및 항행위원회 제출(부천시)
- 2023 김포공항 고도제한완화 관련 기초지자체 공동논의 (인천 연계 생활권행정협의회)

○ 추진계획

- 2024 국제기준 개정안 발효
- 2028 공항주변 고도제한 국제기준 완화예상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개정안의 개략적 내용은 기존의 장애물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임

○ 추진전략

- 김포공항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방안 구축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수립은 공항 일대 규제완화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연계 지자체 및 자치구의 공동연구 및 토론, 협의, 계획안 마련의 원활하고 조속한 실행을 목표로 하는 추진전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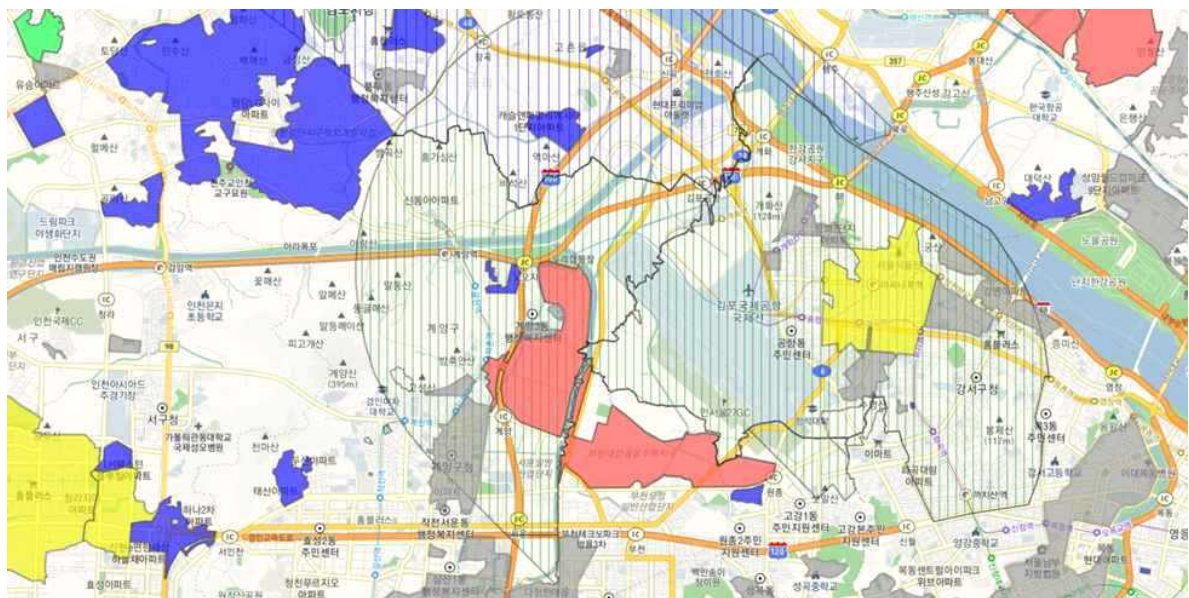
[표 3-9] 김포공항 주변지역 건축물의 높이규제 완화를 위한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1) 고도제한 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법의 개정과 항공학적 전문기관이 지정되었으나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완화 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준의 고도제한 기준 변경을 위한 연계 생활권 지자체 공동 입장 정리 및 지속적인 고도제한 완화 제안을 통한 조속한 규제 완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 고도제한 관련 지자체 및 자치구 간 관련업무 협력 체계 유지 및 확대
(2) 규제완화에 따른 주변지역 관리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공항주변 고도제한 국제기준 완화가 예상되거나 규제완화에 따른 도시난개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8년 ICAO개정에 맞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도시관리 방안 수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완화(개정) 이후를 대비한 '김포공항 주변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동 마련

● 기대효과

-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및 시민 재산권 보호 기대
- 향후 국제기준의 변경에 맞추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정책변화에 대한 일관성있는 대응이 가능
-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해당하는 지자체 특징 및 형평성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유도

[그림 3-14] 김포공항 주변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현황



(2) 공공체육시설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및 체육교류 이벤트 개최

● 연계협력사업 필요성

- 현재 각 지자체별로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신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 행정경계부의 경우, 지역주민의 주거지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어도 지자체가 다르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공공체육시설을 신설, 확충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인천 연계도시 공공체육시설의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 활용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연계생활권내 지역주민간 교류로 인한 도시 내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아라뱃길과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상부 선형공원을 활용하여 장거리 마라톤, 자전거 대회, 조정경기 등 지역 간 체육교류 이벤트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연계 지역 생활권 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동일한 연계 생활권 내 지역 커뮤니티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인천 연계도시 지역 내 시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고 체육서비스 소외지역이 없는 균형적인 체육공간 조성을 목표로 함
- 추진방향
 - 주요 행정경계 지역 및 지역 간 연결성을 가진 아라뱃길, 경인고속도로 상부, 경인철도 상부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을 기반으로 이용가능한 공공체육 시설 이용을 도모

● 사업 현황 및 추진전략

- 그 간의 추진현황
 - 2023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 ‘공유누리’ 오픈

- 2023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현황 조사 (인천광역시)
- 2023 공공체육시설 확충 용역 계획수립 (인천광역시)
- 추진계획
 - 2029 남동구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권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 2030 계양문화스포츠센터 건립
 - 2030 생활체육 종합컴플렉스 신설 (연수구)
- 추진전략
 - 공공체육시설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및 공급배치 공동 계획 수립은 행정구역 경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균형적 체육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제임
 - 향후 공공체육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재건축 및 재배치 등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천 연계 생활권 내 통합이용·관리서비스 사업 추진전략 필요
 - 인천 연계 생활권 내 주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이용가능한 공공체육시설 시범운영, 공동예약 플랫폼 구축, 연계생활권 전반의 공공체육시설 수요 및 공급배치 관련 공동연구 추진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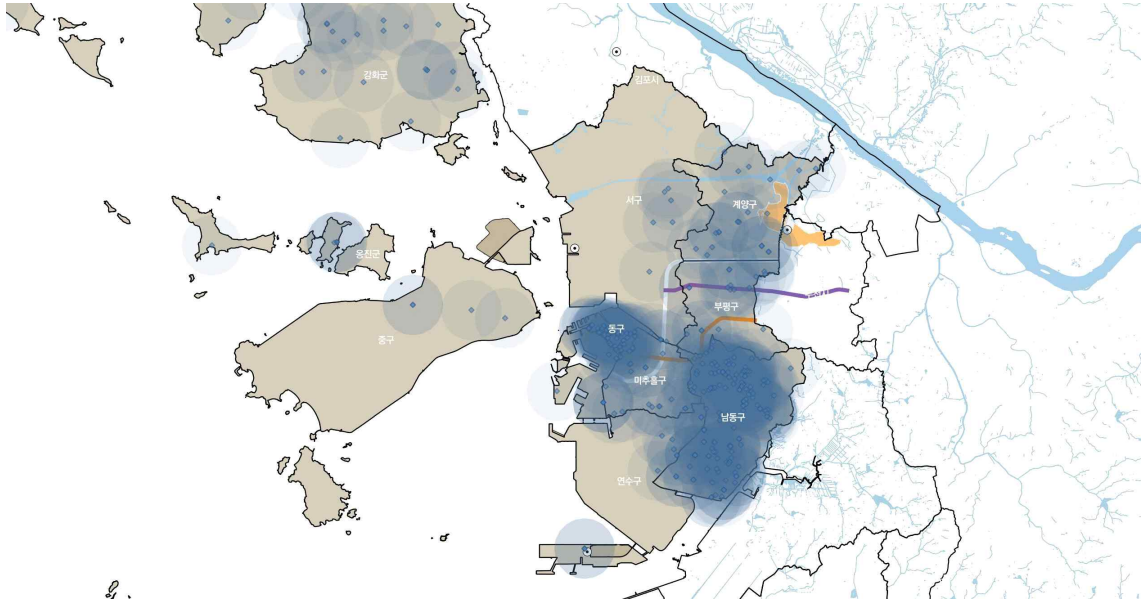
[표 3-10] 공공체육시설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1) 공공체육시설 양적·질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리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나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30년 이후로 예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 생활권 전반의 공공체육시설 공급을 위한 관련 지자체 정보 공유 필요 • 연계 생활권 단위의 공공체육시설 수요·공급 관련 공동 조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수요 및 공급배치 관련 연계 생활권 공동 연구 추진
(2) 생활권 기준 공공체육시설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주거지 기준으로 가깝고 쉽게 접근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어도 행정구역 차이로 인해 이용 불가능한 시설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서비스 소외지역 없는 균형적인 공공체육공간 형성을 위해 지자체 간 공동 이용 가능한 시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생활권 내 주민을 동일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 시범 운영 도입 - 축구장, 수영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등 요금 및 예약순위 설정
(3) 생활권 기준 공동예약·이용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시설관리공단, 지자체 홈페이지 등 공공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이 시설별로 상이하여 편리한 활용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한 공공체육시설의 예약 시스템 도입을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예약관리, 수강신청 등 원스톱 서비스 체계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연계 생활권 공공체육시설 공동예약 플랫폼 구축

● 기대효과

- 개별 공공체육시설의 공동예약시스템으로 시설 이용률 및 편의성 증대
- 근거리 체육시설 이용권역 확대 및 체육활동인구 증가를 통해 연계생활권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그림 3-15]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위치 및 전방 2km 범위 (2023.4월 기준)



[그림 3-16] 공공체육시설 공동이용 플랫폼 예시(안)



(3) 7호선 급행열차 공동 추진

● 연계협력사업 필요성

- 도시철도가 승용차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선 개량을 통해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인천~부천~서울을 잇는 주요 철도 노선 중 하나인 7호선은 수도권 철도노선 중에서도 혼잡도가 매우 높으며, 이용량이 많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급행노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7호선 급행열차 운행 추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황이며, 2020년 11월에 수립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기존선 개량대상 노선’으로 검토되었음
- 검토내용으로는 “7호선은 다른 노선보다 운행거리(57km)가 길어, 급행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 구간(도봉산~부평구청)의 급행화 방안을 검토함”으로 나타나며, 검토결과 B/C 1.84로 분석됨
- 7호선은 추진과정에서의 사업 실현성, 안전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진행상황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진행이 필요한 후보노선(후순위노선)으로 포함되어 있음
 - 후보노선(후순위노선)은 향후 여건변화 및 본선 추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에 대하여 5년 뒤 재검토 시, 우선하여 검토예정인 노선을 말함
- 인천과 부천에서 서울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인구가 많은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후보노선인 “7호선 급행화”와 관련된 지자체 간 논의를 활발히 하여 구체적·실현성있는 계획 등을 구상 및 제안을 통해, 향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내 최종노선으로 7호선 급행화가 반영되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연계한 적극적인 대응방향 마련이 필요
 - 7호선이 해당하는 구간은 현재 부천시~부평구~서구 석남역까지 11개 역사가 운영 중이며, 향후 청라연장 구간에 8개 역사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므로 철도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기존 7호선 운행구간(석남역) 까지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재검토 시에는 7호선 청라연장 구간까지 급행화 구간으로 반영하여 검토진행 필요

[그림 3-17]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내 7호선 급행화 검토구간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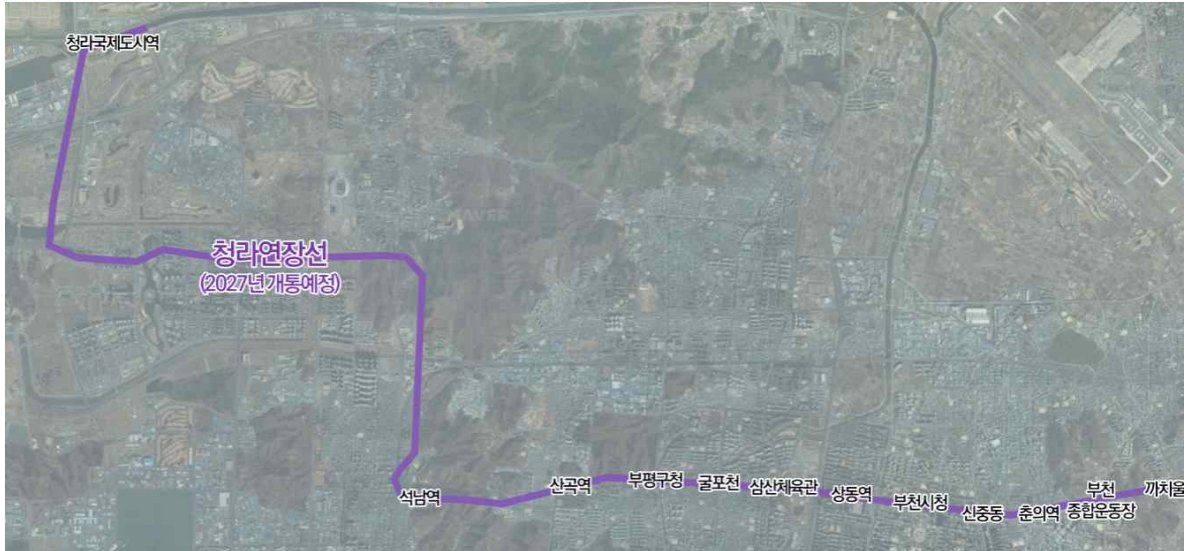
- 7호선 급행화를 통해 철도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 개선 및 시민 만족도 향상 도모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분석한 7호선 급행의 최적개통시기는 2027년이나 현재 최적개통시기에 맞춘 7호선 급행화를 실현은 불가능하므로 최대한 7호선 급행화 실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 추진방향

- 인천시민 및 부천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및 대중교통의 이용률 증가, 연계지역

간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7호선 급행열차 추진'에 대한 인천시와 부천시 간 공동 구상 및 추진방안 등 공동대응 방향 구축

[그림 3-18] 도시철도 7호선 인천, 부천 급행화 추진 필요 구간



● 사업 현황 및 추진전략

○ 그 간의 추진현황

- 2017 7호선 청라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19~202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본계획 및 착수계획 승인
- 2020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
- 2023 의정부시 7호선 연장구간 복선화 건의 (국토교통부, 경기도)
- 2023 부천시 7호선 전 구간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부천시)
 - 서울·부천·인천구간 분야별 근무체계 및 운영인력 검토
 - 부천구간 위·수탁 협의서상 운영인력 적정성 검증 등

○ 추진계획

- 2024 7호선 급행화 타당성 확보 (부천시)
- 2025~2026 관련 관계기관 지속 협의 (부천시)
- 2025~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력 지속 (부천시)
- 2026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추진전략

- 7호선 급행열차 추진은 철도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 개선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제임
- 향후 7호선은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 계획 추진 중이며, 인천 북부권까지 추가연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임
- 이에 따라 7호선 급행열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인 인천, 경기, 서울 간 협의체 구성 및 논의, 급행열차 운영을 위한 대피선 신설 가능지 발굴,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협조, 사업 타당성 추가 확보 등에 대한 공동 추진이 요구됨

[표 3-11] 7호선 급행열차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1) 7호선 구간 관계기관 협의 추진 및 관련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7호선 구간 급행열차 추진 위한 관련기관 및 정치권 등 연계·협조 미흡 • 7호선 연장 구간 중 인천, 부천 구간 보다 서울구간이 다수 포함되어 서울시 의견 절대적인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호선 급행화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협의 및 정치권 협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경기,서울 간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기적 협의 체계 구축 • 인천시 7호선 청라연장구간 복선화 우선 추진 • 7호선 급행사업의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협조 및 공동 대응
(2) 7호선 급행 도입 위한 기술적 검토 및 타당성 추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호선 급행화를 위해서는 대피선 설치 필요하나 대피선 설치 시 막대한 비용 발생 • 7호선 급행노선 B/C 1.84임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내 후보노선으로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호선 급행화 대피선 신설을 위한 기술적 검토 필요 •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선정노선으로 포함을 위해서는 타당성 추가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선 신설을 위한 인천, 부천 내 가능구간 자체 검토 및 공동 계획 •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예상 사업비 재산정을 통한 타당성 추가 확보 계획 공동 추진

기대효과

- 현재 완행으로만 다니는 7호선의 급행열차가 운영되면, 기존보다 출퇴근 시간이 최대 25.5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7호선 이용 시민의 출퇴근 등 이동 및 교통편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급행화를 통해 서울·인천 방면 자가용 이용자의 철도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교통난 해소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및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운연~신천간 광역도로 등 시 경계지역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

●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광역도로는 시간거리와 비용거리를 단축시키며, 교통비용 절감으로 지역산업 육성,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함
- 인천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지자체인 시흥, 김포, 부천 등과 인천시 남동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음
-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인접도시와 동일한 생활권으로 인식하는 주민들은 지역 간 도로 및 교통 시설의 연계가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며,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에겐 행정구역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계 지역 광역도로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한 공동시행이 필요함
 - 행정경계 인근에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연결한 도시 간 이동량이 많아지고, 발생하는 이동량은 기존 도로에 의존하므로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설정한 연결도시 간 경계부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거나 광역도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구간들 중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착공시기가 다르거나 예산집행 시기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도 발생하여 도로개설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
-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지자체별로 교통대책을 확정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거나 서로 다른 시·군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인·허가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대부분 행정적인 요인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므로¹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 간 연계 도로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는 협의 체계 및 대응 방향 마련 필요
 - 현재 지자체간 공조가 필요한 광역도로는 ‘운연~신천간 광역도로’로서 인천시와 시흥시 간의 공동사업으로 건설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침도~약암리 광역도로 확장’ 등도 조속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방윤영, 신도시 ‘교통대란’은 행정지연 때문...“대책은 반성의 결과”, 머니투데이 2023.12.05. 기사내용 참고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인천 및 연계 도시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광역도로의 신설 및 구축을 연계 추진하여 효율적인 도로 노선 설정 및 도로개설을 위한 시기, 예산 등을 단축하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함
- 시범사업으로 제안하는 운연~신천간 광역도로는 인천 남동(매소홀로)~경기 시흥시(포도원로)를 연결하는 동서축 광역도로로 지역간 단절을 해소하고 수인로(국도42호선) 등 교통량 분산을 통한 도로 혼잡 해소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추진방향

- 단절되거나 연계가 미흡한 주변 지역과의 도로연결을 통하여 도시공간을 연결
- 인천 및 연계 도시 간 현재 계획 도로 노선의 개설 추진
- 추가 신설이 필요한 노선 발굴 및 광역도로 지정 추진
- 운연~신천간 광역도로 사업개요
 - 사업구간: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 사업규모: L=1.14km(남동구 0.9km, 시흥시 0.24km), B=20m(4차로)
 - 사업기간: 2023. ~ 2029.
 - 사업비: 334억원[인천 254억원, 시흥 80억원] *2019년도 기준 추정사업비
 - 시행(예정)자: 인천광역시 / 시흥시

● 사업 현황 및 추진전략

○ 그 간의 추진현황

- 2021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광역도로 지정
 - 인천 서구 거침도 ~ 김포시 약암리 광역도로 지정 및 확장공사
 - 인천 서구 검단 ~ 김포시 대곡(마산동) 광역도로 지정
 - 인천 계양구 장기 ~ 김포시 유현 장제로 광역도로 지정 및 확장공사
- 2023 운연~신천 광역도로 지정 및 필요성에 대한 시흥시 협의
- 2023 제5차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반영건의 : 인천시·시흥시→국토부

○ 추진계획

- 2026~2030 제5차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른 광역도로 구축

○ 추진전략

- 운연~신천간 광역도로 등 시 경계지역 도시계획도로 연결공사 추진은 인천 및 연계 도시지역 간의 이동이 편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제임
- 향후 지역 간 연계가 필요한 광역도로 신설추진과 개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광역도로의 조속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계 생활권 간 공동 추진전략 필요
- 지역 간 연계 광역도로 지정 필요지역 발굴 및 광역도로 신설 지정 추진, 광역도로의 개통시기 지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역 간 협의 및 계획 공동 추진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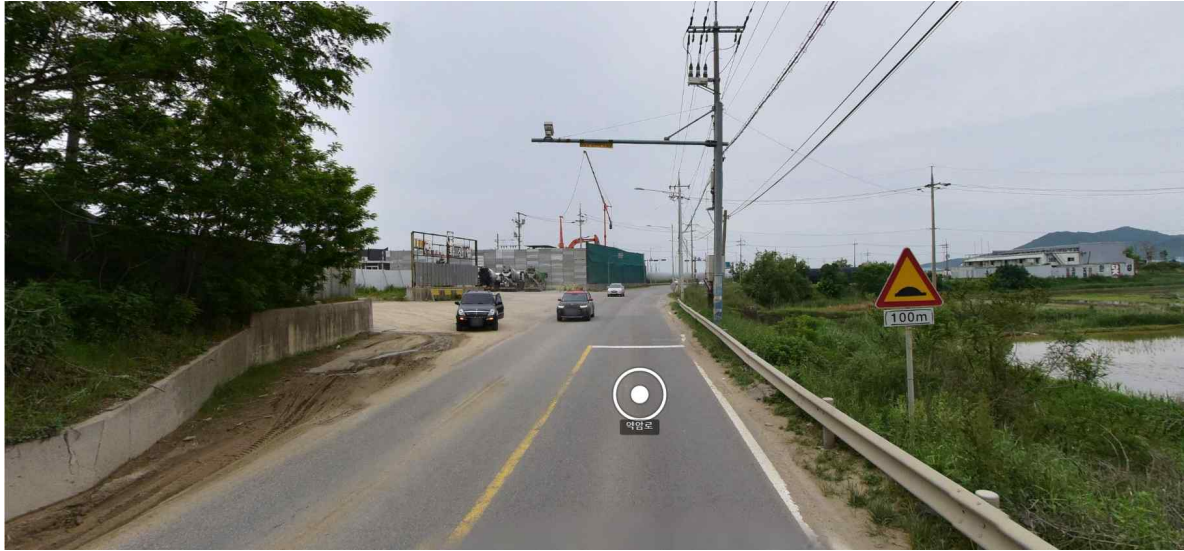
[표 3-12] 운연~신천 간 광역도로 등 시 경계지역 도시계획도로 연결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1) 지역 간 연계 광역도로지정 필요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경계지역의 개발이 일어나며 인접한 지자체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을 연결하는 기존도로에 심각한 교통정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이동량이 늘어난 교통정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신규 광역도로 지정 및 신설을 연계도시 간 협의를 통한 공동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연계가 필요한 광역도로 신설 대상 검토 및 발굴 • 운연~신천 광역도로 지정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내 반영을 위한 인천-시흥 공동 추진
(2) 광역도로의 개통시기 지연발생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도시 간 경계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계획의 지자체 별 내용 상이한 경우 발생 - 착공시기, 예산집행 시기 등이 달라서 생기는 도로 전구간 개설 사업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광역도로를 공동으로 조사하여 조속추진 방안 마련을 통한 교통 불편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및 연계 생활권 간 광역도로 개통지연 현황 파악 및 조속추진 방안 공동 마련 - 인천 서구 거침도~김포시 약암리 (2023→2026) • 향후 광역도로 개설 시 지연 상황에 대비한 지자체 공동 대응 방안 수립

● 기대효과

- 지역 간 연계도로 확대 및 조속 설치를 통한 지역 내 교통체증 감소
- 지역 간 접근성이 높아지며, 지역 시민 간 교류의 기회 확대
- 연계도로 확충을 통한 유동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로 도시 내 활력 증가

[그림 3-19] 행정경계지역 도로확장 개설 지연 사례 (거침도~약암리)



(5) 강화·김포 염하수로 공동관리 및 접경지역 일대 역사관광자원화

●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강화군과 김포시를 연결하는 염하수로는 강화군에 위치한 초지진 등 역사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
 - 갑곶돈대를 비롯한 염하수로 일대는 고려시대 대몽항쟁기 등에 중요한 역사 공간이었음. 조선시대에는 경상, 전라, 충청 등에서 출발한 세곡선이 이곳을 지나 한양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었으며, 조선후기 격동하는 동아시아 역사의 현장으로서 많은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음
- 최근 국내 관광객 뿐만아니라 국제 관광수요가 늘어나는 추이이므로 강화 및 김포 등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주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대 및 관광프로그램 시행, 마케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수요 유치가 필요한 시점임
 -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약 171만 명)가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1분기(384만 명) 대비 44.6%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5월에는 지난해 동기(17만5922명) 대비 392.9%가 증가(86만7130명)하는 등 국제 관광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인천은 강화 접경지역의 복합체험문화공원 조성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강화 접경지역의 관광산업 육성 및 인구공동화를 막고 지역 소득의 증대, 수도권 도·시민간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 공유를 통한 상호교류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는 해당 지역이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연계 지역 간 교류 및 역사문화재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각 지자체가 행정경계 및 염하수로 등에 의해 단절된 별도계획을 각각 수립함으로써 상호 연계성이 없으며, 각 지자체별 관광자원의 위치, 지자체별 탐방로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자 측면에서 알아보기 쉽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천시 강화군은 염하수로변을 따라 강화나들길 2코스를 개발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도 김포시 역시 염하수로변을 따라 김포 평화누리길 1코스를 개발하였으나 서로 연계는 미흡한 상태임
- 인천 연계 지역 간 탐방로의 연계·순환로 계획, 관광자원 현황의 공유 및 안내, 관광자원의 활용, 시민 편의시설 구축 등을 공동으로 계획할 경우, 지역 간 단절을

해소 및 관광요소의 확장으로 인해 상호보완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연계 계획 방안 마련 필요

- 염화수로변의 두 탐방로를 연계할 경우 기존 탐방로의 일방향성을 극복한 순환루트를 이루게 되므로 상호보완효과가 큼
- 탐방로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확대하여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체 리듬을 고려한 쉼터나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종합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개별적으로 조성된 강화나들길과 김포 평화누리길을 종합적으로 정비 및 연결하여 관광을 위한 자원 확대 도모
- 통합적인 안내 체계 제공
- 이용객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관광객 확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기존의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행 동선에 더해 자전거 동선을 추가로 확보함
- 구 강화대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정감있는 보행 및 자전거 이용환경 제공
- 양 지자체의 관광정보를 상호 제공하여 시민이 편리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 사업현황 및 추진전략

○ 그 간의 추진현황

- 2021 평화의 물길열기사업 염화수로 민간선박 항행행사 (김포시-통일부)
- 2021 체험복합 문화 공간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 추진계획

- 2026 강화 접경지역 복합체험문화공원 조성

○ 추진전략

-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화·김포의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공공관리 방안 추진은 개별적으로 조성되어있는 각 지자체별 산책로, 관광자원의 연결하

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상호보완효과를 통한 관광요소 및 인프라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 과제임

[표 3-13] 강화·김포 염하수로 공동관리 및 접경지역 일대 역사관광자원화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1) 지역 간 역사문화 자원 연계 및 산책길 조성·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가 행정경계 및 군사지역, 염하수로 등에 의해 단절된 별도의 관광 및 여가 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상호 연계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자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관광 및 여가 자원의 연결 필요 • 주요 관광자원 간 연결로 신설 및 확대를 통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활용성 확보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누리길(김포) 및 강화나들길(인천) 보행탐방로 및 자전거길 정비 및 확대 계획 공동 수립 • (구)강화대교 및 초지대교 순환보행로 정비사업 공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진, 덕포진, 광성보, 갑곶돈대, 문수산성, 황산도 및 강화도내 관광지-김포시 관광지 연계
(2)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정보 통합안내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관광자원의 위치, 탐방로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자 측면에서 알아보기 쉽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방로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확대하고, 주요 관광자원의 이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김포 접경지역 주요 관광자원 추가 발굴 사업 공동 추진 • 강화-김포 관광종합플랫폼 구축 추진 • 염하수로 민간선박 항행이벤트 공동 추진(인천시, 강화군, 김포시) • 염하수로 내 선착장 정비 및 유람선 상시운행 공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 초지진선착장, 대명포구 등

● 기대효과

- 유람선 및 보행 순환루트 조성을 통해 탐방로를 통한 관광객 이용 증대
 - 단순 경관감상 등이 아닌 수도권 도·시민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역사·문화적 상호 교류 기회 증가
- 지역주민 편의제공 및 관광이용 증진 지원을 통한 연계지역 경제활성화
 -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인구공동화를 막고 지역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음

[그림 3-20] 염하수로 위치도



<해당 시군위치>



<염하수로 위치>

[그림 3-21] 염하수로 일대 현재 각 지자체별 둘레길 설정 현황



[그림 3-22] 염하수로 일대 역사 및 관광자원 연계 순환 노선 제안



3)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1) 계양테크노밸리-대장신도시 생활SOC 및 주요 인프라 통합이용시스템

●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신도시는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연결하여 조성되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상이하어 계획 간에 기능적 연계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도시기반시설의 공동 설치, 경계지역의 환경시설 등의 입지관리, 공공문화·체육 시설 및 대중교통의 공동사용 및 관리 등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이 중 경계지역 내 위치하는 환경시설의 경우 계양테크노밸리와 대장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자원순환센터 현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사용과 주변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가치 제고를 위해서 연계 지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시 경계지역이 도시외곽부로 방치되다가 3기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와 대장지구
의 조성으로 인해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적 기능이 부여될 예정임
 - 경계지역에 위치한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
 - 지역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시설이용의 효율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도록 함
- 추진방향
 - 3기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와 대장지구는 지자체가 달라서 각각 개발계획을 수립
하였으므로, 계획실행에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공동의 연결지역 계획방향 필요
 - 계양·대장신도시 내 계획중인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의 공동 활용
및 관리방향 설정 등
 - 계양·대장신도시 내 대중교통 연계시 인천, 경기부천의 버스 노선 등의 공동이용
및 노선연계 추진

● 사업현황 및 추진전략

○ 그 간의 추진현황

- 2018 3기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및 대장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 2020 3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양테크노밸리 2019, 대장신도시 2020년)
- 2022.11 계양테크노밸리 착공
- 2023.10 대장신도시 착공

○ 추진계획

- 2026~2029 사업준공 및 입주

○ 추진전략

- 계양테크노밸리와 대장신도시 생활SOC 및 대중교통 통합이용시스템 마련은 각 행정경계 지역에 신규 개발도시 내 시설의 효율성, 교통인프라의 공유 등을 위해 하나의 생활권으로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 과제임

[표 3-14] 계양테크노밸리-대장신도시 생활SOC 및 대중교통이용시스템 구축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1) 생활SOC의 적정한 수요를 고려한 공급, 배치를 통한 효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포천을 사이에 두고 연결하여 조성되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계획 간에 기능적 연계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기반시설의 공동 설치, 경계지역의 환경시설 등의 입지관리, 공공문화체육 시설 및 대중교통의 공동 사용 및 관리 등을 계획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구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대장신도시 공공문화시설 등 생활SOC 수요 및 공급, 배치 공동계획 수립 -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골포천 주변의 행정경계 정리 등 포함
(2) 주요 인프라 공유 및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지역 내 위치하는 환경시설, 버스노선연계 미흡, 철도 교통망의 부재 등 주요 도시 인프라의 유무로 인한 주민 불편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양대장신도시 공공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무차별 공동이용 플랫폼 마련 • 계양대장신도시 대중교통 노선연계 및 공유자전거 등 환승시설 공동조성 • 신도시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입지 및 난개발에 대한 공동관리 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외곽지역의 주거지 개발로 인한 생활SOC 및 교통시설 부족 등 문제점 최소화
-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생활권 단절해소 및 지역주민 편의성 강화

[그림 3-23] 3기 신도시 인천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위치도



(2) 도시농업 관련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세계 각국의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중임
-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로운 농업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도시농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
- 최근 인천 및 서울, 부천, 시흥, 안산 등 인천 연계 생활권 도시 내에서도 농업 관련 기반마련, 스마트팜의 확대 등 도시농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계획을 마련함
 - 현재 ‘서울 시민텃밭프로그램’, ‘계양, 남동, 연수구 도시텃밭’, ‘부천 대장지구공원 도시농업’ 등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지역이 있음
- 각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및 주말농장 확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되고 있지 않아서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작물의 현황, 도시농업 생산물의 판매 및 소비체계 등이 미흡한 상태임
- 향후 도시농업 및 도시근교농업 관련 산업, 도심 스마트팜 등이 확대되려면 지역 생활권 간 연계를 통해 각 지역 내 다양한 특산품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며, 지역 생활권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 홍보, 가공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플랫폼 구축 필요
- 인천 연계지역 간 경계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등을 활용한 지역간 연계 텃밭(농장)운영 프로그램 공동·협력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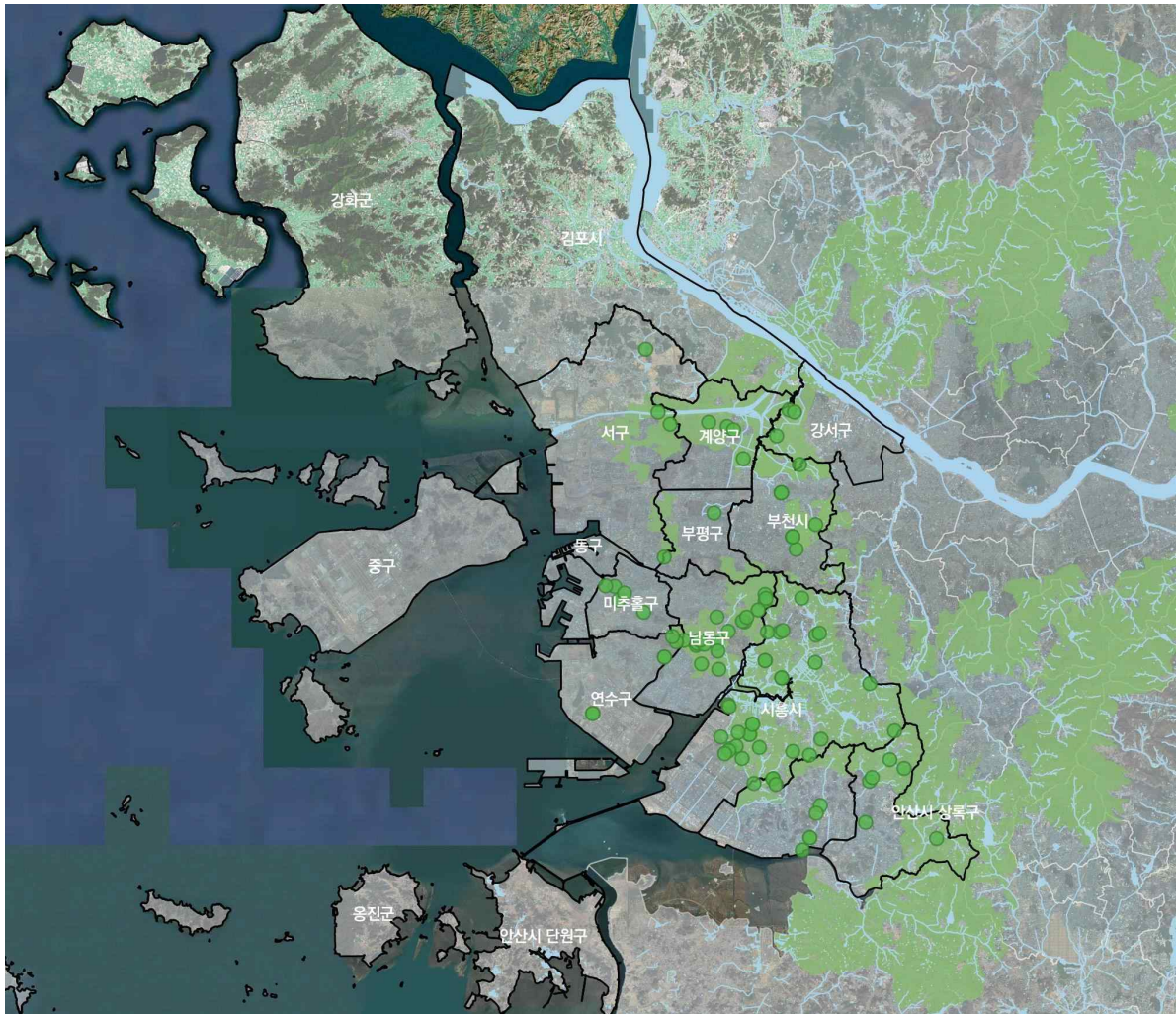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도시농업 관련, 스마트팜 등을 지원하여 도시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천 연계지역 내 농어촌 융복합산업화 추진기반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친환경 위주 식습관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및 건강한 식습관 조성에 기여

○ 추진방향

-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충분한 도시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유휴농지 등을 활용한 도시 주말텃밭(농장) 운영을 통한 도시 경계지역 공동 활용
- 도심 내 농산물 생산지역의 확대 및 지역별 특산품 홍보, 연계소비 등을 위한 지역 간 공동 유통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천 연계 생활권의 친환경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방향 마련 필요
-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심 내 유휴공간 발굴 및 활용 방안 마련
-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관련 가공제품과 판매방식의 고도화 등을 통한 도시 내 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지원방향 마련 필요

[그림 3-24] 인천시 및 인접자치체의 도시텃밭 위치도



● **사업현황 및 추진전략**

○ 그 간의 추진현황

- 2017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설립 (민간비영리단체)
- 2023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이음텃밭 (송도)’ 분양 (인천시)

○ 추진계획

- 2023~2026 도시농업공원 및 공간 활성화 계획 추진 (시흥시)

○ 추진전략

- 도시농업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추진은 다양한 도시농업 및 도시근교농업을 위한 공간을 창출·활용하여 연계 생활권 내 도시텃밭, 농장 등을 조성하고, 연계지역 간 공동체 교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제임
- 유희농지의 활용을 통한 도시농장 운영, 시민을 위한 도시농업 기능의 조성, 도시 내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략 추진 필요
- 지역 간 공동 주말농장 분양프로그램 계획·운영, 개발제한구역 등 유희지를 활용한 도시농업농장 등 농산물 생산 기능 확대·특성화, 생태자원 보존 및 생태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지역 간 공동 추진이 요구됨

[표 3-15] 도시농업 관련 공동이용 플랫폼 구축 추진전략

추진사항	As-Is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향 (해결사항)	To-Be (향후 방향 및 협력사항)
(1) 시민을 위한 도시농업 기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및 주말농장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 관련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음 •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성 증대 • 도시농업의 가치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연계 생활권 도시간 주말농장 계획 및 운영방안 연계를 통해 도시농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 필요 • 도시민의 여가, 취미 등을 위한 도시농업 기반 확대 • 도심형 ‘도시텃밭’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심 내 유희공간 발굴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공동 주말농장 분양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도시농업을 위한 생태자원 보존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구축·운영 • 연계 생활권 내 유희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도시농업농장 등을 조성
(2) 도시근교 농업의 단계적 활성화 체계 구축 및 확대 필요성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근교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작물의 현황, 농업 생산물의 판매 및 소비체계 등이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내 농산물 생산지역의 확대 및 지역별 특산물 홍보, 연계 소비 등을 위한 지역간 공동 유통플랫폼 구축 필요 • 인천 연계 생활권의 친환경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방향 마련 필요 • 농업 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관련 가공제품과 판매방식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연계도시간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제 및 인테니숍(제품기획 및 생산에 반영하기 위한 테스트 공간), 유통 플랫폼의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등 • 도시내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대상 온라인 마케팅 기술교육 및 제품 사업화 교육지원

● 기대효과

- 도시 농업의 확대 및 스마트팜을 통한 도시 내 탄소저감, 생태환경 개선으로 기후위기 대응체계 마련
- 가까운 지역에서 공급받는 신선하고 양질의 친환경 먹거리를 통해 시민 식습관 및 건강개선
- 인천 연계 생활권 내 지역 영유아, 청소년들을 위한 도시농어업·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생태교육 환경 마련
- 농협 - 농업인 - 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생산된 농산물 특성화로 농산물 소비확대 및 농업인 소득향상 기여

[그림 3-25] 스마트팜 관련 예시



[그림 3-26] 지역 연계 공동 주말농장 운영 및 활용



04 지역생활권 사업추진체계

1. 지역생활권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향
2. 지역생활권 협의체 운영 계획
3. 지역생활권 협의체 추진체계 제안

04 지역생활권 사업추진체계

1. 지역생활권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향

1) 지역 간 연합체를 통한 광역도시 문제 해결 사례

● 영국 광역연합체(Combined Authorities)

- 영국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그대로 두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광역적 기능 일부를 별도 수행하는 연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도입됨
- 교통, 경제개발, 도시재생 등 광역적 기능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정부에 신청하고 이를 허가받아 구성함
- 중앙정부와 연합기구 간의 분권 협상(devolution deal) 실사 등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상호 배분하는 과정 등을 거침

● 프랑스 메트로폴(Metropole)

- 메트로폴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나 재정자율권(지방세율과 지방세 부과권)을 가진 영조법인에 해당함
- 메트로폴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경제개발, 지역주택, 수도와 위생, 교통, 도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21개의 메트로폴이 운영되고 있음

● 일본 광역연합제도

- 일본은 광역적인 대처를 추진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각각의 시정촌은 그대로인 상태로 연계 및 조정을 통해 대처하는 광역행정이 있음
- 각 기초자치단체는 규모, 지리적 조건 등의 사정이 달라서 사무 및 사업에 따라서는 광역적인 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실시함

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질적으로도 향상된 사무처리를 시행하고 있음

- 광역행정의 경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는 형태와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한 일부사업조합, 광역연합의 형태가 존재함
 - 광역연합은 다양한 광역적 니즈에 유연하고 효율적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 양 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 일부사업조합은 지방공공단체가 해당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공공단체이며 2021년 기준으로 일본 전국의 1,409개 조직이 존재함
- 일본의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도도부현, 시정촌, 특별구를 설치할 수 있음
-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광역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연락 및 조정을 피하여 사무의 일부를 광역에 걸쳐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단체의 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에 의한 규약을 정하고 국가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지방공공단체를 설치하는 방식임
- 광역연합은 국가나 도도부현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세계 주요 도시들은 다양한 광역교통망의 구축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보급등으로 주민의 활동 범위가 행정구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광역화하고 있는 추이임
- 이런 이유로 복수의 지자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방향도 논의되었지만 이러한 경우, 각 지역별로 가진 경제적·사회적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합병으로 인해 도시 일극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광역연합’ 제도의 도입을 통해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광역적 니즈에 대응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여 활발하게 시행 중임
- 지자체 통·폐합과 같은 방식을 통해 도시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 보다는 혁신적 광역행정의 운영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천과 연접도시 간 광역연합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구역을 초월한 광역행정을 실행하는 방향성 필요함

- 인천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서울시 강서구를 아우르는 “인천 연계 생활권 연합체 구성” 추진을 통해 인천과 동일한 생활권·경제권에 속해있는 도시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인천이 가진 세계적 인프라인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도서, 해양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광역화 정책 실행이 필요한 시점임

2) 인천 연계 도시간 생활권 연합체 구축방향

(1) 연계 도시간 연합체의 필요성

● 연계 도시간 연합체의 부재로 광역문제 해결이 어려움

- 광역적 도시문제 발생 시 행정협의회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계획수립권, 예산 집행권 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논의, 계획 등이 어려움
- 일시적인 광역적 거버넌스 운영으로 연계 지역 관련한 주요 사업의 추진이 더디며, 사업의 기획, 집행 또한 관련 지자체 및 부처 단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용 및 진행 상황 등 필요한 정보공유 어려움

● 연계·협력을 위한 행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희망하는 주민 다수 존재

- 수도권 주민 설문조사 결과(2020년 3월 시행), 응답자의 33.7%가 수도권 내 시·도간 연계 및 협력 수준이 부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 시·도간 연계 및 협력이 부진한 이유로는 ‘협력을 위한 행정 및 제도적 기반 미비(41.8%), 공동발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34.1%), 협력에 따른 추진성과에 대한 불신(12.3%), 협력을 위한 재정적 기반 미비(11.5%)로 나타남

(2) 기본방향

● 연계 도시 간 연합기구 상설 및 기능 강화

-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의 실천력 및 실효성 제고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하여 현행의

제도에서 나아가 수도권 지역 내 지자체가 관련 지역 내 문제를 직접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권형 생활권역 거버넌스를 구축

- 인천시 및 자치구,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서울시 강서구 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그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향후 대도시권 광역 거버넌스로의 확장 도모

3) 지역 간 연합체 구성 및 운영 방향

● 지역 간 연합체의 구성

- “인천 연계 도시간 광역연합”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집행의 주체인 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을 강조함
- 인천 연계도시 간 광역연합체의 구성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199조 및 제202조에 따라 각 지자체 의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할 수 있음
- 인천 연계 생활권 지역 간 광역적 연합체 구성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정하고 구성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국가기관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는 지자체 간의 충분한 협의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과제의 공유, 공동 추진 사업의 발굴 및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

● 지역 간 연합체 운영방향

- 구성된 “인천 연계 도시간 광역연합”은 발전계획 시행의 현장 컨트롤 타워로서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 설정, 사업의 발굴,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재원의 분담 및 투입, 행정협력 확보, 지자체별 집행실적의 모니터링 등의 기능 수행
- “인천 연계도시 간 광역연합”이 성립되면 국가 및 시·도로부터 직접적으로 권한 등을 이양받을 수 있고 직접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한 사무는 광역연합에 인계되어 실행하도록 함
- 광역연합의 재원은 구성 지자체의 분담금, 수수료, 지방채 등으로 마련하며 세금을 통한 수입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방향을 제안

2. 지역생활권 협의체 운영 계획

● 인천 연계 생활권 협의체 운영을 위한 규약 주요내용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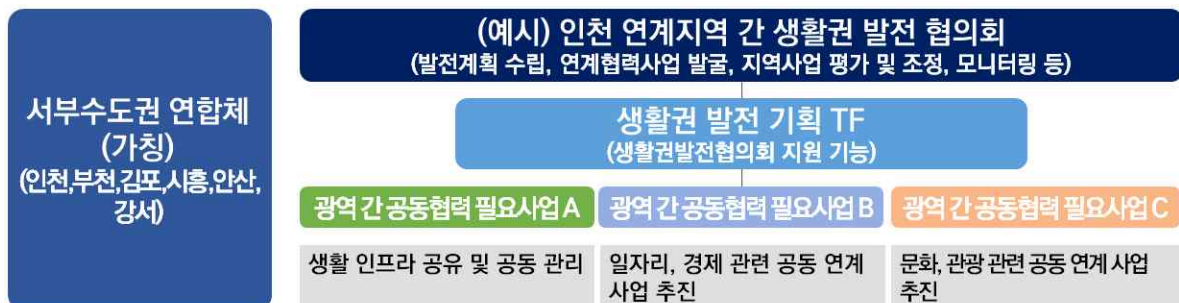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목적, 명칭, 구성 지자체,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함
- 특별연합이 처리하는 사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특별연합회의의 구성, 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특별연합의 장,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경비부담,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및 특별연합에의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시행일, 사무처리개시일 및 출범에 따른 특례를 정함(부칙)
- 시도 이관사무와 중앙행정기관 위임사무를 정함(별표)

3. 지역생활권 협의체 추진체계 제안

● 1안: '인천 연계 생활권 협의체' 구축 추진

- 인천 연계 도시간 생활권 발전을 위한 연합 협의체는 '생활권 발전계획 공동수립', '생활권 내 공동협력사업 발굴', '공동의 발전목표와 비전 설정' 등을 수행하여 광역연합에 포함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
- 협의체 및 생활권 내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며 생활권 내 갈등 대응, 생활권 주요 사업 모니터링 등 생활권 발전을 위한 실무역할을 담당하는 생활권 발전 기획 TF 구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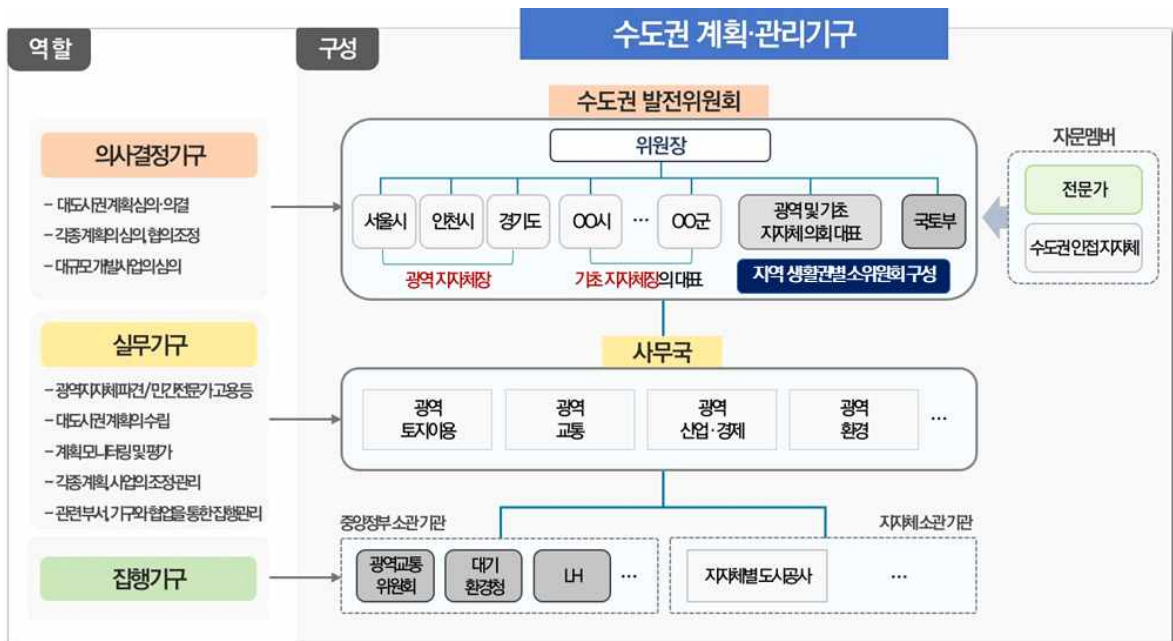
[그림 4-1] 인천 연계 도시간 생활권 추진체계 제안 1 (예시)



2안: 수도권(대도시권) 광역 거버넌스 기구 내 소속 협의체 형태 운영

- 인천 연계 도시간 생활권은 2040수도권광역도시계획의 생활권과 유사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대도시권 광역 거버넌스 기구’ 내 소속한 소위원회 형태로의 운영 방안 제안
- 현재 계획 중인 ‘2040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서 제시하는 ‘수도권 계획·관리기구의 수도권 발전위원회’에 소속하는 ‘인천 연계생활권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해당 생활권 내에서 필요한 의사결정, 각종 계획의 심의 및 협의조정,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 등이 해당 지역 내 필요한 때에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제안
- 수도권 발전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직접적인 연계 도시 내 주요사안에 대한 공동 논의 안건 발굴 용이, 협의기간의 단축, 의사결정의 간소화 등 효율성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소위원회를 통한 지역 생활권 내 이슈 및 공동 안건에 대한 논의 중 광역적 확대 연계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에는 ‘수도권 발전위원회’를 통해 광역적 논의 및 의사결정 가능

[그림 4-2] 인천 연계 도시간 생활권 추진체계 제안 2 (예시)



인천 연계 도시간 생활권 현안 발굴 및 강화방안

발 행 2023년 12월 발행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